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오늘날의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매우 빠른 변화양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동서이데올로기의 차이는 더 이상 국가간 경계의 강화에 이바지 하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통신수단의 발전은 세계를 일일 영역으로 단일화 하여 문화적 경계선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본의 흐름 또한 약화되고 있는 국가와 문화적 경계위에서 보다 거대한 세계적 보편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회 또한 이와 같은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여 그에 적합한 발전 방향의 설정과 대안의 모색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정치와 관료제의 개혁,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정책 모색, 교육 개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와 문화의 강조 등이 이에 대한 현실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 문화의 현실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항시 접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삶을 키워나가고 있는 근본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환경의 부정성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볼 때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학교와 가정, 소비공간으로서의 청소년 밀집지역, 주거지역 등 청소년들이 접촉하고 있는 모든 공간들은 그들의 인성 발달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화환경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¹⁾.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 영역에서의

1) 이 부분은 이미 에릭슨(Erikson), 마르시아(Marcia), 콜버그(Kohlberg) 등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대표적으로 검증되었으며, 더불어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도 조학래(1996), 류경희(2003), 이은희·공수자·이정숙(2004) 등 다수가 이루어져 왔다.

문화환경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성되고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을 때 한국 청소년들의 인성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 문화환경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볼 때 그 대답은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계된 선행 연구들은 학교에서는 여전히 위계적 권위구조와 일방향적 수업식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차원에서의 폭력과 차별 및 배타의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도 상황은 이와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거지역과 청소년 밀집지역에서도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들이 혼재된 상태로 산재해 있는 등 청소년 문화환경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직도 올바른 방향으로의 재정립이 근본적인 부분으로부터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모하기 위해 구성되어 실천되고 있는 청소년육성정책 또한 청소년들의 문화환경에 대한 기본적 실태조사 없이 시설 중심의 수련활동과 프로그램 위주의 문화활동 지원 등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집중을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심의 정책에 있어서도 청소년 유해환경의 발생 가능성과 한정적 단속에 대해서만 관심을 둘 뿐, 청소년 문화가 자발적으로 긍정적인 차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환경 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재조명에 대해서는 논의를 제외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이와 같은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향후 한국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은 이를 가능하게 할 기초 토대로서의 문화적 환경에 대한 본질적인 의식 전환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청소년 문화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적 논의와 청소년 문

화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보고서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부분으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상기 필요성에 입각하여 우선 청소년 문화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이론적 차원에서의 간략한 재정립을 시도하고, 나아가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이 그들의 문화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의식조사를 하고자 하며, 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의 문화환경에 대한 현지 지역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문화환경 개선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정책의 방향성 및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사상누각(沙上樓閣)의 의미처럼 기초 조사 없는 실천 방안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본 정책연구의 의미는 향후 이루어질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강건한 청소년 문화환경 발전 정책에 대한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정책 현황

1. 청소년 문화환경 이론
2. 청소년 문화환경 정책 현황

II. 이론적 고찰 및 정책 현황

본 장에서는 우선 문화 및 문화환경의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이라고 하는 특수 연령층에 있어서의 문화환경이 의미하는 바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청소년 문화환경 이론

1) 문화 및 문화환경의 의미

문화라는 개념은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로 본래의 뜻은 경작(耕作)이나 재배(栽培)의 의미를 담고 있다.

문화를 해석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문화를 절대적 또는 보편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이상적인 것, 즉 인간이 완벽함에 이르는 과정이나 상태라고 보는 정의이며, 둘째는 문화를 인간의 생각과 경험들이 다양하게 기록된 지적이고 상상적인 작업의 산물, 즉 텍스트로 보는 관점이며, 세 번째는 삶의 방식과 상징체계로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들에 의하여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유네스코(UNESCO, 1980)에서 바라보는 문화란 건축, 미술, 공예, 디자인, 유산, 복합문화주의, 토착 문화, 공원과 휴양, 종교, 운동 및 고시 설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이트(L. A. White, 1977)는 인간을 상징을 사용하는 유일한 동물임을 강조하고 이것이 문화의 기초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인류학자 타일러(E. B. Tylor, 1871)는 문화를 정의하길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이들 논의를 포괄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차원에서 문화를 정의할 경우 문화는 ‘인간 생활양식의 총체’라고 규정될 수 있다. 행위규범, 가치관, 예술, 지식, 종교 등은 모두 생활양식의 개념에 포함되어지기 때문이다. 문화는 구성원들을 상대로 정당화, 제재, 내재화 등의 과정을 거쳐 그들에게 경험적, 심미적, 규범적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거부감 없고 자연적이며 당연한 행위 양식 또는 생활양식으로서의 일반적 문화가 공유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문화환경의 의미는 문화의 의미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환경이라는 개념은 ‘주체를 유형·무형,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주체의 생활양식에 긍정·부정, 유형·무형, 직·간접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는 일체의 부분’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문화환경의 개념 역시 ‘인간 생활양식의 구성, 유지,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제반 환경’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의 문화환경은 그 특성에 의하여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진다.

첫 번째는 문화환경의 지향성에 의거한 정의로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도구를 통해 구성되어진 문화환경을 의미하는 ‘문화를 위한 환경’과 정책적으로 결정됨 없이 자생적으로 발생한 문화환경인 ‘문화적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백유진, 2002).

두 번째는 문화 인프라의 유형에 따른 정의로서 여기에는 도로, 건물 등과 같이 인간에 의한 인공적 도구에 의해 구성되어진 문화환경을 의미하는 ‘인공적 문화환경’과 나무, 산, 강, 공기 등과 같이 자연적 대상에 의해 구성되어진 문화환경인 ‘자연적 문화환경’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문화 인프라의 특성에 의한 정의로서 일련의 프로그램 등과 같이 문화환경을 위해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는 무형의 문화환경

인 ‘소프트적 문화환경’과 문화환경을 위해 구성되어진 기반시설 중심의 유형적 문화환경인 ‘하드적 문화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간성에 의한 정의인데, 역사적으로 과거에 이루어진 유·무형의 문화환경으로서 보존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문화환경’과 현실공간과 시간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환경으로서 현실적 만족과 미래지향적 창조가 중요 가치로 설정되어 있는 현실적 문화환경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문화환경은 결국 보편적으로 문화적 자유를 지향하며, 삶의 질과 문화적 발전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백유진, 2002), 이처럼 생활양식에 영향을 주는 총체로서의 문화환경은 주요 구성요소로 구성원의 참여, 정책, 자연적 조건, 역사적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자생적인 측면에서의 요소들과 인위적인 요소들에 의한 요소들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자생적인 차원에서의 요소에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 자연적인 조건, 일부의 역사적 조건 등이 포함되고, 인위적인 요소에는 공공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창의성, 체계성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를 위한 정책(백유진, 2002)이 대표적이며 여기에 일부의 역사적 조건들이 포함되어 진다.

한편,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는 2002년도 문화관광부 정책 콘텐츠 분류기준과 문화환경 진단 대상 분류를 종합하여 문화환경 범주 구분 및 진단지표를 구성하였는데, 이를 인용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1-1> 문화환경진단지표

구 분		대 상	
전 영 진	문화예술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문화(예술) 시설 및 복합단지 - 문화예술 행사장 -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전용시설 및 단지 - 상설적 문화예술 활동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로 정하는 문화시설 중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등의 시설 - 야외음악당 등의 문화예술 행사장
	문화산업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문화산업을 위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 클러스터/네트워크/아카이브/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산업 클러스터
편 영 진	생활문화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생활환경 - 문화적으로 세련된 일반생활환경 - 문화환경이 집중되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로 정하는 문화시설 중 도서시설, 지역문화 복지시설 - 문화의 거리/문화지구 - 걷고싶은거리/문화광장/공원/지역축제행사장/역/휴게소 등의 공공시설 - 쇼핑몰 등의 소비문화공간
	역사문화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로 지정된 유형·무형 문화재 -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 및 지역 - 민속마을과 전통마을 등의 역사성이 있는 거주공간 - 기능보유자 및 무형적 문화유산 전수를 위한 모든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마을, 전통마을 - 문화자원보존지구 및 역사문화 미관지구 - 문화재보호구역 및 근현대 문화유산(건축물) - 사찰, 성당, 교회 등 오래된 종교시설 - 법규에 의한 문화보급 전수시설 - 전통 문화예술인(주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등) 창작 및 교육공간 - 문화예술인의 창작물 관련 유산(생가, 창작지역)
포 괄 성	지역문화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문화환경 - 광역문화환경(특별시, 광역시, 도) - 기초문화환경(일반시, 군, 구, 읍, 면, 동,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광역시/도의 문화환경 - 일반시/군/구의 문화환경 - 읍/면/리/동의 문화환경 - 마을 문화환경

* 출처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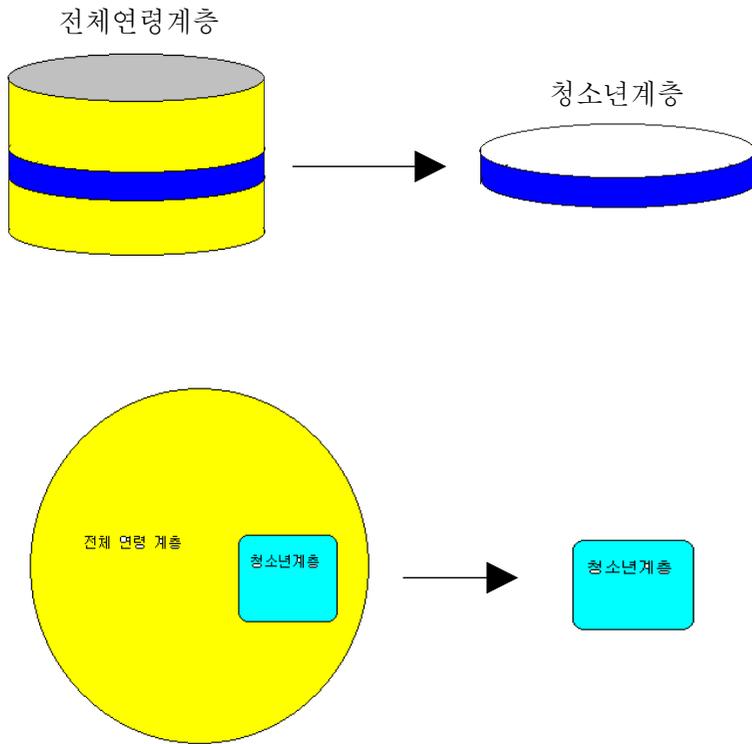
2) 청소년 문화환경의 의미

청소년 문화환경의 의미는 앞서 살펴본 문화환경의 일반적인 의미에 부가하여 청소년의 발달과정상 특징이 고려되어져 다음과 같은 의미가 추가되어진다. 이는 청소년의 행동 범주 구분에 의한 정의로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여 1차 집단과 여타 집단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

첫째는 내적 문화환경으로서 청소년의 1차 집단인 가족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환경을 말한다. 이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볼 때 문화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주변 문화환경과 교류해 나갈 수 있는 자생적인 문화적 힘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가족 문화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외적 문화환경으로서 학교를 포함한 사회 전체 영역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문화환경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다시 몇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매체 문화환경, 교육 문화환경(학교, 학원 및 이들 주변지역 포함), 청소년 밀집지역 문화환경(대표적인 청소년 소비지역), 주거지역 문화환경(가구 내부 제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청소년 문화환경에 대한 이와 같은 분류는 앞서 살펴보았던 문화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에 비해 특정 연령계층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앞선 정의가 전체 연령층과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청소년 문화환경에 대한 이 구분은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연령적, 사회적, 발달과정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져 이루어진 구분이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1] 청소년 문화환경의 특수성 도출 과정

결국, 본 보고서에서는 조사에 사용할 청소년 문화환경 개념의 영역을 이들 두 가지 상위 논의의 내용들을 연계하여 현실공간을 중심으로 조사 가능성, 실질적 중요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개념적 범주로 구성하였다.

<표 11-2> 청소년 문화환경 조사 범주

조사영역 수용여부	배 경 문 화 환 경	현 실 문 화 환 경	비 고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환경 - 역사문화환경 - 지역문화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밀집지역 문화환경 - 가족 문화환경 - 주거지역 문화환경 - 학교 문화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가능성 - 실질적 중요성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환경 - 문화산업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공간에서의 청소년 문화환경으로 분류

2. 청소년 문화환경 정책 현황

정책 현황 분석의 목적은 청소년 문화환경 증진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관련법 및 정책들의 방향 및 내용들을 분석해봄으로써 이를 의식조사 및 현지 지역조사에서의 결과들과 비교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성과 대안들을 도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에 있다. 본 장에서 사용될 관련법 및 정책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다.

1)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 문화환경

청소년육성법은 1987년에 제정된 최초의 독립적 청소년관계법으로서 청소년만을 위한 제도 및 정책적 장치가 미비하였던 시기에 청소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육성법에 담겨져 있는 주요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5조(가정의 책임)

제6조(사회의 책임)

제7조(국가의 책임)

제8조(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제9조(청소년지도위원)

제10조(종합회계의 수립 등)

제11조(청소년의 달)

제2장 청소년시설

제12조(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3조(시설운영의 위탁)

제14조(사용료 등)

제3장 청소년단체등

제15조(협조 및 지원)

제16조(보조 등)

제17조(청소년지도자의 육성 등)

제18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4장 한국청소년연구원

제19조(연구원)

제20조(정관)

제21조(사업)

제22조(임원)

제23조(원장)

제24조(출연금)

제25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제26조(민법의 준용)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

제27조(기금의 설치)

제28조(기금의 조성)

제29조(기금의 관리·운용)

제30조(기금의 용도)

제6장 보칙

제31조-제36조

부칙

제1조-3조

총 6장으로 구성된 청소년육성법의 이와 같은 내용들 중 청소년문화 및 문화환경을 광의의 의미에서 직·간접적으로 담고 있는 부분은 제1조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과 제4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계된 부분이다. 그러나 이 역시 매우 선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실천적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에는 청소년 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면, 1991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의 현실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획기적인 청소년 정책 영역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다른 법과의 관계)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6조(가정의 책임)

제7조(사회의 책임)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9조(청소년교류의 진흥 등)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 제10조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 제11조 (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과 지원체계)
- 제12조(청소년육성위원회 등)
- 제13조(지방청소년위원회)
- 제14조(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16조(계획수립의 협조)
- 제17조(청소년의 달)

제3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등

- 제18조(수련거리의 개발)
- 제19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 제20조(청소년지도사)
- 제20조의2(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
- 제21조(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등)
- 제22조(청소년지도위원)
- 제23조(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 제24조(수익사업)
- 제25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제25조의2(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제4장 청소년수련시설

- 제26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제26조의2(수련시설 허가의 요건)
- 제26조의3(수련시설 운영책임자)
- 제26조의4(결격사유)
- 제27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28조(수련시설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29조(시정명령)

제30조(금지행위)

제31조(허가취소 등)

제31조의2(청문)

제32조(수련비용등)

제33조(보험가입)

제34조(수련시설의 승계)

제34조의2(수련시설의 휴지·폐지)

제35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등)

제36조(청소년이용시설)

제37조(민간인의 참여조장)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수련시설 설치, 운영자협회 설립)

제5장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40조(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41조(수련지구 조성계획 등)

제41조의2(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42조(수용 및 사용)

제43조(조성계획에 의한 시설설치 등)

제44조(수련지구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4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청소년복지 등

제46조(청소년복지 증진 등)

제47조(청소년관련 매개물 저작자등에 대한 지원 등)

제48조(청소년유해요인 정비 등)

제49조(청소년의 비행예방 등)

제7장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제50조-제56조 삭제(99. 1. 29)

제57조(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제62조의2(준용규정)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63조(기금의 설치)

제64조(기금의 조성)

제65조(기금의 관리·운동)

제66조(기금의 용도)

제66조의2(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제9장 보칙

제67조-제73조

제10장 벌칙

제74조-제75조

부칙

제1조-제12조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1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청소년육성정책의 주요 영역, 학교문화에 대한 청소년수련활동의 정의 등이 청소년문화 영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대표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들의 문화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는 이를 위하여 수련 활동이라고 하는 교육에 대비되는 인위적 문화 영역을 구성하여 지원

하도록 하며, 청소년정책 또한 중장기적 계획 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를 대표한다. 청소년문화에 대한 청소년 자신들의 권리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기본법에서 바라보고 있는 청소년문화는 독립성, 개별성 등과 같은 부분에 관점의 중심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육성법에서는 청소년문화를 선도하고 보호하며 이끌어 가야 한다고 하는 기성세대의 선입견적 관점이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한다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 토대를 구축해주고자 하는 관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본법은 2003년도 12월의 개정을 통해 중요한 도약을 하게 되는데,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에 대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이 법은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3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6조(가정의 책임)

제7조(사회의 책임)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제9조(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제10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 개최)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5조(계획수립의 협조)

제16조(청소년의 달)

제3장 청소년시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제4장 청소년지도자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제21조(청소년지도사)

제22조(청소년상담사)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24조(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채용)

제25조(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제26조(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제5장 청소년단체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30조(수익사업)

제31조(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치)

제32조(자료의 요청 등)

제33조(공무원 의제)

제34조(정관)

- 제35조(임원)
- 제36조(소장 등)
- 제3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 제38조(보조금 등)
- 제39조(민법의 준용)
-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 제42조(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
- 제43조(임원)
- 제44조(원장)
- 제45조(준용규정)
- 제46조(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등의 설치)

제6장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 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
- 제51조(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 제52조(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

제7장 청소년육성기금

-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 제54조(기금의 조성)
-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제8장 보칙

- 제57조-제63조

제9장 별칙

제64조-제66조

부칙

제1조-제6조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을 보면 개정 전 청소년기본법에 비해 청소년의 참여를 보다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육성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영역으로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복지, 활동 영역을 지칭함으로써 이 영역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하고,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제도를 구성하며 한국 청소년진흥센터를 설립하는 등 그동안 실질적인 정책의 실천에 있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특징에 견주어 볼 때, 이와 같은 개정은 여전히 변화하는 청소년문화의 뒤를 따라갈 뿐 그들의 문화적 토대를 앞서 마련해줄 수 있는 가능성은 미약할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청소년문화 및 문화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지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 청소년문화를 의미하는 청소년육성의 하위 영역이 활동과 복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학교 및 사회 각 영역에서의 청소년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은 매우 빈약한 부분,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지만 청소년 문화환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학교 문화환경의 변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향성 제시는 미약하다는 부분 등을 볼 때, 청소년 문화환경에 대해 가지는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5개년계획과 청소년 문화환경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은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 청소년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본 틀이자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청소년문화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총 3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세 단계의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구체적인 정책적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정책자료집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

제 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가정과 학교의 역할증대

- 가정교육기능회복 :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의 체계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수련활동 프로그램개발·운영, 청소년 사랑방교실 운영,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부모모임 지원
- 학교의 전인교육 및 문제학생지도 : 문화체육부·교육부 업무협조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교외생활지도 강화, 학생1인 1단체 가입권장, 학교특별활동반과 지역예술단체간 자매결연 추진, 학생 수련활동 강화, 본인의사에 반한 퇴학처분 강력억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장학지도 강화

ㄴ. 청소년 보호 및 선도

- 어려운 청소년 지원 강화 : 저소득층 청소년의 종합 지원체제 확립, 무직·미진학 청소년 보호지원, 근로청소년 취미활동 지원,

농어촌 청소년 지원 강화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신고고발체계의 확립,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고용 단속, 유해환경 접촉차단을 위한 예방교육의 실시, 영상매체 및 인쇄매체 정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체제 구축사업
- 비행청소년 예방과 계도 : 취약기간 청소년 선도반 구성·운영, 비행청소년결연사업, 가출청소년 찾아주기 운동, 가출청소년 쉼터확보·운영, 가출청소년 신고센터운영, 가출청소년 선도활동 유공자 포상,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사업, 비행청소년 교정 및 교화프로그램

㉔. 건전한 청소년활동 지원

- 수련거리의 개발 및 활용 : 수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수련활동 시범사업, 문화프로그램의 확충
-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단체 육성 :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청소년단체의 육성
-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 : 자연과 함께하는 종합수련터전 조성,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정비, 문화·체육시설 등에 청소년 수련활동 공간의 발굴·확보, 민간참여의 활성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내실화

㉕. 청소년교류 확대 지원

- 청소년국제교류지원 :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 국제 감각 배양 및 이해제고, 국위선양 및 애국심고취, 국제 청소년행사개최
- 남북청소년 동질성 회복

ㄱ. 국민참여 확산 및 추진체계강화

- 국민참여 확산 : 청소년육성정책 홍보, 청소년자원봉사활동
- 청소년육성 추진체계강화 : 청소년육성위원회, 관련기관의 기능 강화
- 국민참여 확산 방안

(2)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청소년정책의 비전

- 청소년이 「오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내일의 주역으로서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가꾸어 건전하고 책임의식 있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

ㄴ. 청소년정책의 목표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21세기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배양

ㄷ. 중점 추진과제

-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적인 참여 확대 :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청소년의 자생·자율 활동 지원,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청소년 봉사활동 생활화, 청소년의 권리와 시민권 신장
-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중심의 수련활동 체제 구축 : 청소년이 활동주체가 되는 공간 확충과 운영 활성화, 특성화·차

별화된 수련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단체의 자율화·자기특성화 및 열린 운영, 전문화된 청소년지도사의 양성·배치

- 국제화·정보화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 청소년의 창조적 문화감수성 함양, 지역간·국가간 청소년 교류의 내실화, 남북청소년 교류 기반조성, 청소년의 정보능력 향상과 정보문화 육성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 청소년 상담활동의 강화, 소외 및 농촌 청소년을 위한 복지증진, 장애청소년의 자활지원, 청소년의 직업 및 자립능력 향상
-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강화와 참여확산 :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도덕성 회복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 문제 청소년 선도 예방,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

(3)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배경

- 열악한 청소년 인권 상황
- 주5일 근무(수업)제 시대의 도래
- 정보화의 가속화
-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 청소년 실업과 불안한 고용 전망
-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ㄴ. 정책 방향

- 국가 청소년육성정책 총괄 기능 강화
- 문화예술·관광·체육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효과 극

대화

- 청소년과 함께 하는 청소년정책 추진
- 과학적 정책 입안 및 관리 시스템 도입

ㄷ. 추진전략

- 주류화 : 청소년의 권익, 지위 향상, 국가 에너지의 주축
- 지역화 : 지자체 역할 강화
- 차별화 : 정책대상에 따른 정책 세분화
- 파트너십 : 청소년과 기성세대간의 파트너십,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기관·자원간의 파트너십,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파트너십

ㄹ. 주요 정책

- 청소년 권리 신장 및 자발적 참여 기반 구축

정 책 명
1-1. 청소년 정책 참여 기회 확대
1-1-1. 청소년의 정책참여 제도화
1-1-2.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활성화
1-2. 청소년의 시민·자치권 향상
1-2-1. 청소년의 권리신장을 위한 제도 정비
1-2-2. 학교·지역사회에서의 인권보장
1-3. 청소년 자율·봉사활동 강화
1-3-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기반 구축 및 활성화
1-3-2.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확대

- 주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정 책 명
2-1. 청소년활동 시설확충 및 운영 활성화
2-1-1.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특성화
2-1-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2-1-3. 청소년 활동 시설 다양화
2-2. 청소년단체 활성화 및 청소년지도자 양성
2-2-1. 청소년단체의 전문화·특성화
2-2-2. 청소년단체 연계협력 및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지원
2-2-3. 청소년단체 운영 지원 확대
2-2-4.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개선
2-2-5.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과정 지원
2-2-6. 우수 청소년지도사 발굴지원
2-2-7.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2-3. 청소년 활동 지원 및 특성화
2-3-1. 청소년 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2-3-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
2-4.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
2-4-1. 청소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2-4-2. 문화예술교육 강화
2-4-3.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확보
2-4-4. 청소년 문화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2-5. 창조적인 청소년 사이버문화 진흥
2-5-1. 청소년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
2-5-2. 청소년의 정보능력 개발
2-5-3. 청소년기관 정보화 및 지도자 정보화 지원
2-6.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2-6-1. 청소년 국제교류 기반 구축
2-6-2.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2-6-3.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의 단계적 추진
2-6-4. 교포청소년 및 지역청소년 교류 활성화

-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 강화

정 책 명
3-1. 청소년 사회진출 연계서비스 추진
3-1-1. 청소년 취업·창업 지원
3-1-2. 청소년 직업·진로교육 확대
3-1-3. 소외계층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 지원
3-2. 소외계층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3-2-1.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학습 공간 제공
3-2-2. 농어촌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
3-2-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 확대
3-3. 학교밖 청소년 지원 확대
3-3-1. 지역단위 학교밖 청소년 종합지원체제 구축
3-3-2. 학교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3-3-3. 학교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확대
3-4. 학교 부적응 청소년 지원체제 구축
3-4-1.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부적응 예방
3-4-2. 학교 부적응 청소년 지도 내실화

- 청소년 건강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정 책 명
4-1. 청소년 안전과 건강 증진
4-1-1. 청소년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체제 구축
4-1-2.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체제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4-2. 청소년 선도·보호 인프라 확충
4-2-1. 청소년 보호기반 확충
4-2-2. 청소년 가출 예방·선도 및 보호
4-3.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4-3-1. 청소년유해환경 정비
4-3-2. 사이버공간의 청소년 유해요소 근절
4-4. 청소년 약물 오·남용 및 성비행 대책 추진
4-4-1.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료·재활
4-4-2. 청소년 성보호 및 성비행 예방
4-5. 청소년 폭력 및 학대 예방
4-5-1. 청소년폭력 예방 및 선도
4-5-2. 청소년 학대 예방 및 보호 내실화

- 추진체제 정비 및 범국민적 참여 확산

정 책 명
5-1. 청소년 관계 법령 및 조직 정비
5-1-1. 청소년 관련 법령 정비
5-1-2. 중앙정부 청소년행정 조직 개편 및 강화
5-1-3. 지방 청소년행정조직의 강화

5-2. 청소년 원 스톱 지원체제 구축
5-2-1. 지역별 청소년지원 기능 통합 운영
5-2-2. 청소년 상담체제 정비
5-3. 청소년육성 재원의 획기적 확충
5-3-1. 청소년육성 재원의 확충
5-3-2. 청소년육성기금 운용방법 및 사업구조의 개선
5-4. 범국민적 참여 확산
5-4-1. 청소년 대통령특별회의 개최
5-4-2. 청소년사업 공모제 시행
5-4-3. 청소년육성 범국민운동 전개

(4) 변화경향 및 문제점

결론적으로 상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문화를 바라보는 청소년 정책의 관점들은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기본법에서 변화되어 온바와 동일하게 소극적이고 협의적 특징으로부터 적극적이고 광의의 청소년 문화개념으로 점차 그 폭을 넓혀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건전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교류 확대 지원 등이 청소년문화와 관계된 대표적인 정책들이었으며 청소년문화라고 하는 개념의 직접적 사용 또한 부재하였다. 이는 당시의 청소년정책이 청소년문화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지 못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문화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인터넷 사용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문화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사회문화의 주도적 위치로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해가게 된 측면에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인정하듯 1998년부터 시작된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서는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청소년의 자생·자율 활동 지원,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청소년 봉사활동 생활화,

청소년의 권리와 시민권 신장 등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구성되었으며, 더불어 청소년이 활동주체가 되는 공간 확충과 운영의 활성화, 특성화·차별화된 수련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 및 체육 중심의 수련활동 체계 구축 정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화·정보화시대의 주도능력 배양을 위해 청소년의 창조적 문화감수성 함양, 지역간·국가간 청소년 교류의 내실화, 청소년의 정보능력 향상과 정보문화 육성 등의 정책도 제안되었는데, 이처럼 전반적으로 청소년문화 개념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보편적인 사용이 두드러지게 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청소년의 문화적 주체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기가 아직까지도 청소년문화가 어떠한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구체적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확인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시기라는 점이다. 근본적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문화에 대한 막연한 인식과 그로부터 도출되어 나온 막연한 정책들이 특징을 이루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은 청소년의 참여, 소통, 체험이라고 하는 이념 하에 청소년정책의 주류화, 지역화, 차별화, 파트너십 구축 등의 전략을 채용함으로써 과거 정책들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담아내게 되었다.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있어서는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 비해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방향성의 차원에서는 변화되고 있는 청소년문화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문화와 직접 관계된 대표적 정책들로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교육 강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확보, 청소년 문화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담고 있는 청소년문화예술 활성화 부분, 청소년

종합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청소년의 정보능력 개발 등으로 대표되는 창조적인 청소년 사이버문화 진흥 부분, 이밖에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의미부여에도 불구하고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역시 청소년 문화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정밀한 분석 및 이해 없이 막연한 접근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데, 청소년문화를 직접 지칭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제2장 주5일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에 있어 청소년문화의 토대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정책보다는 문화예술교육 강화 및 사이버문화 진흥 등과 같은 외형적인 부분에 정책의 전체가 할애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시기동안 한국의 청소년문화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따라서 정책 또한 이러한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을 제쳐둔 유행에 따른 듯한 외형적 변화는 그 의미를 반감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앞서 살펴보았던 청소년기본법 개정과 연계되는데, 즉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내용이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문화를 청소년복지와 청소년활동의 기초 하에 청소년의 참여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지만,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의 이러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2004년부터 문화관광부는 전국8개 주요 도시를 선정하여 각각 4억씩 투입, 총 32억을 소요하여 30여개 권역에 청소년 문화존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전의 치밀한 조사와 정지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위주만으로 청소년 문화존을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일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비교해볼 때 권역별 지역기반의 사업이라는 점을 제외하

고는 커다란 차이점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문화 또는 문화환경 정책들이 청소년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환경 개선과 근본적으로 긴밀한 연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Ⅲ. 청소년 문화환경 분석

1. 조사방법 및 분포
2. 청소년 문화환경 의식조사
3. 청소년 문화환경 지역조사
4. 청소년 문화환경의 문제점

III. 청소년 문화환경 분석

1. 조사방법 및 분포

1)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화환경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방법과 현지조사방법을 연계한 다차원적 분석방법(méthode de multi-référentielle)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화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 경향성을 알아보았으며, 현지조사방법은 선정된 도시의 청소년밀집지역이 지니고 있는 문화환경 실태를 파악해 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다차원적 분석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이들 두 조사결과를 상호 연계해 봄으로써 청소년들의 의식과 현지의 청소년 문화환경 간에 어떠한 일치 또는 불일치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향후 이루어져야 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환경 정책의 구성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설문조사는 2004년 6월 1일~11일에 걸쳐 전국 도시들 중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일부 도시를 선정하여 해당 도시에서 가장 학생수가 많은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들을 무작위로 표집하여 남녀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도시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시, 춘천시가 선정되었는데, 서울과 각 도별 대표적인 광역시 한 곳을 우선 선정하였고, 광역시가 없는 제주는 학생인구를 감안하여 규모가 월등히 큰 제주시를 선정하였으며, 강원도의 경우에는 인구규모, 도시 특징 등에 있어 보다 세심한 차이 비교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지역 사전조사(2004년

5월)를 통해 청소년 밀집지역이 가장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춘천시를 선정하게 되었다.

각 지역별 조사대상 학생 수는 서울 240명(4개교), 기타 7개 도시가 각각 120명(2개교) 등 총 1,080명(18개교)이 남녀 동수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성별, 연령 등의 독립변수, 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경험 및 주관적 판단, 청소년문화지역에 대한 경험 및 주관적 판단, 가족 문화환경에 대한 의식, 학교 문화환경에 대한 의식, 주거지역 문화환경에 대한 의식 등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된 총 8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학교별로 우편 택배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급별로 설문지응답이 이루어진 후 동봉된 반송용 봉투를 통하여 수거되었다. 배포된 총 1,080개의 설문지 중 1,073부가 회수되었으며, 결과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편, 총 8개 도시에 대한 현지 지역조사는 연구자들에 의해 2004년 6월~8월 두 달 동안 직접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미리 준비된 지역조사지를 중심으로 조사 첫날에는 사전조사, 2~3일째는 조사지 기입, 4일째는 기입된 내용 확인 및 정정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각 도시별 조사지역은 설문조사를 통해 추출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특정 지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도시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으로 구분하여 총 2곳을 선정하였다. 현지 지역조사를 위해 선정된 조사지역은 다음과 같다.

- 서울 : 코엑스몰, 노원역
- 인천 : 주안역
- 대전 : 은행동(으능정거리)
- 대구 : 중앙로(동성로)
- 광주 : 충장로
- 부산 : 서면

- 제주 : 중앙로(칠성통)
- 춘천 : 명동

지역조사를 위한 척도 구성은 앞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에서 이루어진 문화환경 구성요소인 공공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창의성, 체계성, 구성원(청소년)참여, 자연적 조건, 역사적 조건 중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지속가능성(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지역에 대한 청소년 문화환경 정책이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는가의 문제이고 따라서 현지조사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임)과 자연적 조건(조사 대상지역이 도시이기 때문임), 그리고 청소년 참여(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등은 제외하고 나머지 5가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각 요소별 조사 지표는 다음과 같다.

- 공공성
 - : 청소년 전용시설 수
 - : 청소년 출입가능시설 수
 - : 청소년 출입 금지 시설 수
- 다양성
 - : 청소년 시설의 종류
- 체계성
 - : 동종 업종간의 집중도
 - : 청소년 공간 또는 시설의 독자성
 - : 거리 이름 유무
 - : 거리 위치
- 역사적 조건
 - : 지역 내 존재해 있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존재 및 분포 정도
- 창의성
 - : 표지판, 간판, 길거리 청결 정도 등의 유형, 색상, 분포 정도

2) 분포

본 조사 대상자의 분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표본의 특성-거주도시, 성별, 연령

구 분		빈도	백분율(%)
거주도시 (N=1072)	광주	120	11.2
	대구	119	11.1
	대전	119	11.1
	부산	120	11.2
	서울	236	22.0
	인천	120	11.2
	제주	120	11.2
	춘천	118	11.0
성별 (N=1066)	남자	529	49.6
	여자	537	50.4
연령 (N=1066)	16세	136	12.8
	17세	395	37.1
	18세	527	49.4
	19세	8	.8

<표 III-1>은 거주도시, 성별, 연령에 따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거주도시와 성별 분포에 있어서는 앞서 조사방법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령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나이인 18세(49.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세(37.1%)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아마도 만 나이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I-2> 표본의 특성-부모의 학력

구 분		빈도	백분율(%)
아버지 학력 (N=1066)	초등학교 졸업	19	1.8
	중학교 졸업	72	6.8
	고등학교 졸업	459	43.1
	대학교 졸업	383	35.9
	대학원 졸업 이상	133	12.5
어머니 학력 (N=1067)	초등학교 졸업	24	2.2
	중학교 졸업	94	8.8
	고등학교 졸업	664	62.2
	대학교 졸업	256	24.0
	대학원 졸업 이상	29	2.7

부모의 학력은 응답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사용하고자 이용되었는데, 상기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모두 동일하게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III-3> 표본의 특성-부모의 직업

구 분		빈도	백분율(%)
아버지 직업 (N=1017)	무직, 전업주부	13	1.3
	단순노무 종사자	22	2.2
	장치, 기계 및 조립종사자	85	8.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0	7.9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38	3.7
	판매 종사자	134	13.2
	서비스 종사자	67	6.6
	사무 종사자	277	27.2
	기술공 및 준전문가	51	5.0
	전문가	136	13.4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14	11.2
	어머니 직업 (N=1034)	무직, 전업주부	577
단순노무 종사자		36	3.5
장치, 기계 및 조립종사자		5	.5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	.8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25	2.4
판매 종사자		116	11.2
서비스 종사자		95	9.2
사무 종사자		80	7.7
기술공 및 준전문가		17	1.6
전문가		70	6.8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5	.5

한편 부모의 직업에 있어서는 아버지 직업과 어머니 직업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경우에는 사무 종사자(27.2%), 전문가(13.4%), 판매종사자(13.2%) 순으로 분포가 이루어진 반면, 어머니의 경우에는 무직(전업주부)이 55.8%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4> 표본의 특성-경제적 지위

구 분		빈도	백분율(%)
월평균 가정수입 (N=1008)	100만원 미만	50	5.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29	22.7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24	32.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04	20.2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13	11.2
	500만원 이상	88	8.7
한달용돈 (N=1068)	3만원 미만	377	35.3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405	37.9
	5만원 이상-7만원 미만	155	14.5
	7만원 이상-10만원 미만	68	6.4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	46	4.3
	15만원 이상	17	1.6

청소년들의 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월평균 가구수입과 청소년들의 한달 용돈으로 알아보았다. 월평균 가구수입에 있어서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32.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2.7%,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20.2%를 차지하고 있었고, 한달 용돈의 경우에도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37.9%로 가장 많았으며, ‘3만원 미만’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35.3%로 그 다음을 차지했고, ‘15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1.6%로 가장 낮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I-5> 표본의 특성-여가시간

구 분		빈도	백분율(%)
평일 여가시간 (N=1069)	1시간 미만	289	27.0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449	42.0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77	16.6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80	7.5
	4시간 이상	74	6.9
주말 여가시간 (N=1069)	2시간 미만	53	5.0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210	19.6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294	27.5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196	18.3
	8시간 이상	316	29.6

여가 시간의 정도에 따라 청소년 문화지역에 대한 접근성에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여가시간에 대한 질문을 여타 의식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의 성격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평일 여가시간으로는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사이가 42.0%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시간 미만이 27.0%,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사이가 16.6%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주말 여가시간에 있어서는 8시간 이상이 29.6%로 가장 많았으며,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사이가 27.5%로 다음을 차지했고, 가장 낮은 빈도는 2시간 미만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III-6> 표본의 특성-주거 형태 및 주거 지역

구 분		빈도	백분율(%)
주거 형태 (N=1069)	단독주택	209	19.6
	연립 또는 다세대주택	221	20.7
	아파트	617	57.7
	기타	22	2.1
주거 지역 (N=1069)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가	961	89.9
	상업지역	51	4.8
	공장지역	12	1.1
	기타	45	4.2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 형태로는 단연 아파트가 57.7%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연립 또는 다세대주택이 20.7%, 단독주택이 19.6%로 뒤를 잇고 있었다.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가가 89.9%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지역은 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7> 표본의 특성-학급 성적 및 종교

구 분		빈도	백분율(%)
학급 성적 (N=1032)	1등-10등	334	32.4
	11등-20등	324	31.4
	21등-30등	250	24.2
	31등-40등	111	10.8
	41등-50등	13	1.3
종교 (N=1055)	기독교	275	26.1
	천주교	129	12.2
	불교	234	22.2
	이슬람교	8	.8
	기타	409	38.8

학급 성적에 있어서는 31등 이후가 현저히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한 반의 인원이 평균 30명대 중간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적절한 분포라고 할 수 있다. 1등에서 30등까지 비교적 적정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청소년들의 응답이 신뢰적인 수준일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종교의 경우에는 기독교가 26.1%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가 22.2%, 천주교가 12.2%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타가 3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타 종교라기보다는 종교가 없는 경우(무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소비 및 문화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가장 자주 가는 지역’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본 항목은 오픈문항으로 이루어져 청소년들이 직접 구체적인 지역 명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각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간다고 응답한 지역 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8> 자주 가는 지역 : 서울(강남)

구 분		빈도	백분율(%)
서울(강남)의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지역 (N=119)	코엑스몰	36	30.3
	신천, 잠실	14	11.8
	동대문	5	4.2
	압구정	2	1.7
	강남역	1	.8
	명동	2	1.7
	강변역(테크노마트)	1	.8
	천호동(천호역)	27	22.7
	일원동	1	.8
	대치동	3	2.5
	둔촌동	2	1.7
	풍납동	1	.8
	부천	1	.8
	기타	23	19.3

서울 강남의 경우 응답 청소년들의 30.3%가 소비 및 문화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코엑스몰에 가장 자주 간다고 대답했으며, 다음으로는 22.7%가 응답한 천호동(천호역)이었다.

<표 III-9> 자주 가는 지역 : 서울(강북)

구 분		빈도	백분율(%)
서울(강북)의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지역 (N=116)	코엑스몰	1	.9
	동대문	5	4.3
	압구정	1	.9
	명동	10	8.6
	역촌동	1	.39
	노원역	24	20.7
	중계동	9	7.8
	근린공원	2	1.7
	충무로	1	.9
	산업대근처	2	1.7
	일산(정발산역)	2	1.7
	연신내	17	14.7
	이대, 신촌	8	6.9
	상암동	6	5.2
	대학로	1	.9
	갈현동	1	.9
기타	25	21.6	

서울 강북 지역의 청소년들의 경우 소비 및 문화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노원역 주변(20.7%)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연신내 지역(14.7%)이었다. 명동, 동대문, 신촌, 대학로 등은 의외로 매우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표 III-10> 자주 가는 지역 : 인천

구 분		빈도	백분율(%)
인천의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지역 (N=116)	주안역	33	28.4
	부평(역)	11	9.5
	문화예술회관 주변	32	27.6
	동인천역 주변	14	12.1
	용산	1	.9
	제물포	3	2.6
	중앙공원	1	.9
	이대역	1	.9
	인하대 후문	6	5.2
	신촌	3	2.6
	용현동	1	.9
	동춘동	1	.9
	기타	9	7.8

인천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소비 및 문화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자주 가는 지역에 대한 응답으로 서울 및 부산과 유사하게 두 곳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주안역이 28.4%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예술회관 주변이 27.6%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두 곳의 빈도는 각각 33명과 32명으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세 번째 지역은 12.1%가 응답한 동인천역 주변이었다.

<표 III-11> 자주 가는 지역 : 대전

구 분		빈도	백분율(%)
대전의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지역 (N=112)	은행동(으능정이 거리)	68	60.7
	서대전역	9	8.0
	신탄진	1	.9
	용운동 대학로	2	1.8
	우송대	1	.9
	삼천동	1	.9
	문정초거리	1	.9
	보건대학교 대학로	1	.9
	대흥동	1	.9
	법원 앞	1	.9
	태평시장	1	.9
	엑스포 아트홀	1	.9
	중구문화원	1	.9
	세이브존 주변	1	.9
	롯데백화점	1	.9
기타	21	18.8	

대전지역의 경우 청소년들이 소비 및 문화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자주 가는 지역에 대한 대답으로 60.7%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동의 으능정이 거리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등 한 곳으로의 집중 현상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12> 자주 가는 지역 : 대구

구 분		빈도	백분율(%)
대구의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지역 (N=119)	중앙로(동성로)	65	54.6
	상인사거리	9	7.6
	월성동	2	1.7
	대곡지구 상가	2	1.7
	MMCC 만경관	1	.8
	두류공원	7	5.9
	계명문화대학	9	7.6
	진천동	2	1.7
	성서이마트 주변	1	.8
	기타	21	17.6

대구의 경우에는 중앙로(동성로)가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곳을 제외한 다른 곳은 매우 저조한 빈도를 보이고 있는 등 대전과 마찬가지로 한 곳으로의 집중이 강하게 나타났다.

<표 III-13> 자주 가는 지역 : 광주

구 분		빈도	백분율(%)
광주의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지역 (N=119)	충장로	46	38.7
	전남대	28	23.5
	용봉동	2	1.7
	금남로	3	2.5
	문흥동	3	2.5
	근린공원	3	2.5
	문화예술회관	1	.8
	일곡동	6	5.0
	두암동	1	.8
	매곡동	1	.8
	이마트주변	2	1.7
	기타	23	19.3

광주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소비 및 문화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자주 가는 지역에 대한 응답결과 총장로가 3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23.5%를 나타낸 전남대였다.

<표 III-14> 자주 가는 지역 : 부산

구 분		빈도	백분율(%)
부산의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지역 (N=115)	서면	49	42.6
	부산대 앞	31	27.0
	동래시장	2	1.7
	시청	1	.9
	남포동	2	1.7
	토곡시민공원	1	.9
	덕천동	1	.9
	사직동	4	3.4
	만덕사거리	1	.9
	해운대	2	1.7
	기타	21	18.3

부산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소비 및 문화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자주 가는 지역에 대한 응답으로 서울에서와 유사하게 두 곳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가장 높은 빈도는 42.6%를 보인 서면이었고, 그 다음으로 27.0%의 부산대 앞이 응답되고 있었다.

<표 III-15> 자주 가는 지역 : 제주

구 분		빈도	백분율(%)
제주의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지역 (N=111)	중앙로(칠성통)	41	36.9
	시청거리	32	28.9
	한라대 주변	3	2.7
	탐동	5	4.5
	제주 서중지역	1	.9
	인제 사가로	1	.9
	연동지구	1	.9
	기타	27	24.3

제주도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소비 및 문화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자주 가는 지역으로 두 곳이 비교적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높은 빈도는 36.9%를 나타낸 중앙로(칠성통)이었고, 다음이 28.9%인 시청거리였다.

<표 III-16> 자주 가는 지역 : 춘천

구 분		빈도	백분율(%)
춘천의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지역 (N=120)	명동(시내, 지하상가)	91	75.9
	강원대	6	5.0
	공지천	3	2.5
	봉의산	1	.8
	서울대학로	1	.8
	기타	18	15.0

춘천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소비 및 문화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자주 가는 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명동이 75.9%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2. 청소년 문화환경 의식조사

1) 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의식조사

다음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결과표에는 편의상 시설에 대한 범주 구분을 하였으나, 학생들에게 배포한 설문지에는 아래와 같은 범주의 구분 없이 제시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III-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들은 PC방, 노래방, 극장, 공공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길거리농구대 등을 청소년 문화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공연시설, 청소년수련관, 인라인스케이트장, 팬시점 등에도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호프집,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전화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청소년들만이 응답하는 등 청소년 문화시설의 범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이었다. 즉, 대부분의 청소년들(94.2%)은 청소년들의 이용이 가능한 문화시설들과 출입이 금지된 시설(성인 전용시설)들에 대한 인식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III-17> 학생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문화시설(다중응답)

구 분		빈도	백분율(%)
예능·오락시설	전자오락실	604	4.6
	PC 방	772	5.9
	노래방	832	6.4
	당구장	289	2.2
	만화방	618	4.8
	공연시설	677	5.2
	극장시설	780	6.0
	콜라텍	362	2.8
편의·휴게시설	백화점	386	3.0
	커피숍	286	2.2
	옷가게	607	4.7
	대형할인매장	420	3.2
	팬시점	667	5.1
공공문화시설	미술관	538	4.1
	박물관	553	4.3
	공공도서관	781	6.0
	인라인스케이트장	745	5.7
	길거리농구대	781	6.0
청소년 전용시설	청소년수련관	742	5.7
	청소년문화의집	795	6.1
청소년 출입금지시설	유흥주점	49	.4
	전화방	57	.4
	비디오방	201	1.5
	포장마차	88	.7
	나이트클럽	53	.4
	호프집	92	.7
	락카페	222	1.7
전	체	12997	100.0

다음은 ‘문화환경이 가장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 부분은 거주도시와 성별에 따른 상대적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8> 문화환경이 가장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되는 지역

	빈도	백분율(%)
광주	36	3.5
대구	33	3.2
대전	34	3.3
부산	48	4.7
서울	800	77.5
인천	25	2.4
제주	30	2.9
춘천	26	2.5
전체	1032	100.0

과반수의 청소년들(77.5%)이 가장 좋은 문화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라고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볼 때 절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여타 도시의 경우 5.0%를 상회하는 경우가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문화환경 발전의 지역적 불균형 현상이 청소년들의 의식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표 III-19> 문화환경이 가장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한 차이 검증: 거주도시별

(단위:%, N=1031)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광주	16.8	.9	1.7	.9	3.5	.8	1.8	1.7	3.5
대구	.9	16.4	1.7	2.6	.9	.8	1.8	2.6	3.2
대전	.9		16.5	.9	1.8	5.1	2.7		3.3
부산	2.7	1.7	2.6	14.9	3.1	4.2	4.4	5.2	4.7
서울	75.2	78.4	76.5	76.3	85.0	75.4	70.8	74.8	77.5
인천	1.8	.9	.9	.9	1.8	10.2	1.8	1.7	2.4
제주	.9	.9		.9	2.6	3.4	15.0		2.9
춘천	.9	.9		2.6	1.3		1.8	13.9	2.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420.766$, $df=49$, $p<.001$

이를 거주도시별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각각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광주 청소년들은 광주(16.8%), 대구 청소년들은 대구(16.4%), 대전 청소년들은 대전(16.5%), 부산 청소년들은 부산(14.9%), 서울 청소년들은 서울(85.0%), 인천 청소년들은 인천(10.2%), 제주 청소년들은 제주(15.0%), 춘천 청소년들은 춘천(13.9%)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여전히 서울에 대한 평가가 절대적으로 높지만, 각각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높은 평가는 청소년들이 각 거주도시에 대해 지니고 있는 애향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20> 문화환경이 가장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한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26)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광주	3.5	3.5	3.5
대구	2.7	3.7	3.2
대전	4.2	2.4	3.3
부산	4.2	5.1	4.7
서울	75.3	79.9	77.6
인천	2.1	2.6	2.3
제주	3.9	2.0	2.9
춘천	4.1	.8	2.4
전체	100.0	100.0	100.0

$\chi^2=19.318, df=7, p<.01$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성별에 따라 전반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울의 문화환경에 대한 의견의 경우 여자 청소년(79.9%)들이 남자 청소년(75.3%)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다음은 ‘청소년 밀집지역에 자주 가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자주 가는 이유에 대한 빈도분포를 알아보고, 그 결과치와 여타 독립변수와의 교차분석 결과 중 유의미한 항목들만 추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21> 청소년 밀집지역에 자주 가는 이유(다중응답)

	빈도	백분율(%)
집이 가까워서	186	16.4
친구들도 다 그곳에 가니까	142	12.5
갈 곳과 볼거리가 많아서	514	45.3
시설이 잘 되어있어서	65	5.7
교통이 편리해서	48	4.2
분위기가 좋아서	51	4.5
기타	128	11.3
전체	1134	100.0

<표 III-2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밀집지역에 자주 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갈 곳과 볼거리가 많아서’라는 응답 항목으로 45.3%의 빈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집이 가까워서’가 16.4%, ‘친구들도 다 그곳에 가니까’가 12.5%를 차지했다. 반면, 편리한 교통과 분위기, 시설 등의 변수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거주도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표 III-22>에서 볼 수 있듯이 상기 세 가지 중요 이유들 중 서울 청소년들은 타 지역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이 가까워서’라고 하는 이유가 높게(23.8%) 나타났으며, 반면 춘천 청소년들에게서는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낮게(7.5%) 나타났다. 한편 제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갈 곳과 볼거리가 많아서’라는 이유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52.5%) 나타났다. 전반적인 빈도는 낮지만 ‘시설이 좋아서’와 ‘분위기가 좋아서’라는 이유에 있어서는 춘천이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교통이 편리해서’에서는 부산 청소년들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응답했다.

<표 III-22> 청소년 밀집지역에 자주 가는 이유에 대한 차이 검증 : 거주 도시별(다중응답)

(단위:%, N=1133)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집이 가까워서	16.0	14.2	16.3	15.3	23.8	14.9	14.8	7.5	16.4
다른 친구들도 다 그곳에 가니까	10.4	12.5	13.0	12.9	14.3	10.4	10.7	14.2	12.5
갈 곳과 불거리가 많아서	48.8	46.7	46.3	46.0	39.2	46.3	52.5	44.2	45.4
시설이 좋아서	2.4	4.2	4.9	4.8	6.8	7.5	4.1	10.0	5.7
교통이 편리해서	2.4	1.7	4.1	8.1	3.4	7.5	4.1	2.5	4.1
분위기가 좋아서	4.8	6.7	1.6	4.8	3.8	2.2	2.5	10.8	4.5
기타	15.2	14.2	13.8	8.1	8.7	11.2	11.5	10.8	11.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65.761$, $df=42$, $p<.05$

한편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표 III-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주로 ‘갈 곳과 불거리가 많아서(56.7%)’라는 이유에 응답했으며, 반면 남자 청소년들은 ‘집이 가까워서(20.2%)’와 ‘다른 친구들도 다 그곳에 가니까(15.3%)’라는 이유에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3> 청소년 밀집지역에 자주 가는 이유에 대한 차이 검증 : 성별
(다중응답)

(단위:%, N=1124)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집이 가까워서	20.2	12.7	16.5
다른 친구들도 다 그곳에 가니까	15.3	10.0	12.6
갈 곳과 볼거리가 많아서	34.3	56.7	45.5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8.2	3.2	5.7
교통이 편리해서	3.0	5.3	4.2
분위기가 좋아서	5.2	3.7	4.4
기타	13.9	8.4	11.1
전체	100.0	100.0	100.0

$\chi^2=71.720$, $df=6$, $p<.001$

다음은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주로 하는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들 중 유의미한 결과는 거주 도시와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다.

<표 III-24>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하는 구체적인 활동 (다중응답)

	빈도	백분율(%)
쇼핑하기	394	24.7
PC방 이용하기	175	11.0
친구와 이야기하기	188	11.8
먹고 마시기	256	16.1
전자오락실게임하기	55	3.5
공연관람	37	2.3
종교 활동	13	.8
스포츠활동	73	4.6
영화보기	292	18.3
기타	110	6.9
전체	1593	100.0

청소년밀집지역에서 하는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쇼핑이 24.7%로 가장 많았으며, 영화보기가 18.3%, 먹고 마시기가 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이야기하기(11.8%)와 PC방 이용하기(11.0%)도 10%가 넘는 빈도를 보였다.

<표 III-25>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하는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다중응답)

(단위:%, N=1592)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쇼핑하기	25.3	26.2	24.7	25.1	24.2	24.1	19.6	30.7	24.7
PC방 이용하기	15.8	9.1	9.3	8.6	11.9	6.7	12.0	14.0	11.0
친구와 이야기하기	10.5	8.5	14.2	11.8	13.1	13.3	12.0	9.3	11.8
먹고 마시기	13.2	9.1	18.5	17.1	14.2	18.5	20.7	19.3	16.1
전자오락실 게임하기	4.7	8.5	1.9	3.2	3.1	2.6	2.2	2.0	3.5
공연관람	1.6	3.0	3.7	1.6	3.6	1.0	2.2		2.3
종교 활동		2.4	1.9		.6	1.0	1.1		.8
스포츠활동	4.2	6.1	4.3	4.3	4.7	6.2	4.3	2.0	4.6
영화보기	13.7	22.6	13.6	24.6	16.7	20.5	19.6	16.7	18.3
기타	11.1	4.3	8.0	3.7	8.1	6.2	6.5	6.0	6.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6.334$, $df=63$, $p<.01$

거주도시와 교차분석을 한 경우 <표 III-25>에 나타나 있듯이 부산과 제주에 있어서는 각각 25.1%-24.6%, 19.6%-19.6%로 쇼핑하기와 영화보기가 대등한 비율로 나타났다. 춘천(30.7%)의 경우에는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었고, 제주(19.6%) 청소년들은 반면 가장 적게 쇼핑을 하는 청소년들이었다. 영화보기에 있어서는 부산(24.6%)이 가장 높았으며, 대전(13.6%) 청소년들이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먹고 마시기에 있어서는 제주(20.7%) 청소년들이 가장 높았던 반면 대구(9.1%)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26>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하는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차이 검증 :
성별(다중응답)

(단위:%, N=1582)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쇼핑하기	16.1	33.5	24.8
PC방 이용하기	19.7	2.3	11.0
친구와 이야기하기	7.5	16.2	11.8
먹고 마시기	11.4	20.9	16.1
전자오락실 게임하기	5.9	.9	3.4
공연관람	2.4	2.3	2.3
종교 활동	.8	.8	.8
스포츠 활동	8.2	.8	4.5
영화보기	19.3	17.4	18.4
기타	8.7	5.1	6.9
전체	100.0	100.0	100.0

$\chi^2=292.722$, $df=9$, $p<.001$

한편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주로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쇼핑하기(33.5%), 먹고 마시기(20.9%), 친구와 이야기하기(16.2%) 등의 항목이 높게 나타났고, 남자 청소년들에게서는 PC방 이용하기(19.7%), 영화보기(19.3%), 전자오락실 게임하기(5.9%) 등에서 높은 빈도가 나타났다.

다음은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교차분석에서는 거주도시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통계치가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다.

<표 III-27>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만족도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다	141	13.2
그렇다	471	44.1
보통이다	383	35.8
그렇지 않다	59	5.5
전혀 그렇지 않다	15	1.4
전체	1069	100.0

청소년밀집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해 57.3%로 나타나 있는 등 긍정적인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과반수의 청소년들(57.3%)은 자신들이 자주 가는 지역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8>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만족도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1068)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매우 만족	15.0	16.1	13.4	10.8	10.6	19.2	15.1	7.7	13.2
만족	45.8	44.9	47.9	48.3	51.5	38.3	37.8	29.9	44.0
보통이다	28.3	36.4	33.6	36.7	34.0	34.2	39.5	46.2	35.9
불만족	6.7	1.7	3.4	4.2	3.0	7.5	6.7	13.7	5.5
매우 불만족	4.2	.8	1.7		.9	.8	.8	2.6	1.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60.029$, $df=28$, $p<.001$

만족도(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친 값)를 거주도시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62.1%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측면에 응답함으로써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춘천이 37.6%로 가장 낮았다. 불만족(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친 값)에 있어서도 춘천이 16.3%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가 2.5%로 가장 낮았다.

<표 III-29>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만족도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62)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매우 그렇다	15.6	10.6	13.1
그렇다	45.6	42.7	44.2
보통이다	31.0	40.5	35.8
그렇지 않다	5.5	5.6	5.6
전혀 그렇지 않다	2.3	.6	1.4
전체	100.0	100.0	100.0

$\chi^2=17.752, df=4, p<.001$

성별에 따른 활동 만족도를 보면 <표 III-29>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의 경우(61.2%)가 여자 청소년(53.3%)에 비해 더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 항목은 성별에 대해서만 교차분석의 유의미성이 검증되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30>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불만족 이유

	빈도	백분율(%)
시설·환경이 열악해서	29	40.3
학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9	12.5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16	22.2
부모님이나 학교의 통제가 심해서	5	6.9
기타	13	18.1
전체	72	100.0

청소년밀집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 가장 커다란 이유로는 청소년 밀집 지역의 시설과 환경이 열악해서라는 응답(40.3%)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경제적 부담(22.2%), 학업에 대한 부담(12.5%) 등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표 III-31>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불만족 이유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72)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시설·환경이 열악해서	23.1	60.6	40.3
학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17.9	6.1	12.5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23.1	21.2	22.2
부모님이나 학교의 통제가 심해서	10.3	3.0	6.9
기타	25.6	9.1	18.1
전체	100.0	100.0	100.0

$\chi^2=12.355, df=4, p<.05$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을 보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에 비해 시설과 환경의 열악하다는 것을 주요 불만족 이유로 표시하고

있는 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업에 대한 부담과 부모님이나 학교의 통제가 심해서라는 항목에서 여자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응답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청소년 밀집지역에 주로 함께 가는 사람’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교차분석은 거주도시와 성별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다.

<표 III-32> 청소년 밀집지역에 함께 가는 사람

	빈도	백분율(%)
혼자서	60	5.6
이성친구와 함께	80	7.5
동성친구와 함께	860	80.4
가족과 함께	41	3.8
선배 또는 후배와 함께	11	1.0
기타	17	1.6
전체	1069	100.0

<표 III-32>를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밀집지역에 주로 동성친구와 같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0.4%가 여기에 응답했는데, 이성친구와 같이 간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즉,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여가시간에 가족이나 이성친구보다는 주로 동성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33> 청소년 밀집지역에 함께 가는 사람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1068)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혼자서	7.6	6.7	10.1	3.3	4.3	4.2	4.2	6.0	5.6
이성 친구	5.9	4.2	6.7	7.5	8.5	7.5	9.2	9.5	7.5
동성 친구	79.8	81.5	71.4	85.0	83.4	85.0	78.3	75.9	80.4
가족	5.0	4.2	5.9	3.3	1.7	3.3	4.2	5.2	3.8
선배·후배		1.7	3.4		.4		3.3		1.0
기타	1.7	1.7	2.5	.8	1.7		.8	3.4	1.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59.187, df=28, p<.01$

거주도시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전(10.1%)의 경우 여타 지역 청소년들에 비해 혼자 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반면 부산(3.3%) 청소년들은 혼자 가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동성친구와 같이 가는 경우에는 부산과 인천 청소년들에게서 각각 8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비율이 가장 낮은 경우는 대전(71.4%)이었다. 이성친구와 가는 경우 춘천이 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4.2%였다. 가족과 가는 경우에는 대전이 5.9%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1.7%로 가장 낮았다.

<표 III-34> 청소년 밀집지역에 함께 가는 사람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62)

	성별		전체
	남자	여자	
혼자서	8.9	2.2	5.6
이성 친구	9.5	5.6	7.5
동성 친구	76.2	84.7	80.5
가족	2.5	5.0	3.8
선배·후배	1.3	.7	1.0
기타	1.5	1.7	1.6
전체	100.0	100.0	100.0

$\chi^2=34.734$, $df=5$, $p<.001$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동성친구(84.7%), 가족(5.0%) 등과 가는 경우가 높게 나타난 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혼자(8.9%), 이성친구(9.5%), 선배 또는 후배(1.3%) 등과 같이 가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청소년 밀집지역에 가는 빈도’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유의미한 교차분석은 거주도시에 따른 활동 빈도에서만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표 III-35> 청소년 밀집지역에 가는 빈도

	빈도	백분율(%)
주 1-2회	931	88.2
주 3-4회	87	8.2
주 5-6회	12	1.1
주 7회 이상	20	1.9
한달에 한두번 이하	5	.5
전체	1055	100.0

청소년밀집지역에 가는 빈도는 주 1-2회가 가장 많았는데, 88.2%를 차지했다. 주 3-4회의 경우가 8.2%로 다음을 차지했고 나머지 항목들은 미미한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표 III-36> 청소년 밀집지역에 가는 빈도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1054)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주 1-2회	90.5	91.4	90.7	89.1	81.0	95.0	86.6	88.7	88.2
주 3-4회	4.3	6.0	6.8	7.6	13.9	3.3	11.8	7.0	8.3
주 5-6회		1.7	1.7	.8	2.6		.8		1.1
주 7회 이상	2.6	.9	.8	2.5	1.7	1.7	.8	4.3	1.9
한달에한두번이하	2.6				.9				.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50.359$, $df=28$, $p<.01$

거주도시에 따른 차이를 보면 주 1-2회 가는 경우 인천 청소년들(95.0%)에게서 가장 높은 빈도가 나타났고, 주 3-4회에 있어서는 서울(13.9%)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청소년 밀집지역에 가는 빈도(한 주 중 언제)’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 부분은 거주도시와의 교차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다.

<표 III-37> 청소년 밀집지역에 가는 시간(한 주 중)

	빈도	백분율(%)
주중에	106	10.0
주말에	958	90.0
전체	1064	100.0

<표 III-37>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주말에 청소년 밀집지역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90.0%가 여기에 응답했으며 주중에 가는 경우는 10.0%에 불과했다.

<표 III-38> 청소년 밀집지역에 가는 시간(한 주 중)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1063)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주중에	4.2	9.2	9.3	15.0	17.2	2.5	10.1	5.1	10.0
주말에	95.8	90.8	90.7	85.0	82.8	97.5	89.9	94.9	9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32.006, df=7, p<.001$$

거주도시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인천(97.5%) 청소년들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주말에 방문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82.8%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반면 주중에 방문하는 경우는 서울(17.2%)이 가장 높았고 인천(2.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은 ‘청소년 밀집지역에 가는 시간(하루 중)’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 부분은 거주도시와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III-39> 청소년 밀집지역에 가는 시간(하루 중)

	빈도	백분율(%)
오전9시-오후12시	61	5.8
오후12시-오후3시	277	26.1
오후3시-오후6시	367	34.6
오후6시-밤9시	226	21.3
밤9시-밤12시	56	5.3
밤12시-새벽3시	8	.8
기타	65	6.1
전체	1060	100.0

청소년 밀집지역에 방문하는 하루 중 시간을 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오후3시-오후6시(34.6%)로 나타났으며, 이밖에도 오후12시-오후3시(26.1%), 오후6시-밤9시(21.3%) 등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방문하는 요일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한가한 시간대인 오후 12시부터 밤 9시까지가 전체의 80%를 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II-40> 청소년 밀집지역에 가는 시간 차이 검증(하루 중) : 거주도시
별

(단위:%, N=1059)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오전9시-오후12시	5.0	7.6	4.3	4.2	10.7	2.6	5.1	1.7	5.8
오후12시-오후3시	31.9	25.2	32.5	25.2	17.1	28.2	27.4	30.8	26.2
오후3시-오후6시	30.3	26.9	37.6	33.6	35.0	39.3	33.3	40.2	34.6
오후6시-밤9시	14.3	29.4	13.7	28.6	27.4	17.1	23.1	11.1	21.3
밤9시-밤12시	3.4	1.7	6.8	7.6	5.6	8.5	3.4	5.1	5.3
밤12시-새벽3시	.8	.8			.4		.9	3.4	.8
기타	14.3	8.4	5.1	.8	3.8	4.3	6.8	7.7	6.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02.672$, $df=42$, $p<.001$

거주도시별 방문시간을 보면 오후 12시-3시의 경우 대전(32.5%)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높은 빈도치가 나타났고 서울(17.1%)의 경우 가장 낮은 빈도였다. 오후 3시-6시의 경우에는 춘천(40.2%)이 가장 높았고 대구(26.9%)가 가장 낮았으며, 오후 6시-밤 9시의 경우에는 대구(29.4%)가 가장 높았고 춘천(11.1%)이 가장 낮았다.

<표 III-41> 청소년 밀집지역에 가는 시간 차이 검증(하루 중) : 성별

(단위:%, N=1053)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오전 9시-오후 12시	8.0	3.4	5.7
오후 12시-오후 3시	25.0	27.2	26.1
오후 3시-오후 6시	30.4	39.1	34.8
오후 6시-밤 9시	21.4	20.9	21.2
밤 9시-밤 12시	6.9	3.8	5.3
밤 12시-새벽 3시	1.1	.4	.8
기타	7.1	5.3	6.2
전체	100.0	100.0	100.0

 $\chi^2=24.286$, $df=6$, $p<.001$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 비해 오후 12시-6시 사이에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2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밤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시설’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 부분의 유의미한 교차분석 결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만 검증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표 III-42>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희망하는 청소년 시설(다중응답)

	빈도	백분율(%)
공연장 및 예능시설	186	14.5
휴게시설	340	26.6
체육시설	302	23.6
청소년 댄스장	59	4.6
야외공원	129	10.1
공공도서관	90	7.0
청소년전용극장	111	8.7
기타	62	4.8
전체	1279	100.0

청소년들이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희망하는 시설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휴게시설(26.6%)이었고, 다음으로 체육시설(23.6%), 공연장 및 예능시설(14.5%), 야외공원(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3>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희망하는 청소년 시설 차이 검증 : 성별
(다중응답)

(단위:%, N=1272)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공연장 및 예능시설	12.2	17.1	14.6
휴게시설	21.2	32.2	26.7
체육시설	34.8	11.9	23.4
청소년 댄스장	4.2	5.1	4.6
야외공원	8.6	11.7	10.1
공공도서관	7.2	7.0	7.1
청소년전용극장	6.6	10.8	8.6
기타	5.3	4.3	4.8
전체	100.0	100.0	100.0

$$\chi^2=101.727, df=7, p<.001$$

<표 III-4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주로 휴게시설(32.2%), 공연장 및 예능시설(17.1%), 야외공원(11.7%) 등을 선호하고 있었고, 반면 남자 청소년들은 체육시설(34.8%)의 설치를 월등히 선호하고 있었다.

다음은 ‘청소년 밀집지역과 관련된 청소년 정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의견을 제안한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표 III-4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응답 청소년들의 98.3%가 이 지역과 관련된 청소년 정책을 구성하는 데 어떠한 제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표 III-44> 청소년 정책구성과 관련된 의견 제안 경험

	빈도	백분율(%)
있다	18	1.7
없다	1047	98.3
전체	1065	100.0

다음은 ‘청소년 정책구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안한 경험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제안 경험이 있는 1.7%의 청소년들 중 44.4%는 공공시설 설립에 대한 내용을 제안한 적이 있으며, 33.3%는 작품성 있는 영화상영이라고 응답했고, 지역개발에 응답한 경우는 11.1%이었다.

<표 III-45> 청소년 정책구성과 관련된 의견 제안 내용

	빈도	백분율(%)
공공시설 설립	4	44.4
지역 개발	1	11.1
작품성 있는 영화상영	3	33.3
기타	1	11.1
전체	9	100.0

다음은 ‘청소년 정책구성과 관련된 의견 수용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의견 제안 경험 청소년의 경우 그 의견이 수용되었던 경우는 33.3%이었고, 수용되지 않았던 경우는 66.7%이었다.

<표 III-46> 청소년 정책구성과 관련된 의견 제안 수용 여부

	빈도	백분율(%)
그렇다	5	33.3
아니다	10	66.7
전체	15	100.0

다음은 ‘청소년 정책구성과 관련된 의견 제안 경로’에 대한 응답결과인데,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68.8%가 여기에 응답했다.

<표 III-47>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의견 제안 경로

	빈도	백분율(%)
인터넷게시판	11	68.8
청소년위원회	1	6.3
직접방문	1	6.3
기타	3	18.8
전체	16	100.0

다음은 ‘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 부분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다.

<표 III-48>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희망하는 정책(다중응답)

	빈도	백분율(%)
청소년 전용시설 마련	270	21.6
거리청결에 신경	148	11.8
길거리 이벤트의 정기적 개최	399	31.9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63	5.0
광고 간판 정리	55	4.4
청소년 전용지역 지정	152	12.2
정책에 관심 없음	132	10.6
기타	30	2.4
전체	1249	100.0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희망하는 정책의 경우 가장 높은 빈도는 길거리 이벤트의 정기적 개최로 나타났는데 31.9%의 청소년들이 응답했

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전용시설 마련이 21.6%, 청소년 전용지역 지정이 12.2%, 거리청결이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9>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희망하는 정책에 관한 차이 검증 : 성별 (다중응답)

(단위:%, N=1242)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청소년 전용시설 마련	21.2	22.3	21.7
거리 청결에 신경	10.4	13.4	11.9
길거리 이벤트의 정기적 개최	30.3	33.3	31.8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4.8	5.3	5.1
광고 간판 정리	4.2	4.7	4.4
청소년 전용지역 지정	12.3	11.8	12.1
관심 없음	13.5	7.8	10.6
기타	3.4	1.3	2.3
전체	100.0	100.0	100.0

$\chi^2=19.085, df=7, p<.01$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표 III-4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자 청소년에 비해 관심 없음에 응답한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자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남자에 비해 모든 항목에 대해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은 ‘청소년 밀집지역이 본인의 문화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 부분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다.

<표 III-50> 청소년 밀집지역이 문화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다	89	8.4
그렇다	345	32.5
보통이다	505	47.6
그렇지 않다	88	8.3
전혀 그렇지 않다	35	3.3
전체	1062	100.0

우선 청소년 밀집지역이 본인의 문화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보면, ‘매우 그렇다’가 8.4%, ‘그렇다’가 32.5%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는 40.9%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청소년 밀집지역의 문화생활이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1.6%이었다.

<표 III-51> 청소년 밀집지역이 문화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5)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매우 그렇다	11.5	5.1	8.2
그렇다	35.3	29.6	32.4
보통이다	39.7	55.6	47.8
그렇지 않다	8.4	8.1	8.2
전혀 그렇지 않다	5.0	1.7	3.3
전체	100.0	100.0	100.0

$\chi^2=38.680$, $df=4$, $p<.001$

한편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 표를 보면 일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밀집지역이 본인의 문화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46.8%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34.7%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청소년 밀집지역이 자신의 문화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청소년 밀집지역에 있는 성인 전용시설에 가본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 부분은 거주도시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다.

<표 III-52> 청소년 밀집지역에 있는 성인 전용시설에 가본 경험

	빈도	백분율(%)
있다	190	17.9
없다	871	82.1
전체	1061	100.0

응답 청소년들의 82.1%는 성인 전용시설에 가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이 있는 경우는 17.9%이었다.

<표 III-53> 청소년 밀집지역에 있는 성인 전용시설에 가본 경험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1060)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있다	20.3	20.2	19.1	33.3	15.9	14.2	10.8	11.9	17.9
없다	79.7	79.8	80.9	66.7	84.1	85.8	89.2	88.1	82.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8.732, df=7, p<.001$

거주도시에 따른 교차분석에 있어서는 도시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인시설 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 부산의 청소년들이 3.3%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 청소년들은 1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은 '성인 전용시설에 가 본 경우 그 시설의 종류'에 관한 응답 결과이다.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술집이 90.8%로 가장 많았다. 즉,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성인 전용시설에 출입하고 있지 않았으나, 출입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주로 술집에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54>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가본 경험이 있는 성인 전용시설

	빈도	백분율(%)
술집	157	90.8
카페	2	1.2
나이트클럽	6	3.5
비디오방	1	.6
기타	7	4.0
전체	173	100.0

다음은 '성인 전용시설을 가 본 경우 단속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표 III-55>에서 볼 수 있듯이 단속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78.2%로 단속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표 III-55> 성인 전용시설에서 단속을 받아본 경험

	빈도	백분율(%)
단속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41	21.8
단속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147	78.2
전체	188	100.0

다음은 ‘청소년 전용시설, 청소년 출입가능시설,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 구분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시설들 간의 구분 기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85.6%의 청소년들이 ‘구분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표 III-56> 청소년 전용시설, 출입가능시설, 출입금지시설 구분 유무

	빈도	백분율(%)
구분할 수 있다	907	85.6
구분할 수 없다	152	14.4
전체	1059	100.0

다음은 ‘청소년밀집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한 길거리 이벤트(거리축제, 길거리 농구, 공연 등)가 개최되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 부분은 거주도시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다.

<표 III-57> 청소년 밀집지역에서의 길거리이벤트 개최 관람 여부

	빈도	백분율(%)
본 적이 있다	546	51.2
본 적이 없다	520	48.8
전체	1066	100.0

길거리 이벤트가 청소년밀집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51.2%로 ‘본 적이 없다’에 응답한 48.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 III-58>을 보면 거주도시별로 다소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전(65.3%)과 제주(63.3%), 춘천(63.6%)의 청소년들은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거리 이벤트가 개최되는 것을 본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반면 인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길거리 이벤트가 개최되는 것을 본적이 없다(64.2%)는 대답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8> 길거리이벤트 개최 관람 여부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1065)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있다	51.7	50.8	65.3	42.4	44.3	35.8	63.3	63.6	51.3
없다	48.3	49.2	34.7	57.6	55.7	64.2	36.7	36.4	48.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43.188$, $df=7$, $p<.001$

다음은 ‘청소년 밀집지역의 환경구성(표지판, 간판, 벤치, 길거리 청결정도, 가로수 등)이 잘 정리되어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 질문 역시 거주도시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표 III-59> 청소년 밀집지역의 환경구성 정도

	빈도	백분율(%)
잘 정리되어 있다	304	28.5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	761	71.5
전체	1065	100.0

응답 청소년들의 71.5%는 청소년 밀집지역에서의 환경구성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에 응답하고 있으며, ‘잘 정리되어 있다’에 응답한 경우는 28.5%에 불과했다. 즉,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밀집지역의 환경구성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60> 청소년 밀집지역의 환경구성 정도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1064)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잘 정리되어 있다	26.3	30.5	19.5	24.6	37.0	29.2	26.1	26.3	28.5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	73.7	69.5	80.5	75.4	63.0	70.8	73.9	73.7	71.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5.157, df=7, p<.05$

이를 거주도시별로 보면 서울지역의 청소년들은 타 도시의 청소년들에 비해 비교적 환경구성이 ‘잘 정리되어 있다’(37.0%)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가장 낮은 곳은 대전지역의 청소년들로 19.5%의 학생들만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청소년 밀집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 부분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61>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정도

	빈도	백분율(%)
매우 충분하다	21	2.0
충분하다	68	6.4
보통이다	365	34.3
부족하다	412	38.7
매우 부족하다	199	18.7
전체	1065	100.0

청소년 밀집지역에서의 청소년 문화시설 정도를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8.4%에 불과했으며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7.4%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과반수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비교적 부족하다고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62>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정도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8)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매우 충분하다	3.3	.7	2.0
충분하다	8.6	4.3	6.4
보통이다	34.0	35.0	34.5
부족하다	34.4	42.6	38.6
매우 부족하다	19.7	17.4	18.5
전체	100.0	100.0	100.0

$\chi^2=21.411$, $df=4$, $p<.001$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을 많이 했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족하다는 응답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하다는 응답한 남자 청소년들은 54.1%인데 반해 여자 청소년들은 60.0%가 여기에 응답했다.

다음은 ‘청소년 밀집지역에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 부분은 성별에 따른 유의미성이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다.

<표 III-63> 청소년 문화시설 인지정도

	빈도	백분율(%)
매우 많이 알고 있다	16	1.5
많이 알고 있다	86	8.1
보통이다	463	43.7
잘 모른다	388	36.6
매우 잘 모른다	107	10.1
전체	1060	100.0

응답 청소년들의 46.7%는 이 지역에서의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9.6% 이었다.

<표 III-64> 청소년 문화시설 인지정도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3)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매우 많이 알고 있다	2.5	.6	1.5
많이 알고 있다	9.6	6.8	8.2
보통이다	44.8	42.2	43.5
잘 모른다	31.0	42.4	36.8
매우 잘 모른다	12.1	8.1	10.1
전체	100.0	100.0	100.0

$\chi^2=23.203$, $df=4$, $p<.001$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자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청소년 밀집지역에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남자는 43.1%인데 반해 여자는 50.5%이었다.

2) 청소년 문화지역에 대한 의식조사

다음은 ‘청소년 문화지역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이다.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청소년 문화지역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91.7%로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65> 청소년 문화지역 인지도

	빈도	백분율(%)
알고 있다	89	8.3
알고 있지 못하다	979	91.7
전체	1068	100.0

다음은 ‘청소년 문화지역을 알고 있다면 이 곳에 가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알고 있는 경우에는 86.2%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6> 청소년 문화지역에 가본 경험 여부

	빈도	백분율(%)
가 본 경험이 있다	75	86.2
가 본 경험이 없다	12	13.8
전체	87	100.0

다음은 ‘청소년 문화지역을 알고 있다면 알게 된 경로는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 부분은 거주도시별로 상대적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다.

<표 III-67> 청소년 문화지역을 알게 된 경로

	빈도	백분율(%)
길거리플랜카드를 통해서	13	17.6
전단지를 통해서	6	8.1
인터넷을 통해서	2	2.7
친구를 통해서	39	52.7
기타	14	18.9
전체	74	100.0

알게 된 경로 중 가장 높은 빈도는 ‘친구를 통해서’라는 응답이었는데, 52.7%의 청소년들이 여기에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길거리플랜카드를 통해서’로 17.6%의 청소년들이 대답하였다.

<표 III-68> 청소년 문화지역을 알게 된 경로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74)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길거리 플랜카드	18.2	10.0	40.0	60.0	16.7		6.3	22.2	17.6
전단지			20.0		8.3	16.7	6.3	22.2	8.1
인터넷				20.0	8.3				2.7
친구	45.5	70.0	20.0		58.3	83.3	62.5	44.4	52.7
기타	36.4	20.0	20.0	20.0	8.3		25.0	11.1	18.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76.433$, $df=28$, $p<.001$

이 결과를 거주도시별로 보면, ‘친구’를 통해 청소년 문화지역을 알게 된 경우 인천 청소년들(83.3%)이 가장 높았으며, ‘길거리 플랜카드’를 통해 청소년 문화지역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부산 청소년들(60.0%)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지역을 아는 경우 이 지역에 가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표 III-69>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이유는 집이 가까워서(33.8%)이며, 다음으로는 시설이 잘 되어있어서(19.5%), 갈 곳과 볼거리가 많아서(11.7%), 분위기가 좋아서(10.4%)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I-69> 청소년문화지역에 가는 이유(다중응답)

	빈도	백분율(%)
집이 가까워서	26	33.8
친구들도 다 그곳에 가니까	6	7.8
갈 곳과 볼거리가 많아서	9	11.7
시설이 잘 되어있어서	15	19.5
교통이 편리해서	0	.0
분위기가 좋아서	8	10.4
기타	13	16.9
전체	77	100.0

다음은 ‘청소년 문화지역에서의 문화활동 프로그램 참여해 본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청소년 문화지역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40.3%의 청소년들만이 청소년 문화지역에서의 문화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0> 문화활동 프로그램 참여경험 여부

	빈도	백분율(%)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29	40.3
참여해 본 경험이 없다	43	59.7
전체	72	100.0

다음은 ‘청소년 문화지역에서 주로 하는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가장 많은 활동유형은 스포츠활동(20.0%)이었고, 다음으로 공연관람(17.6%), PC방 이용하기(15.3%), 친구와 이야기하기(10.6%)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I-71> 청소년 문화지역에서 주로 하는 구체적인 활동(다중응답)

	빈도	백분율(%)
쇼핑하기	3	3.5
PC방 이용하기	13	15.3
친구와 이야기하기	9	10.6
먹고 마시기	6	7.1
전자오락실게임하기	3	3.5
공연관람	15	17.6
종교 활동	1	1.2
스포츠활동	17	20.0
영화보기	7	8.2
기타	11	12.9
전체	85	100.0

다음은 ‘청소년 문화지역에 가는 빈도’에 대한 응답결과인데, 87.5%의 청소년들은 주 1-2회의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2> 청소년 문화지역에 가는 빈도

	빈도	백분율(%)
주 1-2회	56	87.5
주 3-4회	7	10.9
주 7회 이상	1	1.6
전체	64	100.0

다음은 ‘청소년 문화지역을 방문하는 시간(한 주 중)’에 대한 응답 결과인데, 86.4%의 청소년들은 이 지역을 주말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3> 청소년 문화지역에 가는 시간(한 주 중)

	빈도	백분율(%)
주중에	9	13.6
주말에	57	86.4
전체	66	100.0

다음은 ‘청소년 문화지역을 방문하는 시간(하루 중)’에 대한 응답 결과인데, 오후3시-오후6시(32.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후12시-오후3시(26.5%)가 많았다. 오후6시-밤9시는 19.1%, 오전9시-오후12시는 17.6%이었다.

<표 III-74> 청소년 문화지역에 가는 시간(하루 중)

	빈도	백분율(%)
오전 9시-오후 12시	12	17.6
오후 12시-오후 3시	18	26.5
오후 3시-오후 6시	22	32.4
오후 6시-밤 9시	13	19.1
밤 9시-밤 12시	3	4.4
전체	68	100.0

다음은 ‘청소년 문화지역을 방문할 때 함께 가는 사람’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동성친구와 함께 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71.4%의 청소년들이 여기에 응답했고, 그 다음은 가족과 함께로 10.0%를 차지했다.

<표 III-75> 청소년 문화지역에 함께 가는 사람

	빈도	백분율(%)
혼자서	5	7.1
이성친구와 함께	5	7.1
동성친구와 함께	50	71.4
가족과 함께	7	10.0
선배 또는 후배와 함께	1	1.4
기타	2	2.9
전체	70	100.0

다음은 ‘청소년 문화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46.4%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에 응답하고 있으며,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27.5%, 만족하는 경우가 26.0%를 나타내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표 III-76> 청소년 문화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빈도	백분율(%)
매우 만족스럽다	5	7.2
만족스럽다	13	18.8
보통이다	32	46.4
만족스럽지 않다	14	20.3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5	7.2
전체	69	100.0

다음은 ‘이 지역에서의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인데, 47.4%의 청소년들이 시설 및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에 표시했으며, 36.8%의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이 미비해서 활동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표 III-77> 청소년 문화지역에서의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빈도	백분율(%)
시설, 환경이 열악해서	9	47.4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1	5.3
프로그램이 미비해서	7	36.8
기타	2	10.5
전체	19	100.0

다음은 ‘청소년 문화지역에서 희망하는 시설’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가장 희망하는 시설로는 체육시설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는데 29.6%의 청소년들이 여기에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휴게시설(20.4%), 공공도서관(13.9%) 등의 순이었다.

<표 III-78> 청소년 문화지역에서 희망하는 시설(다중응답)

	빈도	백분율(%)
공연장 및 예능시설	10	9.3
휴게시설	22	20.4
체육시설	32	29.6
청소년 댄스장	7	6.5
야외공원	9	8.3
공공도서관	15	13.9
청소년전용극장	8	7.4
기타	5	4.6
전체	108	100.0

다음은 ‘청소년 문화지역에서 희망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가장 많은 활동은 스포츠활동(26.1%)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취미, 교양강좌(22.8%), 문화, 예술 공연(21.7%), 해외문화 체험활동(13.0%) 등 이었다.

<표 III-79> 청소년 문화지역에서 희망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다중응답)

	빈도	백분율(%)
문화, 예술 공연	20	21.7
취미, 교양강좌	21	22.8
스포츠활동	24	26.1
해외문화 체험활동	12	13.0
민속문화 체험활동	6	6.5
각종전시회	7	7.6
기타	2	2.2
전체	92	100.0

3) 주거지역 · 가족 · 학교 문화환경에 대한 의식조사

(1) 주거지역 문화환경에 대한 의식조사

다음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자랑할 만한 문화재가 많이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III-8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청소년 수의 25.5%의 청소년들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자랑할 만한 문화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6.0%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으며, 38.5%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III-80> 지역문화재 다수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103	9.7
아니다	281	26.3
보통이다	411	38.5
그렇다	207	19.4
매우 그렇다	65	6.1
전체	1067	100.0

이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거주도시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81> 지역문화재 다수에 관한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1066)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전혀 아니다	8.5	17.6	11.8	8.3	10.6	10.8	5.0	3.4	9.7
아니다	26.5	25.2	26.9	22.5	32.8	35.8	15.8	19.0	26.4
보통이다	33.3	42.0	48.7	35.8	34.0	40.8	38.3	38.8	38.5
그렇다	25.6	13.4	7.6	27.5	15.3	12.5	26.7	31.0	19.4
매우 그렇다	6.0	1.7	5.0	5.8	7.2		14.2	7.8	6.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97.159$, $df=28$, $p<.001$

<표 III-81>을 살펴보면, 거주도시별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자랑할 만한 문화재가 많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46.6%의 청소년들이 ‘전혀 아니다’ 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이는 8개 도시 중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40.9%의 청소년들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8개 도시 중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즉, 인천지역의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자랑할 만한 문화재가 별로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지역의 청소년들은 자랑할 만한 문화재가 많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길거리가 청결하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82> 길거리 청결정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119	11.1
아니다	335	31.4
보통이다	439	41.1
그렇다	144	13.5
매우 그렇다	31	2.9
전체	1068	100.0

<표 III-82>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 수의 16.4%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길거리 청결정도가 양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42.5%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41.1%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거주도시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83> 길거리 청결정도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1067)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전혀 아니다	16.2	12.6	13.4	8.3	10.6	14.2	5.0	9.5	11.2
아니다	31.6	35.3	35.3	30.0	28.8	46.7	20.8	25.0	31.4
보통이다	39.3	45.4	37.8	46.7	39.4	31.7	47.5	43.1	41.1
그렇다	7.7	5.9	12.6	12.5	17.4	6.7	21.7	19.8	13.5
매우 그렇다	5.1	.8	.8	2.5	3.8	.8	5.0	2.6	2.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66.572$, $df=28$, $p<.001$

<표 III-83>을 살펴보면, 거주도시별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길거리 청결정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60.9%의 청소년들이 ‘전혀 아니다’ 와 ‘아니다’ 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이는 8개 도시 중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26.7%의 청소년들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8개 도시 중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즉, 인천지역의 청소년들 중 과반수(60.9%)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길거리 청결상태가 불량하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지역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길거리 청결상태가 양호하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84> 길거리 청결정도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61)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 아니다	11.6	10.8	11.2
아니다	25.7	36.8	31.3
보통이다	41.0	41.2	41.1
그렇다	18.1	9.0	13.5
매우 그렇다	3.6	2.2	2.9
전체	100.0	100.0	100.0

$\chi^2=28.654, df=4, p<.001$

<표 III-84>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37.3%의 학생들이 ‘전혀 아니다’ 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에 대해 47.6%의 학생들이 응답한 것으로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여자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길거리 청결정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광고간판 정리가 잘 되어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85> 광고간판 정리 양호상태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122	11.5
아니다	360	34.0
보통이다	431	40.7
그렇다	124	11.7
매우 그렇다	22	2.1
전체	1059	100.0

<표 III-85>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수의 13.8%의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광고간판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5.5%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40.7%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대한 지역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났는데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III-8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39.4%의 학생들이 ‘전혀 아니다’ 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에 대해 51.5%의 학생들이 응답한 것으로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여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살고 있는 지역의 광고간판 정리 상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6> 광고간판 정리 양호상태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3)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 아니다	12.2	10.9	11.6
아니다	27.2	40.6	33.9
보통이다	41.3	40.0	40.6
그렇다	16.1	7.5	11.8
매우 그렇다	3.3	.9	2.1
전체	100.0	100.0	100.0

$\chi^2=37.373$, $df=4$, $p<.001$

다음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87> 주거지역 문화환경의 청소년 문화시설 인지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203	19.2
아니다	458	43.2
보통이다	311	29.4
그렇다	72	6.8
매우 그렇다	15	1.4
전체	1059	100.0

<표 III-87>을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수의 9.2%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2.4%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라는 응답을 하였으며, 29.4%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하였다. 즉, 상당수의 청소년들(62.4%)은 자신의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거주도시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88> 주거지역 문화환경의 청소년 문화시설 인지도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1058)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전혀 아니다	19.0	18.6	20.2	20.2	25.8	16.7	13.4	13.2	19.2
아니다	36.2	39.8	40.3	54.6	41.6	51.7	34.5	49.1	43.3
보통이다	33.6	33.9	31.9	20.2	25.8	25.8	40.3	26.3	29.3
그렇다	6.9	6.8	5.9	5.0	5.2	5.8	10.1	10.5	6.8
매우 그렇다	4.3	.8	1.7		1.7		1.7	.9	1.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49.597$, $df=28$, $p<.01$

<표 III-88>을 살펴보면, 거주도시별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정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74.8%의 청소년들이 ‘전혀 아니다’ 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이는 8개 도시 가운데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한 가장 낮은 인지정도를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그 중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11.8%의 청소년들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8개 도시 중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한 인지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역의 경우에도 11.4%로 비교적 높았다.

이 문항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89> 주거지역 문화환경의 청소년 문화시설 인지도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2)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 아니다	18.1	20.5	19.3
아니다	36.9	49.2	43.2
보통이다	34.4	24.2	29.3
그렇다	9.0	4.7	6.8
매우 그렇다	1.5	1.3	1.4
전체	100.0	100.0	100.0

$\chi^2=26.674$, $df=4$, $p<.001$

<표 III-89>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과 여자 청소년들 모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특히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55.0%의 학생들이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에 대해 69.7%의 학생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여자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공공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극장, 공연장, 도서관, 영화관, 공연장 등)이 많이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90> 공공 문화시설 다수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158	14.8
아니다	338	31.7
보통이다	355	33.3
그렇다	181	17.0
매우 그렇다	34	3.2
전체	1066	100.0

<표 III-90>을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수의 20.2%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공공 문화시설이 많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6.5%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33.3%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거주도시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91> 공공 문화시설 다수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1065)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전혀 아니다	17.1	18.5	11.8	19.5	10.6	15.8	15.8	13.8	14.8
아니다	35.0	31.9	24.4	29.7	28.8	34.2	37.5	34.5	31.6
보통이다	28.2	33.6	42.9	28.8	34.3	28.3	30.8	38.8	33.3
그렇다	12.8	15.1	19.3	21.2	21.2	17.5	12.5	12.1	17.0
매우 그렇다	6.8	.8	1.7	.8	5.1	4.2	3.3	.9	3.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42.568$, $df=28$, $p<.05$

<표 III-91>을 살펴보면, 거주도시별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공공 문화시설이 많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53.3%의 청소년들이 ‘전혀 아니다’ 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이는 8개 도시 중 부정적인 응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반면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26.3%의 청소년들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8개 도시 중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즉, 제주지역의 청소년들 중 과반수(53.3%)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영화관 등의 공공문화시설이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의 청소년들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공공문화시설이 많이 있다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92> 공공 문화시설 다수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9)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 아니다	15.1	14.4	14.7
아니다	27.7	36.1	31.9
보통이다	33.2	33.3	33.2
그렇다	19.5	14.4	16.9
매우 그렇다	4.6	1.9	3.2
전체	100.0	100.0	100.0

$\chi^2=16.031, df=4, p<.01$

<표 III-92>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24.1%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 대해 16.3%의 학생들이 응답한 것으로 여자 청소년에 비해서 남자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공공 문화시설이 많이 있다

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93> 문화활동 프로그램 다양정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204	19.2
아니다	484	45.6
보통이다	308	29.0
그렇다	57	5.4
매우 그렇다	8	.8
전체	1061	100.0

<표 III-93>을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수의 6.2%의 학생들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4.8%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라는 대답을 하였으며, 29.0%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거주도시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94> 문화활동 프로그램 다양정도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1060)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전혀 아니다	20.5	22.7	12.9	25.4	18.8	21.7	21.7	10.3	19.2
아니다	44.4	47.1	46.6	39.0	48.3	54.2	44.2	37.9	45.6
보통이다	29.1	26.1	35.3	30.5	26.5	21.7	26.7	39.7	29.1
그렇다	4.3	4.2	4.3	3.4	5.1	2.5	7.5	12.1	5.4
매우 그렇다	1.7		.9	1.7	1.3				.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47.228$, $df=28$, $p<.05$

<표 III-94>를 살펴보면, 거주도시별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75.9%의 청소년들이 ‘전혀 아니다’ 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이는 8개 도시 중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반면 춘천지역의 경우에는 12.1%의 청소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8개 도시 중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즉, 인천지역의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미비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춘천 지역의 청소년들은 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보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95> 문화활동 프로그램 다양정도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4)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 아니다	21.3	17.3	19.3
아니다	41.0	50.4	45.7
보통이다	29.5	28.4	28.9
그렇다	7.1	3.6	5.3
매우 그렇다	1.1	.4	.8
전체	100.0	100.0	100.0

 $\chi^2=15.550$, $df=4$, $p<.01$

<표 III-95>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8.2%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에 대해 4.0%의 학생들이 응답한 것으로 여자 청소년에 비해서 남자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환경에 대해서 만족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96> 주거지역에서의 청소년 문화환경 만족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221	20.8
아니다	415	39.0
보통이다	333	31.3
그렇다	80	7.5
매우 그렇다	16	1.5
전체	1065	100.0

<표 III-96>을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수의 9.0%의 학생들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환경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9.8%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으며, 31.3%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과반수(59.8%)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환경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지역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었다.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III-9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13.2%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에 대해 5.1%의 학생들이 응답한 것으로 여자 청소년에 비해서 남자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환경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7> 주거지역에서의 청소년 문화환경 만족도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8)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 아니다	21.8	19.6	20.7
아니다	31.6	46.3	39.0
보통이다	33.3	29.1	31.2
그렇다	10.3	4.9	7.6
매우 그렇다	2.9	.2	1.5
전체	100.0	100.0	100.0

$\chi^2=39.904, df=4, p<.001$

다음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98>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참여정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464	43.8
아니다	414	39.1
보통이다	136	12.8
그렇다	38	3.6
매우 그렇다	8	.8
전체	1060	100.0

<표 III-98>을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수의 4.4%의 학생들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82.9%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으며, 12.8%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대다수의 청소년들(82.9%)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거주도시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99>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참여정도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1059)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전혀 아니다	42.2	38.1	33.6	54.3	48.1	47.5	35.3	46.6	43.7
아니다	39.7	41.5	39.5	34.5	40.4	40.8	43.7	31.0	39.1
보통이다	16.4	16.1	21.0	6.9	8.5	6.7	15.1	16.4	12.8
그렇다		3.4	5.0	3.4	3.0	5.0	5.0	4.3	3.6
매우 그렇다	1.7	.8	.8	.9			.8	1.7	.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46.181, df=28, p<.05$

<표 III-99>을 살펴보면, 거주도시별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한다는 질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88.8%, 서울지역의 경우 88.5%, 인천지역의 경우 88.3%의 청소년들이 ‘전혀 아니다’ 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하였다. 한편, 춘천의 경우 6.0%, 제주와 대전의 경우 5.8%의 청소년들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산과 서울, 인천지역의 청소년들은 상당수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주최하는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춘천과 제주, 대전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00>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참여정도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3)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 아니다	43.5	44.2	43.9
아니다	35.8	42.3	39.1
보통이다	14.6	10.9	12.7
그렇다	5.0	2.2	3.6
매우 그렇다	1.0	.4	.7
전체	100.0	100.0	100.0

 $\chi^2 = 12.750, df = 4, p < .05$

<표 III-100>을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참여비율이 저조하지만, 특히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6.0%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에 대해 2.6%의 학생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에 비해서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나는 현재 이 지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01> 주거지역이 자랑스러움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110	10.3
아니다	197	18.5
보통이다	514	48.2
그렇다	175	16.4
매우 그렇다	71	6.7
전체	1067	100.0

<표 III-101>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수의 23.1%의 학생들만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8.8%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라는 응답을 하였으며, 48.2%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거주도시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02> 주거지역이 자랑스러움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1066)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전혀 아니다	16.2	11.8	11.9	2.5	8.1	13.3	10.8	10.3	10.3
아니다	14.5	29.4	16.9	20.8	14.8	30.0	10.8	13.8	18.5
보통이다	42.7	42.0	44.1	52.5	54.2	44.2	50.0	50.0	48.2
그렇다	19.7	13.4	21.2	20.8	16.1	8.3	12.5	19.0	16.3
매우 그렇다	6.8	3.4	5.9	3.3	6.8	4.2	15.8	6.9	6.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74.653$, $df=28$, $p<.001$

<표 III-102>를 살펴보면, 거주도시별로 청소년들의 의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의 경우, 43.3%의 청소년들이 ‘전혀 아니다’ 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이는 8개 도시 중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반면 제주의 경우에는 28.3%, 대전의 경우에는 27.1%의 청소년들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천지역의 청소년들은 타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자신이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그다지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제주와 대전지역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비교적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03> 주거지역이 자랑스러움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60)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 아니다	12.6	8.0	10.3
아니다	15.1	21.8	18.5
보통이다	42.9	53.7	48.4
그렇다	21.0	11.6	16.2
매우 그렇다	8.4	4.9	6.6
전체	100.0	100.0	100.0

$\chi^2=37.850$, $df=4$, $p<.001$

<표 III-103>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29.4%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에 대해 16.5%의 학생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에 비해서 남자 청소년들이 현재 자신이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더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만족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표 III-104>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수의 29.1%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28.8%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라는 응답을 하였으며, 42.2%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한다고 대답한 청소년들과 만족하지 않다고 대답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04> 주거환경 만족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82	7.7
아니다	225	21.1
보통이다	450	42.2
그렇다	230	21.6
매우 그렇다	80	7.5
전체	1067	100.0

이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거주도시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05> 주거환경 만족도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1066)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전혀 아니다	14.5	7.6	7.6	7.6	5.9	8.3	5.0	6.9	7.7
아니다	17.9	24.4	24.4	20.2	14.8	31.7	17.5	24.1	21.1
보통이다	41.0	44.5	41.2	45.4	46.6	38.3	38.3	37.9	42.2
그렇다	18.8	21.0	20.2	22.7	23.7	18.3	24.2	20.7	21.5
매우 그렇다	7.7	2.5	6.7	4.2	8.9	3.3	15.0	10.3	7.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47.614$, $df=28$, $p<.05$

<표 III-105>를 살펴보면, 거주도시별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질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의 경우 40.0%의 청소년들이 ‘전혀 아니다’ 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이는 8개 도시 중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39.2%의 청소년들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8개 도시 중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즉, 인천지역의 청소년들은 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제주지역의 경우 타 도시에 비해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06> 주거환경 만족도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60)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 아니다	9.0	6.5	7.7
아니다	18.9	23.6	21.2
보통이다	35.8	48.2	42.1
그렇다	25.9	17.2	21.5
매우 그렇다	10.5	4.5	7.5
전체	100.0	100.0	100.0

$\chi^2=36.547$, $df=4$, $p<.001$

<표 III-106>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36.4%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에 대해 21.7%의 학생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에 비해서 남자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시설들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07> 문화시설 이용 빈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225	21.2
아니다	399	37.6
보통이다	311	29.3
그렇다	107	10.1
매우 그렇다	19	1.8
전체	1061	100.0

<표 III-107>을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수의 11.9%의 청소년들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시설들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8.8%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으며, 29.3%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과반수(58.8%)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문화시설들을 자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지역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났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08> 문화시설 이용 빈도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4)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 아니다	19.2	22.8	21.1
아니다	31.0	44.4	37.8
보통이다	34.4	24.5	29.4
그렇다	12.5	7.5	10.0
매우 그렇다	2.9	.7	1.8
전체	100.0	100.0	100.0

$\chi^2=36.266$, $df=4$, $p<.001$

<표 III-108>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50.2%의 학생들이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에 대해 67.2%의 학생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여자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의 청소년 문화시설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09> 청소년 문화생활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245	23.0
아니다	435	40.9
보통이다	319	30.0
그렇다	52	4.9
매우 그렇다	12	1.1
전체	1063	100.0

<표 III-109>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수의 6.0%의 학생들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63.9%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으며, 30.0%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과반수의 청소년들(63.9%)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지역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표 III-1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전반적으로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57.7%의 청소년들이 ‘전혀 아니다’ 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에 대해 70.4%의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즉,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지각하고 있는 학생들 중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110> 청소년 문화생활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6)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 아니다	23.1	22.9	23.0
아니다	34.6	47.5	41.1
보통이다	33.5	26.5	29.9
그렇다	6.5	3.2	4.8
매우 그렇다	2.3		1.1
전체	100.0	100.0	100.0

$\chi^2=33.182, df=4, p<.001$

(2) 가족 문화환경에 대한 의식조사

다음은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신다’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III-1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청소년수의 50.2%의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7.8%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는 대답을 하였으며, 31.9%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과반수(50.2%)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부모님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11> 부모님-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59	5.5
아니다	131	12.3
보통이다	340	31.9
그렇다	366	34.3
매우 그렇다	170	15.9
전체	1066	100.0

한편, 이 문항에 대하여 지역에 따른 차이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의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우리 부모님은 가사활동을 분담하신다’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 문항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 III-112> 부모님의 가사활동 분담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95	8.9
아니다	262	24.6
보통이다	335	31.4
그렇다	255	23.9
매우 그렇다	120	11.2
전체	1067	100.0

<표 III-112>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5.1%였으며, 33.5%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는 대답을 하였다. 또한 31.4%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

였다. 즉, 부모님이 가사활동을 분담하고 계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과 보통이다라고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문항에 대하여 지역에 따른 차이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의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우리 가족은 가훈을 중요시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13> 가훈을 중요시하는 정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165	15.5
아니다	340	31.9
보통이다	410	38.4
그렇다	98	9.2
매우 그렇다	54	5.1
전체	1067	100.0

<표 III-113>을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수의 14.3%의 학생들만이 자신의 가족이 가훈을 중요시한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7.4%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는 대답을 하였으며, 38.4%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지역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14> 가훈을 중요시하는 정도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60)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 아니다	18.9	12.3	15.6
아니다	29.7	34.2	32.0
보통이다	39.2	37.6	38.4
그렇다	7.0	11.0	9.1
매우 그렇다	5.1	4.9	5.0
전체	100.0	100.0	100.0

 $\chi^2=13.779$, $df=4$, $p<.01$

<표 III-114>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가훈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12.1%의 학생들이 ‘전혀 아니다’ 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에 대해 15.9%의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즉,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여자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자신의 가족이 가훈을 중요시한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해 지역에 따른 차이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나는 여가시간을 항상 가족과 함께 보낸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15> 여가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정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144	13.6
아니다	412	38.8
보통이다	364	34.3
그렇다	118	11.1
매우 그렇다	23	2.2
전체	1061	100.0

<표 III-115>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3.3%였으며, 52.4%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는 대답을 하였다. 또한 34.3%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과반수(52.4%)의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하여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었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의식차이를 살펴보면, <표 III-1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56.4%의 학생들이 ‘전혀 아니다’ 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에 대해 48.6%의 학생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에 비해서 남자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16> 여가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정도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4)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 아니다	15.9	11.1	13.5
아니다	40.5	37.5	39.0
보통이다	32.4	36.2	34.3
그렇다	9.0	13.1	11.1
매우 그렇다	2.1	2.1	2.1
전체	100.0	100.0	100.0

 $\chi^2 = 10.328, df = 4, p < .05$

다음은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 영화나 공연을 자주 보러 다닌다’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17> 가족과 함께 영화나 공연 관람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243	22.8
아니다	410	38.5
보통이다	275	25.8
그렇다	102	9.6
매우 그렇다	35	3.3
전체	1065	100.0

<표 III-117>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2.9%였으며, 61.3%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는 대답을 하였다. 또한 25.8%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과반수(61.3%)의 청소년들은 가족과 함께 영화나 공연을 보러 다니는 경우가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문항에 대하여 지역에 따른 차이와 성별에 따른 의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나는 평소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18> 가족들과의 대화 충분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63	5.9
아니다	193	18.1
보통이다	376	35.3
그렇다	275	25.8
매우 그렇다	158	14.8
전체	1065	100.0

<표 III-118>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0.6%였으며, 24.0%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는 대답을 하였다. 또한 35.3%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가족과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영화나 공연을 자주 보러 다니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도, 이에 비해 가족과 대화는 충분히 나누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40.6%)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하여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었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의식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III-119> 가족들과의 대화 충분도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8)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 아니다	6.9	4.9	5.9
아니다	18.7	17.8	18.2
보통이다	38.5	32.4	35.4
그렇다	22.7	28.5	25.6
매우 그렇다	13.2	16.5	14.8
전체	100.0	100.0	100.0

 $\chi^2=10.126$, $df=4$, $p<.05$

<표 III-119>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35.9%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에 대해 45.0%의 학생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나는 현재 나의 가정생활에 만족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표 III-1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52.3%로, 과반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현재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5.3%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는 대답을 하였으며, 32.4%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III-120> 가정생활 만족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55	5.2
아니다	108	10.1
보통이다	345	32.4
그렇다	321	30.1
매우 그렇다	237	22.2
전체	1066	100.0

이 문항에 대하여 지역에 따른 차이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의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나는 우리가족이 자랑스럽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21> 가족이 자랑스러운 정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16	1.5
아니다	34	3.2
보통이다	273	25.6
그렇다	415	39.0
매우 그렇다	327	30.7
전체	1065	100.0

<표 III-121>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69.7%로, 과반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족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7%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는 대답을 하였으며, 25.6%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애착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하여 지역에 따른 차이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의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나는 한달 용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22> 한달 용돈 충분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110	10.3
아니다	211	19.8
보통이다	278	26.1
그렇다	300	28.2
매우 그렇다	165	15.5
전체	1064	100.0

<표 III-122>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3.7%였으며, 30.1%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는 대답을 하였다. 또한 26.1%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자신의 한달 용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하여 지역에 따른 차이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의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나는 평소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23> 여가시간 충분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172	16.2
아니다	274	25.8
보통이다	266	25.1
그렇다	245	23.1
매우 그렇다	104	9.8
전체	1061	100.0

<표 III-123>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2.9%였으며, 42.0%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는 대답을 하였다. 또한 25.1%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자신의 평소 여가시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거주도시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24> 여가시간 충분도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1060)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전혀 아니다	26.1	10.1	23.9	14.2	8.9	14.3	16.7	23.5	16.2
아니다	38.3	18.5	25.6	24.2	18.7	31.1	27.5	30.4	25.8
보통이다	14.8	28.6	19.7	27.5	29.8	26.1	25.0	23.5	25.0
그렇다	13.0	33.6	25.6	22.5	27.2	17.6	22.5	18.3	23.1
매우 그렇다	7.8	9.2	5.1	11.7	15.3	10.9	8.3	4.3	9.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81.991$, $df=28$, $p<.001$

<표 III-124>를 살펴보면, 거주도시별로 자신의 평소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질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주의 경우 64.4%, 춘천의 경우 53.9%의 청소년들이 ‘전혀 아니다’ 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이는 8개 도시 중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반면 대구의 경우 42.8%, 서울의 경우 42.5%의 청소년들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8개 도시 중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즉, 광주와 춘천지역의 청소년들은 과반수가 자신의 평소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의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구와 서울지역의 청소년들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자신의 평소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의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25> 여가시간 충분도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4)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 아니다	17.2	15.1	16.1
아니다	20.2	31.3	25.8
보통이다	25.2	25.1	25.1
그렇다	26.0	20.4	23.1
매우 그렇다	11.5	8.1	9.8
전체	100.0	100.0	100.0

$$\chi^2=19.813, df=4, p<.01$$

<표 III-125>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37.5%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에 대해 28.5%의 학생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에 비해서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평소 여가시간이 충분

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평소 가족 중 자신과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표 III-1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소 ‘어머니’와 가장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66.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형제자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3.5%로 나타났으며, ‘아버지’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6.3%에 불과했다. 즉, 과반수(66%)의 청소년들은 평소 다른 가족들보다 어머니와 가장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III-126> 가족 중 자신과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

	빈도	백분율(%)
아버지	67	6.3
어머니	701	66.0
형제자매	250	23.5
할머니	6	.6
할아버지	2	.2
기타	36	3.4
전체	1062	100.0

이 문항에 대해서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었다.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는 <표 III-127>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어머니’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62.9%, 여자 청소년의 경우 69.2%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7.8%, 여자 청소년의 경우 4.5%로 나타났다. 즉, 남·여 청소년들 모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여자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어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또한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남자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아버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27> 가족 중 자신과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5)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아버지	7.8	4.5	6.2
어머니	62.9	69.2	66.1
형제자매	23.7	23.5	23.6
할머니	.6	.6	.6
할아버지	.2	.2	.2
기타	4.8	2.1	3.4
전체	100.0	100.0	100.0

$\chi^2=12.001$, $df=5$, $p<.05$

다음은 ‘평소에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가족’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표 III-12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소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 가족이 ‘어머니’라고 대답한 청소년이 42.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9.1%로 나타났으며, ‘형제자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6.8%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평소 다른 가족들(아버지 또는 형제자매)보다 어머니와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III-128>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 가족

	빈도	백분율(%)
아버지	308	29.1
어머니	453	42.8
형제자매	178	16.8
할머니	18	1.7
할아버지	5	.5
기타	96	9.1
전체	1058	100.0

한편, 이 문항에 대해서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었다.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는 <표 III-129>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어머니’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34.5%, 여자 청소년의 경우 50.8%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35.5%, 여자 청소년의 경우 22.7%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여자 청소년에 비해서 평소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29>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 가족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1)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아버지	35.5	22.7	29.0
어머니	34.5	50.8	42.7
형제자매	16.2	17.7	16.9
할머니	1.0	2.4	1.7
할아버지	.6	.4	.5
기타	12.3	6.0	9.1
전체	100.0	100.0	100.0

 $\chi^2=46.287, df=5, p<.001$

다음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30>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정도

	빈도	백분율(%)
거의 매일	322	30.4
일주일에 3-4번	285	26.9
일주일에 1-2번	331	31.2
한달에 1-2번	56	5.3
거의 안함	66	6.2
전체	1060	100.0

<표 III-130>을 살펴보면, ‘일주일에 1-2번 정도’ 가족과 함께 식사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31.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0.4%로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3-4번’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26.9%로 나타났다. 즉,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은 평소 가족들과 일주일에 1-2번 내지는 거의 매일 식사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의식에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거주도시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31>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정도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1059)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거의 매일	25.4	31.9	27.1	23.3	37.3	44.2	19.5	27.2	30.4
일주일에3-4번	21.1	31.9	29.7	26.7	28.4	23.3	28.0	23.7	26.8
일주일에1-2번	38.6	23.5	30.5	41.7	27.1	25.0	34.7	33.3	31.3
한달에1-2번	8.8	5.9	7.6	1.7	3.4	2.5	10.2	4.4	5.3
거의 안함	6.1	6.7	5.1	6.7	3.8	5.0	7.6	11.4	6.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59.427, df=28, p<.001$

‘일주일에 1-2번 정도’ 가족과 함께 식사한다고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산이 4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인천이 44.2%, 서울이 37.3%로 타 도시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일주일에 3-4번’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구가 31.9%로 가장 높았다. 최소 일주일에 1-2번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이 92.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92.5%, 부산이 91.6%순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과 인천, 부산의 청소년들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타 도시에 비해 많다고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32>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정도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3)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거의 매일	34.4	26.4	30.4
일주일에 3-4번	27.3	26.6	27.0
일주일에 1-2번	27.0	35.5	31.2
한달에 1-2번	5.2	5.3	5.2
거의 안함	6.1	6.2	6.2
전체	100.0	100.0	100.0

 $\chi^2=11.716$, $df=4$, $p<.05$

<표 III-132>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34.4%의 학생들이 ‘거의 매일’가족과 함께 식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해 여자 청소년들은 26.4%의 학생들이 대답하였다. 또한 ‘일주일에 1-2번’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27.0%, 여자 청소년의 경우 35.5%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에 비해서 남자 청소년들은 가족과 거의 매일 식사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또한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여자 청소년들은 가족과 일주일에 1-2번 정도 식사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다.

다음은 ‘가정생활 중 변화되길 바라는 점’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33> 가정생활 중 변화되길 바라는 점(다중응답)

	빈도	백분율(%)
가족들과의 대화부족	240	20.7
부모님의 권위적인 태도	137	11.8
부모님간의 불화	93	8.0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234	20.2
형제자매간의 갈등	83	7.1
부모님의 공부강요	235	20.2
기타	139	12.0
전체	1161	100.0

<표 III-133>을 살펴보면, ‘가족들과의 대화부족’이 20.7%,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20.2%, 그리고 ‘부모님의 공부강요’ 역시 20.2%로 세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이 가정생활 중에서 변화되길 바라는 점은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정생활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길 바라며, 부모님들이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의식에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거주도시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34> 가정생활 중 변화되길 바라는 점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다중응답)

(단위:%, N=1150)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가족들과의 대화부족	21.6	28.2	20.5	17.8	15.4	19.4	21.9	28.6	20.9
부모님의 권위적인 태도	12.0	13.7	8.3	15.3	12.4	9.3	9.5	15.1	11.9
부모님간의 불화	9.6	8.9	11.4	3.4	6.8	9.3	10.2	5.0	8.0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20.0	12.1	22.0	28.8	19.9	27.9	18.2	14.3	20.3
형제자매간의 갈등	5.6	5.6	9.1	5.1	8.6	7.0	6.6	8.4	7.2
부모님의 공부강요	20.0	21.8	19.7	22.9	21.4	22.5	21.2	12.6	20.4
기타	11.2	9.7	9.1	6.8	15.4	4.7	12.4	16.0	11.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61.959$, $df=42$, $p<.05$

가정생활 중 변화되길 바라는 점이 ‘가족들과의 대화부족’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춘천이 28.6%, 대구가 2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산이 28.8%, 인천이 27.9%로 타 도시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부모님의 공부 강요’라고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춘천이 12.6%로 가장 낮았다. 즉, 춘천과 대구지역의 청소년들은 타 도시에 비해 가족들과 대화를 더 많이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산과 인천지역의 청소년들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길 바라는 청소년들이 많았다. 또한 춘천지역의 청소년들은 타 도시의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님의 공부강요에 대한 스트레스를 비교적 덜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35> 가정생활 중 변화되길 바라는 점 차이 검증 : 성별(다중응답)

(단위:%, N=1154)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가족들과의 대화부족	21.6	19.6	20.6
부모님의 권위적인 태도	11.7	11.9	11.8
부모님간의 불화	8.7	7.4	8.1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18.3	22.2	20.3
형제, 자매간의 갈등	4.5	9.8	7.2
부모님의 공부 강요	23.0	17.6	20.3
기타	12.0	11.5	11.8
전체	100.0	100.0	100.0

$\chi^2=18.837, df=6, p<.01$

‘부모님의 공부 강요’가 가정생활 중 변화되길 바라는 점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은 23.0%, 여자 청소년들은 17.6%의 학생들이 대답하였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18.3%, 여자 청소년의 경우 22.2%가 응답하였다. 또한 ‘형제자매간의 갈등’ 응답비율도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이 두 배 정도 높았다. 즉,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형제자매간의 갈등 상황이 변화되길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부모님이 공부를 강요하시는 태도가 변화되길 바란다고 볼 수 있다.

(3) 학교 문화환경에 대한 의식조사

다음은 ‘나는 현재 나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만족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36> 학교생활 만족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133	12.5
아니다	210	19.7
보통이다	401	37.7
그렇다	240	22.6
매우 그렇다	80	7.5
전체	1064	100.0

<표 III-136>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0.1%였으며, 32.2%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는 대답을 하였다. 또한 37.7%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자신의 현재 학교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비율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거주도시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37> 학교생활 만족도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1063)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전혀 아니다	20.0	9.2	19.3	3.3	8.5	17.5	11.7	14.8	12.5
아니다	19.1	21.0	21.0	6.7	17.9	22.5	21.7	30.4	19.8
보통이다	36.5	39.5	37.0	50.0	37.9	29.2	39.2	31.3	37.6
그렇다	13.0	26.9	16.0	36.7	25.5	22.5	18.3	18.3	22.6
매우 그렇다	11.3	3.4	6.7	3.3	10.2	8.3	9.2	5.2	7.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84.300$, $df=28$, $p<.001$

<표 III-137>을 살펴보면, 거주도시별로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해

서 만족한다는 질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춘천의 경우 45.2%, 인천의 경우 40.0%의 청소년들이 ‘전혀 아니다’ 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이는 8개 도시 중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반면 부산의 경우 40.0%, 서울의 경우 35.7%의 청소년들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8개 도시 중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즉, 춘천과 인천지역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현재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반면에, 부산과 서울지역의 청소년들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자신의 현재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의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학교 선생님은 언제나 권위적으로 대하신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38> 선생님의 권위적 태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113	10.6
아니다	150	14.1
보통이다	419	39.4
그렇다	311	29.2
매우 그렇다	71	6.7
전체	1064	100.0

<표 III-138>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5.9%였으며, 24.7%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는 대답을 하였다. 또한 39.4%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학교의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에게 권위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비율보

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거주도시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표 III-139>에 제시된 바와 같다. 대구의 경우 34.5%의 청소년들이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이는 8개 도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반면 제주의 경우 43.3%, 부산의 경우 41.7%의 청소년들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8개 도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즉, 대구지역의 청소년들은 선생님이 청소년들에게 권위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많은 반면에, 제주와 부산지역의 청소년들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선생님이 청소년들에게 권위적으로 대한다고 의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39> 선생님의 권위적 태도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1063)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전혀 아니다	14.0	20.2	13.4	5.0	7.6	10.8	8.3	8.7	10.6
아니다	9.6	14.3	16.8	11.7	14.4	18.3	7.5	20.0	14.1
보통이다	43.9	37.8	36.1	41.7	39.4	34.2	40.8	40.9	39.3
그렇다	21.9	23.5	27.7	34.2	33.1	28.3	37.5	23.5	29.3
매우 그렇다	10.5	4.2	5.9	7.5	5.5	8.3	5.8	7.0	6.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46.574$, $df=28$, $p<.05$

이 문항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표 III-14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29.6%의 청소년들이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에 대해 19.6%의 청소년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여자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을 권위적으로 대한다고 의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40> 선생님의 권위적 태도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7)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 아니다	13.0	8.3	10.6
아니다	16.6	11.3	13.9
보통이다	35.3	43.7	39.5
그렇다	28.2	30.2	29.2
매우 그렇다	6.9	6.6	6.7
전체	100.0	100.0	100.0

$\chi^2=16.100$, $df=4$, $p<.01$

다음은 ‘학교 선생님은 나를 차별하는 것 같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41> 선생님의 차별정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94	8.8
아니다	97	9.1
보통이다	380	35.7
그렇다	380	35.7
매우 그렇다	114	10.7
전체	1065	100.0

<표 III-141>을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수의 18.9%의 학생들만이 선생님이 자신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6.4%의 청소년들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는 응답을 하였으며,

35.7%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즉, 선생님이 자신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비율보다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인식차이도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42> 선생님의 차별 정도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8)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 아니다	8.8	8.8	8.8
아니다	5.9	12.2	9.1
보통이다	35.8	35.5	35.6
그렇다	35.6	36.0	35.8
매우 그렇다	13.9	7.5	10.7
전체	100.0	100.0	100.0

$\chi^2=21.699$, $df=4$, $p<.001$

<표 III-142>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자신을 차별한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특히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49.5%의 청소년들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에 대해 43.5%의 청소년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에 비해서 남자 청소년들이 학교 선생님은 자신을 차별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나는 평소 선생님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43> 선생님과의 대화정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233	21.9
아니다	417	39.2
보통이다	337	31.7
그렇다	60	5.6
매우 그렇다	16	1.5
전체	1063	100.0

<표 III-143>을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수의 7.1%만이 선생님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1.1%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으며, 31.7%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과반수(61.1%)의 청소년들은 평소 선생님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지역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었다. 그 결과는 <표 III-1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55.2%의 학생들이 ‘전혀 아니다’ 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에 대해 67.0%의 학생들이 대답하였다. 즉,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여자 청소년들이 평소 선생님과 대화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44> 선생님과의 대화정도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6)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 아니다	19.6	24.3	22.0
아니다	35.6	42.7	39.2
보통이다	35.2	28.2	31.7
그렇다	7.4	3.8	5.6
매우 그렇다	2.1	.9	1.5
전체	100.0	100.0	100.0

 $\chi^2=18.770$, $df=4$, $p<.01$

다음은 ‘나는 우리학교가 자랑스럽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 III-145> 학교가 자랑스러운 정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135	12.7
아니다	199	18.7
보통이다	450	42.4
그렇다	189	17.8
매우 그렇다	89	8.4
전체	1062	100.0

<표 III-145>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6.2%였으며, 31.4%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는 대답을 하였다. 또한 42.4%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학교가 아주 자랑스럽지도, 그렇다고 아주 자랑스럽지도 않은,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거주도시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46> 학교가 자랑스러운 정도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1061)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전혀 아니다	16.5	17.6	11.9	.8	17.8	13.4	5.9	13.0	12.7
아니다	16.5	19.3	17.8	15.0	22.0	20.2	9.2	26.1	18.7
보통이다	34.8	42.9	41.5	48.3	39.4	47.1	41.2	47.0	42.4
그렇다	20.0	14.3	19.5	29.2	16.1	12.6	24.4	7.8	17.8
매우 그렇다	12.2	5.9	9.3	6.7	4.7	6.7	19.3	6.1	8.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89.276$, $df=28$, $p<.001$

<표 III-146>을 살펴보면, 거주도시별로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자랑스럽다는 질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볼 때, 전반적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그렇지 않거나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비율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청소년들과 자랑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서울의 경우 39.8%, 춘천의 경우 39.1%의 청소년들이 ‘전혀 아니다’ 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하였다. 한편, 제주의 경우 43.7%의 청소년들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과 춘천지역의 청소년들은 타 도시에 비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자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으며,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표 III-147> 학교가 자랑스러운 정도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5)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 아니다	14.7	10.7	12.7
아니다	17.6	20.1	18.9
보통이다	35.9	48.9	42.5
그렇다	20.3	15.2	17.7
매우 그렇다	11.5	5.1	8.2
전체	100.0	100.0	100.0

$\chi^2=31.472$, $df=4$, $p<.001$

<표 III-147>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31.8%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에 대해 20.3%의 학생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에 비해서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학교를 자랑스러워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나는 우리학교의 교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48> 학교 교칙에 대한 인지정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56	5.3
아니다	144	13.5
보통이다	442	41.5
그렇다	297	27.9
매우 그렇다	126	11.8
전체	1065	100.0

<표 III-148>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9.7%였으며, 18.8%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는 대답을 하였다. 또한 41.5%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학교 교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거주도시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표 III-14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학교 교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그렇지 않거나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비율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칙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과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광주의 경우 25.2%, 춘천의 경우 23.5%의 청소년들이 ‘전혀 아니다’ 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하였다. 한편, 제주의 경우 49.2%의 청소년들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광주와 춘천지역의 청소년들은 타 도시에 비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 교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으며,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III-149> 학교 교칙에 대한 인지정도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1064)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전혀 아니다	10.4	5.0	5.0	1.7	4.2	6.7	3.3	7.0	5.3
아니다	14.8	15.1	14.3	5.8	14.4	13.3	13.3	16.5	13.5
보통이다	42.6	36.1	42.0	45.8	40.7	49.2	34.2	42.6	41.5
그렇다	20.0	33.6	25.2	38.3	26.7	23.3	26.7	29.6	27.8
매우 그렇다	12.2	10.1	13.4	8.3	14.0	7.5	22.5	4.3	11.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54.303$, $df=28$, $p<.01$

이 문항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50> 학교 교칙에 대한 인지정도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8)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 아니다	9.0	1.5	5.2
아니다	14.7	12.6	13.6
보통이다	35.0	47.7	41.4
그렇다	26.5	29.5	28.0
매우 그렇다	14.9	8.8	11.8
전체	100.0	100.0	100.0

 $\chi^2=48.261$, $df=4$, $p<.001$

<표 III-150>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41.4%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에 대해 38.3%의 학생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에 비해서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의 교칙에 대해서 잘 알

고 있다고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나는 우리학교의 교칙제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은 <표 III-1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청소년수의 7.6%의 학생들만이 학교의 교칙제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6.8%의 청소년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으며, 15.5%의 청소년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대다수의 청소년들(76.8%)은 학교의 교칙제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III-151> 학교 교칙 제정 참여정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425	40.0
아니다	391	36.8
보통이다	165	15.5
그렇다	50	4.7
매우 그렇다	31	2.9
전체	1062	100.0

이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거주도시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52> 학교 교칙 제정 참여정도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

(단위:%, N=1061)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전혀 아니다	45.2	42.0	33.9	31.7	37.9	44.2	41.7	45.6	40.0
아니다	32.2	37.8	30.5	34.2	40.0	45.0	33.3	38.6	36.9
보통이다	17.4	16.8	21.2	25.0	14.0	8.3	14.2	8.8	15.6
그렇다	3.5	1.7	8.5	6.7	5.1	2.5	5.0	4.4	4.7
매우 그렇다	1.7	1.7	5.9	2.5	3.0		5.8	2.6	2.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49.451$, $df=28$, $p<.01$

<표 III-152>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교칙제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보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특히 인천의 경우 89.2%의 청소년들이 ‘전혀 아니다’ 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이는 8개 도시 중 교칙제정 참여율이 가장 낮았다. 반면 대전지역의 경우에는 14.4%의 청소년들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8개 도시 중 교칙제정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즉, 인천지역의 청소년들은 타 도시에 비해서 교칙제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많았으며, 대전지역의 청소년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 교칙 제정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53> 학교 교칙 제정 참여정도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055)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 아니다	48.0	32.0	39.9
아니다	31.4	42.5	37.0
보통이다	13.2	17.9	15.5
그렇다	4.2	5.3	4.7
매우 그렇다	3.3	2.4	2.8
전체	100.0	100.0	100.0

$\chi^2=30.741$, $df=4$, $p<.001$

<표 III-153>을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교칙제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79.4%의 학생들이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에 대해 74.5%의 학생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에 비해서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교칙제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학교생활 중에서 변화되길 바라는 점’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 III-154> 학교생활 중 변화되길 바라는 점(다중응답)

	빈도	백분율(%)
체벌	131	10.0
선생님의 권위적인 태도	178	13.7
학업에 대한 압박	427	32.7
학교시설의 낙후, 부족	238	18.3
친구들과의 갈등	60	4.6
미흡한 동아리 활동	139	10.7
기타	131	10.0
전체	1304	100.0

<표 III-154>를 살펴보면, ‘학업에 대한 압박’이 32.7%로 다른 항목에 비해 응답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또한, ‘학교시설의 낙후, 부족’이 18.3%, 그리고 ‘선생님의 권위적인 태도’가 13.7%로 그 뒤를 이었다. 즉,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중에서 가장 변화되길 바라는 점은 역시 학업과 관련된 중압감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시설이 좀 더 발전되길 바라고 있었으며,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에게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의식에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거주도시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55> 학교생활 중 변화되길 바라는 점 차이 검증 : 거주도시별(다중응답)

(단위:%, N=1303)

	거주도시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춘천	
체별	7.1	17.0	9.7	9.4	13.7	6.7	6.8	6.0	10.1
선생님의 권위적인 태도	10.6	20.0	11.9	13.0	15.0	14.1	13.0	9.0	13.6
학업에 대한 압박	46.1	26.7	38.8	31.9	24.0	31.3	34.9	39.8	32.8
학교시설의 낙후·부족	10.6	11.1	14.2	24.6	22.0	23.3	12.3	22.6	18.3
친구들과의 갈등	9.2	5.2	6.0	4.3	3.2	2.5	5.5	3.0	4.6
미흡한 동아리 활동	6.4	6.7	13.4	10.9	12.5	9.2	15.1	9.0	10.7
기타	9.9	13.3	6.0	5.8	9.6	12.9	12.3	10.5	1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96.403, df=42, p<.001$

학교생활 중 변화되길 바라는 점이 ‘학업에 대한 압박’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광주가 4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학교시설의 낙후, 부족’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산이 24.6%, 인천이 23.3%, 춘천이 22.6%, 서울이 22.0%로 타 도시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선생님의 권위적 태도’라고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구가 20.0%로 가장 높았다. 즉, 광주지역의 청소년들은 타 도시에 비해 학업에 대한 중압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바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산과 인천, 서울, 춘천지역의 청소년들은 학교 시설이 좀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청소년들이 많았다. 또한 대구지역의 청소년들은 타 도시의 청소년들에 비해 선생님의 권위적인 태도가 변화되길 바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56> 학교생활 중 변화되길 바라는 점 차이 검증 : 성별

(단위:%, N=1296)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체벌	15.5	3.9	10.0
선생님의 권위적인 태도	15.2	12.1	13.7
학업에 대한 압박	28.0	38.0	32.7
학교시설의 낙후·부족	14.0	23.2	18.4
친구들과의 갈등	3.5	5.6	4.5
미흡한 동아리 활동	11.4	9.7	10.6
기타	12.4	7.5	10.1
전체	100.0	100.0	100.0

 $\chi^2=81.454$, $df=6$, $p<.001$

‘학업에 대한 압박’이 학교생활 중 변화되길 바라는 점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은 28.0%, 여자 청소년들은 38.0%의 학생들이 대답하였다. 또한 ‘학교시설의 낙후, 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14.0%, 여자 청소년의 경우 23.2%가 응답하였다. 또한 ‘체벌’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들이 네 배 정도 높았다. 즉,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학업에 대한 압박감을 더 느끼며 학교 시설이 좀 더 발전되고 좋아지길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체벌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볼 수 있다.

(4) 일원변량분석, t검증 결과분석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에 따라 문화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거지역 문화환경·가족 문화환

경·학교 문화환경에 관한 5점 척도 문항들을 합산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일원변량분석과 t검증을 실시해 보았다. 문화환경의 하위변인 문항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157> 문항구성 내용

구분	문항수	문항 구성
주거지역 문화환경	12	34문항~45문항
가족 문화환경	10	46문항~55문항
학교 문화환경	7	56문항~62문항

*57번, 58번 문항은 역채점

먼저, ‘거주도시’에 따라 청소년 문화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거주도시에 따른 청소년 문화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 차이를 살펴보면, <표 III-15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거지역 문화환경($F=4.222, p<.001$)과 학교 문화환경($F=5.799,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거지역 문화환경에 대한 의식에서는 제주($M=31.65$)와 춘천($M=31.19$)지역 청소년들의 평균이 비교적 높았으며, 인천($M=27.68$)지역 청소년들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또한 학교 문화환경에서는 부산($M=21.20$)지역 청소년들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M=18.81$), 대구($M=18.97$), 인천($M=19.24$), 춘천($M=18.87$)지역의 청소년들의 평균이 비교적 낮았다. 즉, 제주와 춘천의 청소년들은 타 도시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주거지역 문화환경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반면에, 인천의 청소년들은 주거지역에 대한 의식이 가장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산의 청소년들은 타 도시의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 문화환경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반면에, 광주와 대구, 인천, 춘천의 청소년들은 비교적 부정적으로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58> 거주도시에 따른 문화환경에 대한 의식 차이

구분	거주도시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Duncan 검증	F값
주거지역 문화환경 (N=1019)	광주	109	29.17	8.35	bc	4.222***
	대구	115	28.46	6.23	bc	
	대전	111	29.85	7.09	ab	
	부산	110	29.25	6.73	bc	
	서울	226	30.03	6.93	ab	
	인천	119	27.68	6.36	c	
	제주	117	31.65	6.90	a	
	춘천	112	31.19	7.06	a	
학교 문화환경 (N=1054)	광주	114	18.81	4.25	c	5.799***
	대구	118	18.97	3.75	c	
	대전	116	19.61	4.05	bc	
	부산	120	21.20	3.25	a	
	서울	234	19.84	3.59	bc	
	인천	119	19.24	4.23	c	
	제주	119	20.52	4.31	ab	
	춘천	114	18.87	3.75	c	

***p<.001

다음은 '성별'에 따라 청소년 문화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59> 성별에 따른 주거지역 문화환경에 대한 의식 차이

성별	사례수	주거지역 문화환경		t값
		평균	표준편차	
남자	500	30.69	7.69	4.508***
여자	514	28.71	6.19	

***p<.001

<표 III-159>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주거지역 문화환경($t=4.058$, $p<.001$)에서 학생들의 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M=30.69$)이 여자 청소년($M=28.71$)보다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주거지역 문화환경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한달 용돈’에 따라 문화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별 차이를 보기 위해 사후검증으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60> 한달 용돈에 따른 가족 문화환경에 대한 의식 차이

한달용돈	사례수 (N=1044)	가족 문화환경		Duncan 검증	F값
		평균	표준편차		
3만원 미만	365	29.93	6.64	b	3.461*
3이상-5만원 미만	401	30.66	6.24	b	
5이상-7만원 미만	150	30.91	7.38	ab	
7만원 이상	128	32.06	6.81	a	

* $p<.05$

한달 용돈에 따른 문화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 차이를 살펴보면, <표 III-16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 문화환경($F=3.46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 간의 차이를 Duncan의 사후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한달 용돈이 7만원 이상인 청소년들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5만원 미만을 받는 청소년들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즉, 한달 용돈을 7만원 이상 받는 청소년들은 이보다 적게 받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가족 문화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주말 여가시간’에 따라 문화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으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61> 주말 여가시간에 따른 문화환경에 대한 의식 차이

구분	주말 여가시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Duncan 검증	F값
주거지역 문화환경 (N=1016)	2시간 미만	52	29.06	7.97	ab	2.975*
	2-4시간	190	30.78	7.16	a	
	4-6시간	284	30.25	6.94	ab	
	6-8시간	188	29.18	6.79	ab	
가족 문화환경 (N=1045)	8시간 이상	302	28.88	6.91	b	5.432***
	2시간 미만	52	30.31	7.49	ab	
	2-4시간	206	31.38	7.42	a	
	4-6시간	289	31.52	6.31	a	
	6-8시간	190	30.52	5.72	ab	
	8시간 이상	308	29.24	6.59	b	

*p<.05, ***p<.001

주말 여가시간에 따른 청소년 문화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 차이를 살펴보면, <표 III-16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거지역 문화환경(F=2.975, p<.05)과 가족 문화환경(F=5.432,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 간의 차이를 Duncan의 사후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주거지역 문화환경의 경우 주말 여가시간이 2-4시간인 청소년들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8시간 이상인 청소년들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또한 가족 문화환경의 경우 주말 여가시간이 2-4시간인 청소년들과 4-6시간인 청소년들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8시간 이상인 청소년들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즉, 주말 여가시간이 많은 청소년들의 경우 주거지역 문화환경과 가족 문화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 문화환경 지역조사

다음은 전국 8개 주요 대도시의 9개 대표적 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이다. 시설 및 업소 수치는 조사 시기(2004년 6월~8월)를 기준으로 정리되었다.

1) 서울

(1) 강남지역 : 코엑스몰

서울 강남지역의 청소년들이 평소 소비 및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가장 자주 가는 지역으로 나타난 코엑스몰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동양최대의 지하 쇼핑공간이다. 젊은이들에게 건전한 놀이와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곳은 공간시설이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테마별(밀레니엄 광장, 산마루길, 수풀길, 폭포길, 호수길, 계곡길, 강변길, 열대길, 바다길, 아셈광장)로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지하철 2호선과 바로 맞닿아 있어 접근성이 편리하며, 주변에 백화점과 호텔, 터미널, 무역센터가 근접해 있어 유동인구가 대단히 많은 편이다.

코엑스몰은 청소년들만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쉽게도 한 곳도 없었으나,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 있는 시설 수는 단층임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쇼핑공간답게 176개에 이르렀다. 반면, 청소년 출입금지시설(성인 전용시설)의 수는 5개로 나타났다. 이중 4곳은 술집(호프집)이었으며, 나머지 한 곳은 비디오방이었다.

청소년들의 출입이 가능한 시설들을 살펴보면, 음식점(훤밀리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스파게티전문점, 아이스크림 가게, 베이커리

등), 커피전문점, 옷가게, 신발가게, 스포츠용품점, 편의점, 화장품 가게, 서점, 팬시점(악세서리 가게, 선물가게, 완구점 등), 안경점, 이동통신 대리점, 편의점, 은행, 꽃집, 사진관, 미용실, 스킨케어샵(네일샵), 병원, 약국, 극장, 노래방, PC방, 오락실, 수족관 등으로 총 28종류의 시설들이 있었다.

동종 업종간의 집중도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예를 들면 계곡길과 호수먹거리마당, 아셈먹거리마당은 주로 식당이 밀집해 있었으며, 강변길은 옷가게들이 주를 이루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의 독자성 또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성인 전용시설의 종류가 극히 적은 것(178곳 중 5곳)도 한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의 이벤트 코트나 외부와 연결된 아셈광장에서 문화, 예술 공연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기는 하나,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무료로 활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공간은 전체 시설 수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다.

코엑스몰의 가장 큰 특색은 거리마다 고유한 이름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산마루길, 수풀길, 폭포길, 호수길, 계곡길, 강변길, 열대길 등으로 각각의 거리마다 테마를 가지고 공간을 구성하였다. 코엑스몰로 들어서는 입구에 대형 표지판과 지도를 벽면에 부착하여 전체 공간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도왔으며,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지점과 갈림길마다 이정표와 함께 현재 위치가 표시된 표지판을 두어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었다.

코엑스몰은 거리마다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각각의 거리마다 고유의 색상을 가지고 보조 간판을 구성한 것도 큰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산마루길은 연두색, 호수길은 하늘색, 폭포길은 보라색, 바다길은 파랑색 등으로 거리별로 보조 간판에 고유색상을 부여하여 통일성을 나타내었다.

간판의 분포 유형을 살펴보면, 메인간판의 경우 혼합 개별형의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며, 보조 간판의 경우 모두 통일 개별형의 형태였다. 주요 간판의 유형은 평면형 대/중형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간판의 주요 색상은 주로 빨강, 파랑, 초록과 같은 원색바탕에 흰색 글씨 또는 이와 반대로 흰 바탕에 원색 글씨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광고판의 유형을 살펴보면 현수막 형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건물 부착 평면 광고판이 주종을 이루었다. 또한 실내 특성 상 TV/전광판을 통한 동영상 광고도 눈에 띄었다.

상호명의 경우 대부분의 상점들이 외래어/외국어 상호명(165곳)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국어 상호명(18곳)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외국어 표기를 병행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길거리 청결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청결한 편으로 쓰레기통이 거리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수시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거리 청결 유지에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또한 환경미화원들이 자동화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바닥을 쓸고 다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인도 통행 편리성 정도는 노점으로 인해 통행을 방해받거나 도로 폭이 협소하다거나 하는 등의 불편이 없는 관계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교통 편리성 부분을 살펴보면, 앞서 기술한 바대로 지하철 2호선이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며 버스노선수도 다양하였다. 또한 코엑스몰은 내부시설공간이기 때문에 공중 화장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화장실의 청결정도는 높은 편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시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62> 서울(강남) - 코엑스몰

구성요소	구분	내용	
공공성	청소년 전용시설 수	총 (0)개	
	청소년 출입가능 시설 수	총 (178)개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 수	총 (5)개	
다양성	청소년 시설의 종류	총 (28)종류	
체계성	동종 업종간의 집중도	매우 높음	
	청소년 공간 또는 시설의 독자성	매우 높음	
	거리 이름 유무	있음	
	거리 위치	시내 중심/지하	
창의성	거리 표지판	거리 소개 표지판 유무	있음
		거리 표지판 유형	도로 표지판 형태
		거리 표지판 위치, 분포	거리가 시작되는 지점과 갈림길
	간판	주요 간판 분포 유형	혼합 개별형
		주요 간판 유형	건물 부착형
		주요 색상	혼재
	주요 광고판 유형	건물부착 평면형	
	주요 상호명 종류	외래어/외국어	
	길거리 청결정도	매우 높음	
	인도 통행 편리성 정도	높음	
	교통 편리성	매우 높음	
	공중화장실	유무	있음
		청결정도	높음
길거리 보행자 전용 유무	항시 보행자 전용		
역사적조건	역사적 문화환경의 존재 및 분포	없음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코엑스몰은 철저한 소비,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시설과 쾌적한 공간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았으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가격이 비싼 것이 흠이었다. 그러나 한 공간 안에서 소비와 문화를 위한 모든 활동, 즉 먹고 마시고 영화보고, 게임하고, 쇼핑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평소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에게는 상당한 매력이 아닐 수 없다.

(2) 강북지역 : 노원역

서울 강북지역의 청소년들이 평소 소비 및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가장 자주 가는 지역으로 나타난 노원역 주변은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 주변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고층건물과 상가들이 밀집해 있다. 노원역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이 지나가는 환승구간으로 먼저 7호선 출입구 주변을 살펴보면, 7번 출구방향으로 성인 전용시설(나이트클럽, 모텔, 여관,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가라오케 등)이 밀집해 있으며, 6번 출구 방향으로는 주로 금융권 회사들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4번 출구방향으로 대형 백화점이 있으며, 백화점 뒤편으로 해서 4호선 출입구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다. 4호선 출입구 주변을 살펴보면 환승구간이 고가로 연결되어 있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인상을 준다. 또한 다리 밑 도로에는 노점이 인도를 점령하다시피 준비해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길거리가 매우 지저분하고 역주변이라 소음도 매우 심했다. 고가 도로 양쪽으로 고층건물과 상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으며 노래방과 PC방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눈에 띄었고, 성인시설도 자주 보여 청소년들에게 그다지 건전한 환경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지역으로 조사된 4호선 9번 출입구 방면의 노원역 2길 구역을 조사지표에 따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63> 서울(강북) - 노원역

구성요소	구분	내용	
공공성	청소년 전용시설 수	총 (0)개	
	청소년 출입가능 시설 수	총 (102)개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 수	총 (26)개	
다양성	청소년 시설의 종류	총 (23)종류	
체계성	동종 업종간의 집중도	보통	
	청소년 공간 또는 시설의 독자성	낮음	
	거리 이름 유무	있음	
	거리 위치	외곽/지상	
창의성	거리 표지판	거리 소개 표지판 유무	있음
		거리 표지판 유형	도로 표지판 형태
		거리 표지판 위치, 분포	시작되는 지점
	간판	주요 간판 분포 유형	혼재(통일개별형+ 혼합개별형)
		주요 간판 유형	건물 부착형
		주요 색상	혼재
	주요 광고판 유형	없음	
	주요 상호명 종류	외래어/외국어	
	길거리 청결정도	매우 낮음	
	인도 통행 편리성 정도	낮음	
	교통 편리성	매우 높음	
	공중화장실	유무	없음
		청결정도	-
길거리 보행자 전용 유무	보행자 전용 아님		
역사적조건	역사적 문화환경의 존재 및 분포	없음	

노원역 역시 코엑스몰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만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한 곳도 없었다. 이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출입이 가능한 시설의 수는 모두 102곳이었으며, 출입이 금지되는 성인 전용 시설의 수는 26곳이었다. 이 중 7곳은 비디오방이었으며, 1곳은 성인전 화방, 나머지는 모두 술집이었다.

청소년들의 출입이 가능한 시설들을 살펴보면, 음식점, 옷가게, 화장품 가게, 팬시점, PC방, 병원, 이동통신 대리점, 사진관, 노래방, 미용실, 당구장, 편의점, 게임방(보드게임, 오락실), 부동산, 사우나, 스포츠

센터, 만화방, 학원, 은행 등으로 총 23종류의 시설들이 있었다.

동종 업종간의 집중도는 보통인 편으로 음식점들이 몰려있기도 한 반면에, 한 건물에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이 분포해 있는 경우도 많았다. 청소년 공간 또는 시설의 독자성은 낮은 편으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가능한 시설들이 성인 전용시설들과의 특정한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청소년들만의 독자적인 공간은 한 곳도 없었다. 도로 표지판과 같은 형태로 녹색바탕에 흰 글씨로 거리 이름이 써진 거리 표지판이 있었으나, 시선이 잘 미치지 않는 곳에 있어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주요 간판의 분포 유형을 살펴보면 혼합 개별형이 많았으며, 고층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외관에 개별적으로 상점마다 간판을 부착함과 동시에 건물로 들어서는 입구에 통일개별형의 형태로 간판을 제시한 경우도 많았다. 주요 간판 유형은 건물 부착 평면형이 대부분이었으며, 크기는 대/중/소형이 혼재되어 있었다. 간판에 이용되는 색상은 일반적으로 눈에 잘 띄는 선명한 원색 계통(빨, 노, 파)과 흰색, 검은색 등이 많았고, 상호명의 경우 외래어/외국어가 대부분(전체 128곳 중 98곳)이었다.

길거리 청결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저저분한 편이었으며, 호객꾼들에 의한 전단지 유포로 인해 길거리 여기저기에 광고지들이 널려 있었다. 인도 통행 편리성 정도를 살펴보면 낮은 편으로, 거리 폭이 협소한 편은 아니었지만 상점 앞에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들과 이동하는 차량들로 인해 이용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었으며, 노점상들 또한 도로 한 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통은 지하철 4, 7호선이 연결되어 있어 매우 편리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은 한 곳도 없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노원역 주변은 성인 전용시설과 청소년 출입가능시설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의류매장들과 음식점, 노래방, PC방이 대단히 많은 것이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년들을 위한 자구책으로 청소년들의 출입을 불가한다는 금지 마크가 표시되어 있거나 노래방의 경우 청소년 전용실을 갖춘 경우도 눈에 띄는 점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전체 시설에 비하면 상당히 미비한 수준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2) 인천 : 주안역

인천지역의 청소년들이 평소 소비 및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가장 자주 가는 지역으로 나타난 주안역 일대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곳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시설이 뿔뿔하게 밀집해 있는 레드 존이다. 이곳은 지상과 지하가 이분적으로 시설 면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즉, 주안역 지하상가는 주로 옷, 신발, 악세서리, 팬시점 등 주로 패션을 중심으로 구매를 요하는 상점들이 즐비한 반면에 지상으로 가면 술집, 음식점, 노래방, 극장, PC방 등 놀거리 위주의 상점들이 밀집해 있다. 지상에 횡단보도나 육교가 거의 없는 관계로 주로 지하도를 이용하여 통행을 하기 때문에 지하상가는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편이다. 지하철 1호선 주안역을 빠져나와 지하도 5번 출구로 나오게 되면 이공삼공 2거리가 나온다. 이공삼공 거리(이공삼공 1거리와 2거리의 통칭)는 20~30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들이 대부분이나,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공삼공2거리와 한 블록 떨어져 있는 이공삼공1거리는 모텔과 호텔, 성인 게임방, 휴게텔, 여관 등의 성인시설과 숙박업소들이 밀집해 있으며, 주안역사 앞 쪽의 큰길 건너편은 입시 학원이 있어 중·고등학생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지역으로 조사된 이공삼공2거리 구역을 조사지표에 따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64> 인천 - 주안역

구성요소	구분		내용
공공성	청소년 전용시설 수		총 (0)개
	청소년 출입가능 시설 수		총 (98)개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 수		총 (86)개
다양성	청소년 시설의 종류		총 (12)종류
체계성	동종 업종간의 집중도		매우 높음
	청소년 공간 또는 시설의 독자성		매우 낮음
	거리 이름 유무		있음
	거리 위치		시내중심/지상
창의성	거리 표지판	거리 소개 표지판 유무	있음
		거리 표지판 유형	도로 표지판 형태
		거리 표지판 위치, 분포	시작되는 지점
	간판	주요 간판 분포 유형	혼재
		주요 간판 유형	건물 부착 대형
		주요 색상	빨강
	주요 광고판 유형		없음
	주요 상호명 종류		외래어/외국어
	길거리 청결정도		매우 낮음
	인도 통행 편리성 정도		매우 낮음
	교통 편리성		매우 높음
	공중화장실	유무	없음
		청결정도	-
길거리 보행자 전용 유무		보행자 전용 아님	
역사적조건	역사적 문화환경의 존재 및 분포		없음

먼저 청소년 전용시설 수를 살펴보면, 이 곳 역시 청소년들만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한 곳도 없었다. 이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출입이 가능한 시설의 수는 모두 98곳이었으며, 출입이 금지되는 성인 전용시설의 수는 86곳에 이르렀다.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전체 86곳 중 5곳은 비디오방이었으며, 모텔, 남성전용휴게방, 나이트클럽, 성인게임방이 각각 1곳씩 모두 4곳이었으며, 나머지 77곳은 모두 술집이었다.

청소년들의 출입이 가능한 시설들을 보면 음식점, PC방, 미용실, 노래방, 게임방, 당구장, 만화방, 편의점, 이동통신 대리점, 사진관, 탁

구장, 부동산으로 총 12종류의 시설들이 있었다.

동종 업종간의 집중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건물마다 지하-노래방, 지상-술집의 구조가 많았다. 다른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의류매장이 지상에는 한 곳도 없이 모두 지하상가에 밀집해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거리 표지판이 도로 표지판과 같은 형태로 녹색바탕에 흰 글씨로 써져 있었으며, 이공삼공2거리를 들어서면서 받은 강한 인상은 간판들이 대단히 위압적이라는 점이다. 거리 폭이 매우 협소한데다가 건물은 높고, 그 건물을 거의 뒤덮다시피하는 간판들의 난립 현상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색상 또한 빨간색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력에 자극을 주었으며, 미관 상 보기도 좋지 않았다. 주요 간판의 분포 유형은 건물 외관의 혼합 개별형과 건물 내부의 통일 개별형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간판 유형은 건물 부착 대형이 주를 이루었다. 상호명은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전체 184곳 중 136곳)가 많았다.

길거리 청결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낮은 편으로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으며, 클럽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전단지를 바닥에 마구 뿌리면서 돌아다니기도 했다. 인도 통행 편리성 정도를 살펴보면 도로 폭이 협소한데다가 길가에 상점 앞 곳곳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반면에 교통 편리성은 매우 높은 편으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인천시 대부분의 버스노선이 주안역을 경유하고 있었다.

술집이 여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주안역에 청소년들이 자주 드나드는 현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여가시간에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건전하게 여가를 즐기기 위해 갈만한 청소년 공간이 없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몇 해 전(1999년)에 발생한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으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 하에 인천시 남구청은 청소년들을 위해 주안역 근처에 청소년미디어 문화센터를 설립하였으나,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인 이곳을 활용하지 않고 성인들을 위한 공간에 출입을 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3) 대전 : 으능정이 거리

대전의 으능정이 거리는 대전역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전역과 으능정이 거리 사이에는 대전의 중심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으능정이 거리 한쪽으로는 중앙로1번가 신지하상가가 대전역부터 길게 위치해 있으며, 대형 의류매장과 각종 음식점, 유흥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대전 최대의 문화환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의 편리성에 의한 접근성도 높은 곳이다. 이 곳은 거리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블록 전체가 으능정이 거리로서 으능정이 1, 2, 3 등의 명칭이 부여되어 있다.

입구에는 대형 아치에 ‘으능정이 문화 거리’ 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 이 곳이 으능정이 거리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사 대상 거리는 전체 으능정이 거리들 중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아치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거리였다.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업소 또는 시설은 총 128개 이며 이 중 청소년 전용시설은 없고, 청소년 출입가능시설은 101개이며, 청소년 출입 금지 시설은 27개 이었다. 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성인 전용시설의 종류는 두 가지로 호프, 소주, 바 등 주점과 비디오방이었다. 이 곳의 청소년 출입가능시설은 총 20가지로 옷가게, 음식점, 팬시, 스포츠용품, 미용실, 신발가게, 피부 및 비만관리(메이크업), 여행사, 부동산, 사진관, 병원, PC방, 금은방, 커피전문점, 통신회사, 편의점, 만화방, 노래방,

당구장, 화장품 가게 등이었다.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동종업종 간의 밀집도 정도는 보통 수준이었으며, 청소년 공간 또는 시설의 독자성은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우 낮음에 포함되었다. 더불어 이 거리는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온 재래시장과 맞닿아 있기는 했지만 이 곳 내부에 역사적 시설이나 대상들이 위치해 있지는 않았다. 거리 자체는 보행자 전용으로 되어 있어 매우 쾌적한 상태로 걸을 수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 공중시설인 화장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거리를 소개하는 표지판은 입구에 대형 아치로 되어 있었으며 곳곳에 각각의 거리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다. 이 곳에서는 TV 옥외전광판이나 현수막 등은 없었지만 각 업소들에서 설치한 광고 간판들이 업소 당 2-3개씩 혼란스럽게 위치해 있었으며, 간판들의 주요 색상은 검정, 노랑, 빨강, 흰색 등 다양한 색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상호명은 총 128개 중 86개가 외래어 또는 외국어식 표기로 되어 있었으며, 42개만이 한국어로 되어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65> 대전 - 으능정이 거리

구성요소	구분	내용	
공공성	청소년 전용시설 수	총 (0)개	
	청소년 출입가능 시설 수	총 (101)개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 수	총 (27)개	
다양성	청소년 시설의 종류	총 (20)종류	
체계성	동종 업종간의 집중도	보통	
	청소년 공간 또는 시설의 독자성	매우 낮음	
	거리 이름 유무	있음	
	거리 위치	시내 중심지	
창의성	거리 표지판	거리 소개 표지판 유무	있음
		거리 표지판 유형	대형 아치/소형
		거리 표지판 위치, 분포	입구/각 거리
	간판	주요 간판 분포 유형	혼합 개별형
		주요 간판 유형	건물 부착형
		주요 색상	혼재
	주요 광고판 유형	없음	
	주요 상호명 종류	외래어/외국어	
	길거리 청결정도	높음	
	인도 통행 편리성 정도	매우 높음	
	교통 편리성	매우 높음	
	공중화장실	유무	없음
		청결정도	-
길거리 보행자 전용 유무	항시 보행자 전용		
역사적조건	역사적 문화환경의 존재 및 분포	없음	

4) 대구 : 중앙로(동성로)

대구의 조사 대상 지역인 동성로 주변은 중앙로 4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대구 백화점이 있고 각종 유흥시설과 소비문화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대구의 가장 중심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성로는 이 지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 편에 광장을 두고 있으며, 백화점, 극장 등과의 연계성도 높아 많은 청소년 및 성인들이 찾는 거리이다. 이 거리는 주변의 다른 거리와 달리 도로가 보행자 중심의 형태로 조성

되어 있는데, 시작되는 곳에는 파출소가 있고 끝나는 곳에는 백화점이 자리하고 있다.

동성로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 전용시설은 다른 지역에서와 동일하게 전무한 실정이며, 대신 청소년 출입가능시설이 124 곳, 성인 전용시설이 17 곳 분포되어 있었다. 성인 전용시설의 경우 대부분은 비디오방이며 호프 등 주점과 나이트클럽도 위치해 있었다. 청소년 출입가능시설의 경우에는 백화점, 악세서리, 옷가게, 음식점, 커피전문점, 노래방, PC방, 오락실, 서점, 병원, 파출소, 부동산, 미용실, 학원, 야외광장 등 약 14가지의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편, 동성로에 위치해 있는 업소들 간의 동종업종 집중도를 보면 보통의 수준으로 전혀 안되어 있지도 않지만 또한 잘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다. 청소년 시설의 독자성을 보면 양편에 야외 광장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보통의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동성로에는 역사적 시설도 없었고 역사적 배경 등을 알리는 조형물 등도 전무한 상태였다. 거리를 소개하는 표지판은 진입 시점에만 일반 도로표지판 형태로 제시되어 있었다. 각 업소를 알리는 간판의 경우 건물의 진입부에 모든 업소를 알리는 집약적 형태로 구성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혼합 개별형, 즉 한 업소 당 2-3개의 간판을 마구잡이식으로 걸어놓은 경우였다. 이 경우 간판 유형은 건물 부착형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입간판도 사용되고 있었다. 간판의 색상은 다양한 색들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였다. 광고판의 경우에는 입식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현수막이나 대형 TV 광고판 등은 없었다.

동성로 거리의 청결 정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였는데, 여기 저기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 상호명의 경우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약 99개였으며, 반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42개 소였다. 동성로라고 명칭되어 있는 거리는 주변의 다른 거

리와 달리 보행자들만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차량이 전혀 없었고 사람들의 교통 접근성 또한 지하철과 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 높았다. 그러나 주변 거리를 합쳐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 등 공공 편의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66> 대구 - 동성로

구성요소	구분	내용	
공공성	청소년 전용시설 수	총 (0)개	
	청소년 출입가능 시설 수	총 (124)개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 수	총 (17)개	
다양성	청소년 시설의 종류	총 (13)종류	
체계성	동종 업종간의 집중도	보통	
	청소년 공간 또는 시설의 독자성	보통	
	거리 이름 유무	있음	
	거리 위치	시내중심지	
창의성	거리 표지판	거리 소개 표지판 유무	있음
		거리 표지판 유형	도로표지판 형태
		거리 표지판 위치, 분포	진입 시점
	간판	주요 간판 분포 유형	혼합개별형
		주요 간판 유형	건물부착형
		주요 색상	혼재
	주요 광고판 유형	입식광고판	
	주요 상호명 종류	외래어/외국어	
	길거리 청결정도	매우 낮음	
	인도 통행 편리성 정도	매우 높음	
	교통 편리성	매우 높음	
	공중화장실	유무	없음
		청결정도	-
길거리 보행자 전용 유무	항시 보행자 전용		
역사적조건	역사적 문화환경의 존재 및 분포	없음	

5) 광주 : 충장로

광주의 조사대상 지역인 충장로는 전남도청 앞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충장로 지역 맞은편은 학원가 및 일반 사무실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또 다른 건너편에는 밀리오레 등 대형 매장과 충금 지하상가가 자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충장로1가, 2가 3가 등의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는 블록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 조사한 거리는 이들 중 충장로라는 명칭이 붙여진, 도청으로부터 밀리오레 방향으로 뻗어 있는 중심거리였다. 충장로 지역은 서점, 우체국으로부터 주점, 쇼핑센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적 시설들이 집약되어 있는 광주 지역의 중심부이다.

<표 III-16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충장로에는 청소년 전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대신 청소년 출입가능시설은 약 180여개, 청소년 출입 금지 시설은 약 18개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 성인 전용시설의 종류는 주로 주점, 비디오방, 댄스장이었으며, 청소년 출입가능시설은 옷가게, 음식점, 커피전문점, 통신회사, 극장, 미용실, 신발가게, 스포츠용품점, 헬스, PC방, 옷수선가게, 피부비만관리, 병원, 백화점, 우체국, 사진관, 금은방, 팬시점, 노래방, 의료기제조상, 꽃가게, 일반 회사, 화장품가게, 부동산, 당구장, 파출소 등 약 26개였다. 동종업종간의 집중도에 있어서는 다소 높은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옷가게와 주점 등의 배치에 있어 구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청소년 전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의 독자성은 매우 낮은 상태로 관찰되었다.

<표 III-167> 광주 - 총장로

구성요소	구분	내용	
공공성	청소년 전용시설 수	총 (0)개	
	청소년 출입가능 시설 수	총 (180)개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 수	총 (18)개	
다양성	청소년 시설의 종류	총 (26)종류	
체계성	동종 업종간의 집중도	높음	
	청소년 공간 또는 시설의 독자성	매우 낮음	
	거리 이름 유무	있음	
	거리 위치	시내중심지	
창의성	거리 표지판	거리 소개 표지판 유무	있음
		거리 표지판 유형	도로표지판 형태
		거리 표지판 위치, 분포	입구
	간판	주요 간판 분포 유형	혼합개별형
		주요 간판 유형	건물부착형
		주요 색상	혼재
	주요 광고판 유형	없음	
	주요 상호명 종류	외래어/외국어	
	길거리 청결정도	높음	
	인도 통행 편리성 정도	보통	
	교통 편리성	매우 높음	
	공중화장실	유무	없음
		청결정도	-
길거리 보행자 전용 유무	보행자전용 아님		
역사적조건	역사적 문화환경의 존재 및 분포	없음	

상기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장로 에는 역사적 시설이나 설치물이 없었다. 거리를 소개하는 표지판의 경우 거리가 시작되는 곳에 도로표지판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었다. 업소들의 간판은 한 업소가 2-3개의 간판을 사용하는 혼합 개별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건물에 부착하는 형태였다. 간판의 색상은 다양한 색들이 혼재된 모습이 있었다. 상호명을 보면, 외래어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약 142개소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56개 정도였다.

한편 길거리 청소 상태는 비교적 잘되어 있는 정도였고, 교통을 이용한 접근성도 매우 높은 상태였다. 그러나 공중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충장로 자체가 오전 10시 이후 차량 통행 제한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차량이 언제나 통행하는 등 인도에서의 보행자통행이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었다.

6) 부산 : 서면

부산 서면의 경우 지역 자체가 매우 광범위한 관계로 현지에서 실시한 관찰자의 객관적 관찰과 상인 및 학생들에 대한 현지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중앙로와 전포로 사이에 위치해 있고 대현지하상가를 접하고 있으며 유디스 태화 백화점이 있는 일명 ‘학원골목’이라는 거리를 구체적 조사대상 거리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부산 최대의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출입이 빈번한 지역이며, 또한 백화점과 밀리오레 등 대형 상점들이 위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리이다. 학원골목과 맞닿은 중앙로 건너편에는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반대편 전포로 방향으로 또 다른 학원가가 들어서 있는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에 있는 서면역은 부산의 지하철 2개 노선이 모두 교차하는 중앙지역이어서 청소년들이 근접하기 용이하고, 대현지하상가에서는 의류와 악세서리 등을 판매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물론, 부산은 인구 4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에서와 같이 청소년 밀집지역이 서면 이외에도 부산대 앞 등 다수 형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설문 결과 이 지역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져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다.

<표 III-168> 부산 - 서면

구성요소	구분	내용	
공공성	청소년 전용시설 수	총 (0)개	
	청소년 출입가능 시설 수	총 (117)개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 수	총 (20)개	
다양성	청소년 시설의 종류	총 (25)종류	
체계성	동종 업종간의 집중도	낮음	
	청소년 공간 또는 시설의 독자성	보통	
	거리 이름 유무	없음	
	거리 위치	시내중심지	
창의성	거리 표지판	거리 소개 표지판 유무	없음
		거리 표지판 유형	없음
		거리 표지판 위치, 분포	없음
	간판	주요 간판 분포 유형	혼합 개별형
		주요 간판 유형	건물 부착형
		주요 색상	혼재
	주요 광고판 유형	없음	
	주요 상호명 종류	외래어/외국어	
	길거리 청결정도	보통	
	인도 통행 편리성 정도	낮음	
	교통 편리성	매우 높음	
	공중화장실	유무	없음
		청결정도	-
길거리 보행자 전용 유무	보행자전용 아님		
역사적조건	역사적 문화환경의 존재 및 분포	없음	

상기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서의 청소년 전용 시설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원을 청소년 전용 시설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학원들이 거리 주변지역에 산재해 있고 속칭 ‘학원골목’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학원은 없었다. 이 지역의 청소년 출입가능시설은 약 117개, 출입 금지 시설은 20개 정도였다. 성인 전용시설의 경우 주로 주점과 비디오방이었으며, 출입가능시설의 종류로는 의류, 약세서리, 음식, 학원, 부동산, 약국, 통신회사, 노래방, PC방, 미용실, 기원, 극장, 전자제품판매업소, 사진관, 오락실, 인쇄소, 꽃집, 슈퍼, 병원, 은행, 주차장 등 약 21개 정

도였다. 이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종업종간의 집중도는 낮은 상태였는데, 청소년 시설의 분리 정도는 학원들이 주변 골목으로 분리되어 있는 등 주변지역까지 보면 보통 정도를 이루고 있었다. 이 거리를 학원 골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곳에 학원들이 많기 때문인데, 이 이름 이외의 특별한 명칭은 없었으며, 거리 소개 표지판도 없었다.

또한 이 거리에는 역사적 시설이나 설치물 역시 없었으며, 업소를 소개하는 간판들은 집약형도 있었지만 혼합 개별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간판의 유형도 건물 부착형이었고 색상은 혼재되어 있었다. 길거리 청결도는 보통이었고 현수막 등 여타 광고판은 없었지만, 길거리 가판들이 자리하고 있고 차량들이 다니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 받는 경우가 많았다. 교통 접근도는 매우 높았지만 공중화장실이 없었고, 상호명의 경우에도 외래어와 외국어 사용이 약 81건, 한국어 사용이 약 56건으로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7) 제주 : 중앙로(칠성통)

제주의 칠성통은 칠성로라고도 불리는 곳으로서 중앙로4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 쪽에는 중앙지하상가가 있고 다른 한편인 바다 방향으로는 탐동 광장 및 놀이공원이 위치해 있다. 중앙지하상가에서는 의류, 악세서리, 신발, 화장품 등을 주로 판매하며 중앙지하상가에서 탐동 광장까지 이어진 칠성통 뒤편과 주변 거리에는 주점, 여관, 호텔 등이 다수 위치해 있다. 탐동 광장에는 놀이공원, 수영장, 극장, 대형할인매장 등이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 인라인스케이트와 농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지 면접 결과에 의하면 칠성통의 상권은 점차 신제주 KBS뒤편 지역이나 시청 후문 등의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

이지만, 이곳 칠성통의 경우 탑동 광장으로 인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찾는 대표적 청소년 밀집지역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이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69> 제주 - 칠성통

구성요소	구분	내용	
공공성	청소년 전용시설 수	총 (0)개	
	청소년 출입가능 시설 수	총 (109)개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 수	총 (34)개	
다양성	청소년 시설의 종류	총 (12)종류	
체계성	동종 업종간의 집중도	낮음	
	청소년 공간 또는 시설의 독자성	낮음	
	거리 이름 유무	있음	
	거리 위치	시내중심지	
창의성	거리 표지판	거리 소개 표지판 유무	없음
		거리 표지판 유형	없음
		거리 표지판 위치, 분포	없음
	간판	주요 간판 분포 유형	혼합 개별형
		주요 간판 유형	건물 부착형
		주요 색상	혼재
	주요 광고판 유형	없음	
	주요 상호명 종류	외래어/외국어	
	길거리 청결정도	높음	
	인도 통행 편리성 정도	매우 낮음	
	교통 편리성	매우 높음	
	공중화장실	유무	없음
		청결정도	-
길거리 보행자 전용 유무	보행자 전용 아님		
역사적조건	역사적 문화환경의 존재 및 분포	없음	

<표 III-169>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칠성통(로)은 탑동 광장이 있기는 하지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리에서만 청소년 전용시설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출입가능시설은 약 109개이며, 성인 전용시설은 약 34개이다. 성인 전용시설의 종류로는 주로 호프, 단란주점 등의 술집과 성인전용오락실 등이 있었고, 청소년 출입가능시

설로는 옷가게, 음식점, 노래방, 악세서리, 화장품, 사진관, 편의점, PC방, 오락실, 미용실, 병원, 극장 등 약 12개 정도가 있었다. 동종업종간의 집중도는 낮은 정도였으며, 청소년 시설의 분리 정도도 매우 낮은 상태였다. 거리 이름은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칠성로, 칠성통 등의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거리를 알리는 소개 표지판도 없었다.

이 곳에서는 현수막 등의 광고판들은 없었지만 역사적 시설이나 설치물들을 찾을 수 없었고, 업소들의 간판들도 건물에 부착되어 2-3개씩 무질서하게 달려 있는 혼합 개별형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간판에 사용된 상호명의 경우 외래어와 외국어로 된 경우는 약 95개 정도였으며, 한국어의 경우에는 약 48개 정도였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달리 제주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상호의 명칭이 매우 특징적이었는데, 예를 들면 ‘아구와 해물들의 모임’, ‘금붕어에 깔린 청개구리’, ‘공룡코딱지노래연습장’, ‘먹을래사갈래’, ‘양땡네’ 등과 같이 한국어를 사용한 독특한 상호들이 다수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칠성통의 거리 청결 정도는 높은 정도였고 교통도 편리했지만 공공화장실이 없었고, 길거리는 언제나 차가 다니고 있는 등 보행자들에게는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8) 춘천 : 명동

춘천의 명동 지역은 재래시장인 중앙시장과 연결되어 있고, 옆으로는 중앙지하상가가 위치해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 곳은 대형상점이나 백화점 등은 없지만 근접한 곳에 극장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며, 특히 중앙지하상가에는 만남의 광장과 청소년들을 위한 댄스연습장 등이 있어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지칭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정 드라마의 해외 인기도 상승으로 인하여 외국인 관광객

들이 또한 많이 찾고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명동 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70> 춘천 - 명동

구성요소	구분	내용	
공공성	청소년 전용시설 수	총 (0)개	
	청소년 출입가능 시설 수	총 (139)개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 수	총 (7)개	
다양성	청소년 시설의 종류	총 (16)종류	
체계성	동종 업종간의 집중도	낮음	
	청소년 공간 또는 시설의 독자성	매우 낮음	
	거리 이름 유무	있음	
	거리 위치	시내 중심지	
창의성	거리 표지판	거리 소개 표지판 유무	있음
		거리 표지판 유형	도로표지판 형태
		거리 표지판 위치, 분포	입구
	간판	주요 간판 분포 유형	혼합 개별형
		주요 간판 유형	건물 부착형
		주요 색상	혼재
	주요 광고판 유형	없음	
	주요 상호명 종류	외래어/외국어	
	길거리 청결정도	매우 높음	
	인도 통행 편리성 정도	매우 높음	
	교통 편리성	매우 높음	
	공중화장실	유무	없음
		청결정도	-
길거리 보행자 전용 유무	항시 보행자 전용		
역사적조건	역사적 문화환경의 존재 및 분포	없음	

<표 III-170>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서 역시 청소년 전용시설은 존재하지 않았다. 청소년 출입가능시설 수는 약 139개 소였으며, 성인 전용시설 수는 약 7개소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성인 전용시설의 종류로는 주로 주점과 비디오방이었으며, 청소년 출입가능 시설에는 옷가게, 음식점, 약세서리, 스포츠용품, 극장, 노래방, 은행, 체육관, 화장품, 커피전문점, 부동산, 신발, 미용실, PC방, 당구장, 일반

회사 등 약 16개 정도였다. 명동 거리에서의 동종업종 간의 집중도는 낮은 편이었는데, 청소년 전용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의 독자성 또한 매우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는 역사적 시설이나 설치물들이 없었고, 거리를 알리는 표지판은 거리의 입구 부분에 일반 도로표지판 형태로 있었다. 거리 곳곳에는 고전 스타일의 가로등과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업소를 알리는 간판의 경우 한 업소가 혼재된 색상의 2-3개의 간판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혼합 개별형이 주였으며, 건물에 부착되어 있었다. 길거리는 전반적으로 매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현수막 등의 광고판은 없었지만 외래어 및 외국어로 된 상호명이 99개, 한국어의 경우가 47개 정도로 외국어와 외래어로 된 간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중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언제나 보행자들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인도 통행성은 매우 쾌적하고 높은 정도였다.

4. 청소년 문화환경의 문제점

이와 같은 조사결과로부터 청소년 문화환경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추론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비통제적 구조화의 문제

조사된 청소년 밀집지역 중 서울의 코엑스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개발 자체가 국가나 민간 기관의 합리적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역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업소의 간판이 서로 다른 형식으로 2-3개 이상 혼란스럽게 걸려 있는 모습, 거리 여기저기에 쓰레기들이 산재해 있는 모습 등 일관된 통제적 구조화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특징이 쉽게 발견되었다. 통제적 구조화가 지나치게 비합리적으로 강한 경우에도 지역의 문화환경 구축 및 발전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역으로 통제적 구조화가 적절한 수준 이하일 경우에도 혼란과 혼재 등의 특성 가중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도시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혼란스러움의 이미지는 바로 이러한 통제성에 기반한 지역 구조화 작업이 적절히 개입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시설과 성인 전용시설간의 혼재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조사지역에서 청소년 사용가능시설과 성인 전용시설간의 혼재가 일반적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인천의 주안역 주변은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찾는 곳이면서도 청소년보호법상 레드존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히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등 두 시설간의 혼재가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여타 지역에서도 비디오방이나 주점 등 성인 전용시설들이 쉽게 관찰되고 있었는데, 이

와 같은 혼재로 인하여 시설들 간의 접근성에 대한 차이가 애매해지고 따라서 청소년들이 성인 전용시설들을 용이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 전용시설의 부재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방문하고 있는 지역을 설문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 지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의 조사지역은 그 도시에 있어 청소년들의 문화적 행위가 가장 빈번히 관찰되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활동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 전체에 있어 청소년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시설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은 도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 전용시설의 공간적 위치와 청소년들의 실질적 문화활동 공간 간의 심각한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에 청소년 전용시설이 없다는 문제는 향후 지역 단위 청소년 문화환경 정책 개발 및 시행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넷째, 청소년 밀집지역에서의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미비

대부분의 조사 대상 지역들에서는 이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축제나 여타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그곳을 찾는 인구 중 청소년 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거리 축제나 기타 프로그램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의 정책적 참여 부재

2003년도에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 정책을 구성할 때 청소년들의 직접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육성과 관계된 전 영역에 있어 청소년의 직접적인 참여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기조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지역 전체에 있어 청소년들이 지역 문화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적 제안을 하고 그것이 수용된 경우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문화환경을 즐기는 주체인 청소년들의 생각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지역 문화환경 정책은 결국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찾는 곳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곳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학교 문화환경의 후진성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 밀집지역에서의 문화환경 뿐만 아니라 가족 문화환경, 주거지역 문화환경, 학교 문화환경 등에 대해서도 의식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들 중 주거지역과 가족 문화환경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주5일제 근무 시행 및 개선되고 있는 여가 정책들의 영향 때문인지 과거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나타냈다. 주거지역에 대한 만족도나, 특히 가족에서의 대화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유독 학교 문화환경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는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낮고 학교를 자랑스러워 하지도 않으며, 교사의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태도와 대화 부족을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학업에 의한 압박감, 시설 낙후, 체벌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타 청소년 문화환경과 비교해 볼 때 학교는 가장 낙후된 청소년 문화환경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정책 제언

1. 비전
2. 청소년 문화환경 개선 정책

IV. 정책 제언

1. 비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화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문화환경 및 청소년 문화환경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행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청소년 문화환경 현지 조사 시 고려되어야 할 대표적 기준 영역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 공공성
- 체계성
- 다양성
- 역사성
- 창의성

청소년 문화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으로부터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5가지 영역에서의 비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문화환경의 정의가 곧 가장 이상적인 청소년 문화환경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5가지 영역에서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기준에 의거하여 청소년 문화환경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비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청소년 밀집지역에서의 청소년 문화환경은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 지역은 청소년들이 자주 그리고 다수 방문하여 문화적 가치를 승화시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든 시설들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과 성인

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유성이 배가된 문화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성이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21세기적 가치는 다양성으로 축약될 수 있다. 다양성은 청소년 및 사회 전체의 문화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밀집지역의 공공성을 높이는 경우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동시에 연계되어진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다양한 청소년 전용시설, 다양한 청소년 출입가능시설 등이 어우러진다면 청소년 밀집지역에서의 청소년 문화환경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육성을 위한 훌륭한 사회문화적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문화환경의 체계적 틀이 갖추어져야 한다.

청소년 문화환경은 청소년이라고 하는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올바른 인성계발, 자아정체성 함양, 사회적 연대성 강화, 문화적 소비자로서의 능력 배양 등을 위한 중요한 토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환경을 대표하는 지역에서의 환경은 그것이 구성되기 전부터 구성 과정, 결과,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청소년의 특성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청소년 문화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 간의 유기적 체계성 또한 중요하며 각 부분들이 청소년들의 발달에 있어 어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체계적 고려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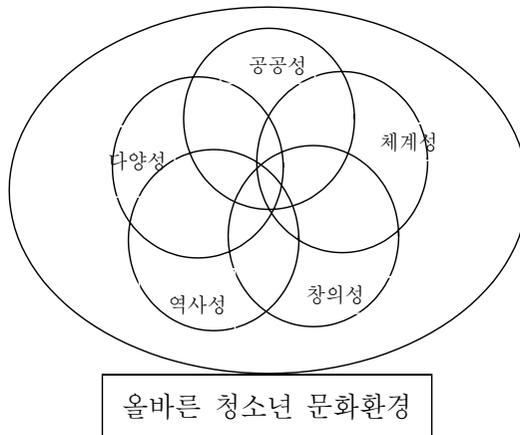
넷째, 지역에 기반한 청소년 문화환경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성이 살아 있어야 한다.

역사성이란 지역 구성원들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서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과 더불어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공동체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된다. 따라서 각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들 청소년 밀집지역들은 각각의 역사를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 문화환경의 구성에 있어 창의성이 개입되어야 한다.

창의성은 곧 앞서 언급한 다양성의 의미와 연계될 수 있는 개념인데, 모든 가능한 꿈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상상력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기발한 거리, 새로운 모습의 가로등 등 풍부한 청소년들의 상상력이 살아 있는 창의성의 거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 문화환경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이상의 5가지 비전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1] 청소년 문화환경 비전

2. 청소년 문화환경 개선 정책

상기 비전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개선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공성 개선을 위한 정책

첫째, 청소년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점, 비디오방, 성인 오락실, 전화방 등 일절의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성인 전용시설)들을 타 지역으로 이전, 배치하여야 한다.

즉,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도시 중앙부 거점의 경우 오래 전부터 위치해 있는 성인전용 업소들이 있는데, 이들을 새롭게 생겨난 신흥 거점 지역이나 여타 지역으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전도록 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전용시설과 청소년 출입가능시설을 증가시켜야 한다.

현재 이들 청소년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들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설정되어 있는 청소년 문화존 등도 이들 청소년 밀집지역과는 다른 곳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록 성인들과 함께 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 이들 청소년 밀집지역의 중심부 또는 근접한 곳으로 청소년수련시설들을 이전해야 하며 청소년 문화존도 이곳으로 재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성인들과 긍정적인 문화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으며 또한 그들만의 전용시설을 통해 그들의 문화적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2) 다양성 개선을 위한 정책

첫째, 청소년 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구장의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의 이미지를 아직도 지니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당구장은 또 하나의 새로운 청소년 시설로서 다양성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듯 이들 지역에 다양한 체육시설, 다양한 먹거리, 다양한 극장 형태(고전영화 상영극장, 추리극 상영극장, 만화 상영극장 등)등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곧 이 지역에서의 청소년 문화환경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적극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청소년 밀집지역에서의 다양성 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 시설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순수한 의미에서의 효과적인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매년 일정한 시간에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지역에서의 청소년 문화환경에 새로운 역사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지역 단위 청소년 문화의 특징적 발전 가능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3) 체계성 개선을 위한 정책

첫째, 동종업종간의 집중도를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 밀집지역 내에서도 업종별로 구역을 정하여 배치하는 것

은 이 거리의 특색을 더 잘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청소년들을 위해 유해업소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청소년 공간 또는 전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업소 또는 시설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시설이 위치하는 경우 주변에는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더 즐겨 찾을 수 있는 음식점 등의 먹거리 또는 스포츠 시설 등과 같은 즐길거리 시설들이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청소년 밀집지역 주변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동편으로 공원이나 청소년 광장이 위치해 있을 경우 주로 청소년 밀집지역 내에서도 동편 쪽에 청소년 관계시설들을 위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 밀집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거리이름을 붙여야 한다.

대부분의 조사대상 지역에서는 이들 거리를 지칭하는 고유의 거리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일관된 거리표지판을 사용하여 지칭하고 있었으며, 대전의 경우에는 거리 입구에 대형 아치를 설치하고 그 곳에 ‘으능정이 문화 거리’라는 명칭을 기재하고 있는 등 고유의 이름을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으며, 거리이름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에 일반적으로 불리던 거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거리이름이란 곧 그 곳의 지역적 정체성을 대변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밀집지역으로서의 지역적 정체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고유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넷째, 혼란스러운 가시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는 광고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지역에서는 코엑스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시각 이미지가 청소년의 인성발달과 심지어 성인의 심리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고려해 본다면 한 업소 당 최소 2-3개의 광고판이 무질서하게 걸려 있는 현실은 곧 청소년들의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추론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단순하고 세련되며 크지 않은 집중적 형태로 광고판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역사성 개선을 위한 정책

첫째, 청소년 밀집지역의 역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역사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공간은 크지 않아도 되며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이 지역의 역사를 알아보고, 그로부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반드시 역사적인 배경의 프로그램을 첨가하여야 할 것이다.

광화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문장 교대식 차원은 아닐지라도 다양한 형태의 역사적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적 정체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역사관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5) 창의성 개선을 위한 정책

첫째, 표지판, 간판, 가로등, 가로수, 화단, 쓰레기통 등 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설치물들의 형태를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색상, 형태 등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경우 거리의 모습은 매우 모던적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의 모습은 고전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가로등을 선정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색상의 경우에도 주요 색상을 선정하여 거리 전체의 분위기가 통일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청소년들로부터 직접 공모하여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면 그들의 거리 또한 그들의 다양성으로 채워지는 것도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길거리 청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길거리 청결은 매우 중요한 거리 이미지이다. 대부분의 조사대상 지역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나마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거리 곳곳이 쓰레기들로 덮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쓰레기통의 효과가 적었기 때문이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 버려진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수거해 오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창의적 프로그램 및 정책적 개발 및 시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규제 위주의 지역이 되기보다는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공공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우현(1997). 문화환경의 디자인세계. 서울 : 발언.
- 김경배(1983). 문화적 교육환경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 논문집, 제7권 제1호.
- 김규호(2000). 문화행사가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0 평가회.
- 김문환(1999). 문화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선애(1995). 아동 및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연구-가족요인을 중심으로.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승현(2000). 축제만들기. 서울 : 열린책들.
- 김윤주 역(1993). 놀이와 문화에 관한 한 연구. 서울 : 까치.
- 김준호·김순형(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창남(1998).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 한울.
- 김충목·정문성(1997). 문화적 환경권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논문집, No. 24.
- 김태명·김조년 외(1998). 소비문화와 환경오염. 한국동서경제학회.
- 류경희(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12호, pp.147-168.
- 문영석(2002). 인류의 제4혁명기에 선 문화와 환경. 인문과학논집, Vol. 11.
- 문태선(1991). 문화환경을 위한 Poster Display의 역할. 산업미술연구, 제7권 제1호.
- 문화관광부(1996). 한국의 지역축제. 서울 :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2002). 「문화환경 가꾸기」 사업 추진계획.
- 문화부(1992). 우리의 문화환경.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 박규현(2002). 도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간판문화에 대한 시민참여 조사연구. 대구광역시 간판을 중심으로. 디자인연구논집, 제1권 제1호, pp.31-56.
- 백유진(2002). 도시의 문화환경을 위한 정책모델 제안.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아렌트, H. 김정한 역(2000). 폭력의 세기. 도서출판 이후.
- 안귀덕(1995). 한국청소년문화 II.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안귀덕·황정규·김의철·박영신(1997). 한국청소년문화 :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안귀덕 외(1998). 한국청소년문화 : 변화와 연속.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안귀덕·황정규·김광웅·김경성(1999). 한국청소년문화 :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유병림(1992). 도시 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 이경우(2000). 옥외 광고물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연구.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19호. pp.21-48.
- 이상일(1988). 놀이문화와 축제.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은희·공수자·이정숙(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 분노조절과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제16권 제1호, pp.123-145.
- 임상록(2002). 한국 청소년문화의 현상적 특성에 대한 고찰. 학생생활 연구, 제7집.
- 임태윤·강경봉(1999). 옥외광고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99한국디자인포럼4호, pp.36-47.
- 임학순(1996). 도시 문화환경 조성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정유미·김득성(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부산시내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
한가정학회지, 제36권 제3호, pp.31-45.
- 제주학회(1999). 제주인의 생활문화와 환경. 제주학회 창립 21주년 기
념 제 15차 전국학술대회.
- 조명한·김경동·강현두(1993). 청소년문화지표 조사연구. 한국문화예
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 조학래(1996). 자원봉사 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0). 청소년 문화지도. 서울특별시.
- 최원기·전경숙·김창남(2000). 청소년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정책
적 대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00-R06.
- 최원기(1997). 프랑스 문화이론에 대한 일고찰. 1997. 06. 전기사회학대
회 발표문.
- 최준식(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 : 사계절.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2000). 정보화 시대 청소년문화의 실체. 한국간
행물윤리위원회.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3). 문화환경가꾸기 2003 진단지표 매뉴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 정책가이드-상설 청소년 문화존 조
성·운영 지원. 문화도시 문화복지, Vol. 155.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 정책가이드-2004년 문화의 거리 1차
대상 지역 선정. 문화도시 문화복지, Vol. 153.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발전연구소(1990). 지역문화환경 실태분석을 통한
문화공간의 활용과 확충방안.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발전연구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7). 한국청소년문화 :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환경론. 서울 : 교육과학사.

- 한덕규·조옥상(1995). 지역환경에 대한 주민환경지표에 관한 연구. 수원대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 제10권.
- 한준상(1997). 동승동의 아이들 : 청소년의 파괴문화.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 황기원(1986). 도시문화환경조성계획의 접근방법. 환경논총, 제19권.
- Leslie White(1977). 문화의 개념. 일지사. 이문웅 역.
- Baudrillard, J.(1970).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Paris : Editions Denoel.
- Baudrillard, J.(1995). "Le crime parfait". Paris. Galilée.
- Choi, W. K.(1996). "Etude sur la méthodologie non-dualiste en sociologie phénoménologique et compréhensive : l'analyse multi-référentielle descriptive appliquée à la société sud-coréenne",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Paris V Sorbonne.
- De Certeau, M.(1984).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Univ. of California Press.
- Grossberg, L.(1992). *We gotta get out of this place*. New York & London:Routledge.
- Grossberg, L., Nelson, C. and Treichler, P.(1991). *Cultural studies*. New York : Routledge.
- Hall, S.(1980). *Encoding/decoding*. Hall et. al.
- Juan, S.(1991). *Sociologie des genres de vie*. Paris : Universitaires de France.
- Juan, S.(1995). *Les formes élémentaires de la vie quotidienne*. Paris : Universitaires de France.
- Le Breton, D.(1990). *Anthropologie du corps et modernité*. Paris : Universitaires de France.

- Le Breton, D.(1995). *Anthropologie de la douleur*. Paris : Métailié.
- Maffesoli, M.(1997). *Du nomadisme : vagabondages initiatiques*. Paris : Le Livre De Poche.
- Morin, E.(1965). Culture supérieure et culture de mass. Colloque de Royaumont. in *Communications*. 5.
- O'Sullivan, T., Hartley, J., Saunders, D. and Fiske, J.(1983). *Key concepts in communication*. London : Methuen.
- Rose, J., et. al.(1987). *La transition professionnelle:les jeunes de 16 à 18 ans*. Paris : L'Harmattan.
- Tylor, E. B.(1958-1873, 1871). *The origins of culture and religion in primitive culture*. Volumes I and II of the 1873 edition of Primitive Culture. New York : Harper & Brothers.
- UNESCO(1980).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e light of the tbilish conference*. Paris : UNESCO.
- Waites, B., Bennett, T. and Martin, G.(1982). *Popular culture: past and present*. London : Open University.

■ 관련법 및 정책 · 인터넷 자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문화환경 가꾸기 홈페이지 <http://culture.kctpi.re.kr/>

부 록

부
록

부 록

청소년 문화환경 실태 조사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육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지난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에 관한 연구개발 및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문화환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청소년 문화환경의 실태를 조사 해 봄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여러분 개인의 응답에 따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 06.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 137-715)

육성정책연구실 연구담당자(☎ 2188-8823 / 2188-8831)

7. 당신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 ___ 1) 100만원 미만 ___ 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___ 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___ 4)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___ 5)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___ 6) 500만원 이상

8. 당신의 한달 용돈은 얼마입니까?

- ___ 1) 3만원 미만 ___ 2)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___ 3) 5만원 이상-7만원 미만 ___ 4) 7만원 이상-10만원 미만
 ___ 5)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 ___ 6) 15만원 이상

9. 당신의 평일 여가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___ 1) 1시간 미만 ___ 2) 1시간-2시간 ___ 3) 2시간-3시간
 ___ 4) 3시간-4시간 ___ 5) 4시간 이상

10. 당신의 주말(토·일) 여가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___ 1) 2시간 미만 ___ 2) 2시간-4시간 ___ 3) 4시간-6시간
 ___ 4) 6시간-8시간 ___ 5) 8시간 이상

11. 당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___ 1) 단독주택 ___ 2) 연립 또는 다세대 주택
 ___ 3) 아파트 ___ 4) 기타()

12. 당신의 현재 주거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___ 1)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가 ___ 2) 상업지역
 ___ 3) 공장지역 ___ 4) 기타()

13. 당신의 학급 성적은?

- ___ 1) 1등-10등 ___ 2) 11등-20등 ___ 3) 21등-30등
 ___ 4) 31등-40등 ___ 5) 41등-50등

14.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___ 1) 기독교 ___ 2) 천주교 ___ 3) 불교
 ___ 4) 이슬람교 ___ 5) 기타()

*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소비 및 문화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자주 가는 지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15. 당신이 평소 소비 및 문화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가장 자주 가는 지역(집, 학교, 학원 제외 / 예: 서울역 뒷편)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 _____

16. 그 지역에 자주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1) 집이 가까워서
 ___ 2) 다른 친구들도 다 그 곳에 가니까
 ___ 3) 다른 지역에 비해 갈 곳도 많고 볼거리가 많아서
 ___ 4)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___ 5) 교통이 편리해서
 ___ 6) 그 지역의 분위기가 좋아서
 ___ 7) 기타(_____)

17. 그 지역에서 주로 하는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입니까?

- ___ 1) 쇼핑하기 ___ 2) PC방(온라인게임, 인터넷)이용하기
 ___ 3) 친구와 이야기하기 ___ 4) 먹고 마시기
 ___ 5) 전자오락실 게임하기 ___ 6) 공연관람(연극, 뮤지컬 등)
 ___ 7) 종교 활동 ___ 8) 스포츠(체력 단련) 활동
 ___ 9) 영화보기 ___10) 기타(_____)

18. 그 지역에서 주로 하는 활동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___ 1) 매우 그렇다
 ___ 2) 그렇다
 ___ 3) 보통이다
 ___ 4) 그렇지 않다
 ___ 5) 전혀 그렇지 않다

18-1.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1) 시설·환경이 열악(부족)해서
 ___ 2) 학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___ 3)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___ 4) 부모님이나 학교의 통제가 심해서
 ___ 5) 기타(_____)

19. 주로 누구와 함께 그 지역에 가십니까?

- ___ 1) 혼자서 ___ 2) 이성친구와 함께 ___ 3) 동성친구와 함께
 ___ 4) 가족과 함께 ___ 5) 선배 또는 후배와 함께 ___ 6) 기타(_____)

20. 얼마나 자주 그 지역에 가십니까?

- ___ 1) 주 1-2회 ___ 2) 주 3-4회
 ___ 3) 주 5-6회 ___ 4) 주 7회 이상

20-1. 한 주 중 언제 주로 그 지역에 가십니까?

- ___ 1) 주 중에 ___ 2) 주말에

20-2.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주로 그 지역에 가십니까?

- ___ 1)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___ 2)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
 ___ 3)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___ 4) 오후 6시부터 밤 9시
 ___ 5) 밤 9시부터 밤 12시 ___ 6) 밤 12시부터 새벽 3시
 ___ 7)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___ 8) 기타(_____)

21. 그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어떤 시설들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1) 공연장 및 예능시설(야외음악당, 음악감상실, 미술전시장 등)
 ___ 2) 휴게시설(분식점, 제과점, 스넥코너, 청소년카페 등)
 ___ 3) 체육시설(볼링장, 농구장, 수영장, 탁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테니스장 등)
 ___ 4) 청소년 댄스장
 ___ 5) 야외공원
 ___ 6) 공공도서관
 ___ 7) 청소년 전용극장
 ___ 8) 기타(_____)

22.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과 관련된 청소년정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의견을 제안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다(22-1번부터 22-3번에 응답하세요)
 2) 없다(23번으로 가세요)

22-1.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 _____

22-2. (본인의 의견을 제안한 경우)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까?

- 1) 그렇다 2) 아니다

22-3.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안하였습니까?

- 1)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2) 청소년위원회를 통해서
 3) 직접 방문을 통해서
 4) 기타(_____)

23. 그 지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 1) 청소년 전용시설(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쉼터 등)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2) 거리 청결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3) 청소년을 위한 길거리 이벤트(거리축제, 길거리 농구, 거리공연 등)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었으면 좋겠다.
 4)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 주었으면 좋겠다.
 5) 광고 간판을 보기 좋게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6) 청소년 전용지역을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7) 정책에 별로 관심이 없다.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4. 그 지역이 본인의 문화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25. 그 지역에 있는 성인 전용시설(술집, 나이트클럽 등)에 가 본 경험이 있습니까?

___ 1) 있다(25-1번과 25-2번에 응답하세요)

___ 2) 없다(26번으로 가세요)

25-1. 있다면 어떤 곳이었습니까? _____

25-2. 성인 전용시설에 갔었을 때, 단속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___ 1) 있다

___ 2) 없다

26. 본인은 청소년 전용시설, 청소년 출입가능시설, 청소년 출입금지시설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___ 1) 구분할 수 있다

___ 2) 구분할 수 없다

27. 그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한 길거리 이벤트(거리축제, 길거리 농구, 공연 등)가 개최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___ 1) 있다

___ 2) 없다

28. 그 지역의 환경구성(표지판, 간판, 벤치, 길거리 청결정도, 가로수 등)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1) 그렇다

___ 2) 아니다

29. 그 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1) 매우 충분하다

___ 2) 충분하다

___ 3) 보통이다

___ 4) 부족하다

___ 5) 매우 부족하다

30.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___ 1) 매우 많이 알고 있다

___ 2) 많이 알고 있다

___ 3) 보통이다

___ 4) 잘 모른다

___ 5) 매우 잘 모른다

* 다음은 여러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V 표시해 주십시오.

「청소년 문화지역(블루존, 그린존 등)」이란 청소년을 위한 활동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지역이나 공간, 시설을 말합니다.

31. 당신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1) 그렇다(31-1번으로 가세요)
 2) 아니다(32번으로 가세요)

31-1. (알고 있다면)가 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그렇다(31-2번부터 31-10번에 응답하세요)
 2) 아니다(32번으로 가세요)

31-2. (알고 있다면)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 1) 길거리 플래카드를 통해서
 2) 전단지를 통해서
 3) 인터넷을 통해서
 4) 친구를 통해서
 5) 기타(_____)

31-3. (가 본 경험이 있다면)그 지역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집이 가까워서
 2) 다른 친구들도 다 그 곳에 가니까
 3) 다른 지역에 비해 갈 곳도 많고 볼거리가 많아서
 4)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5) 교통이 편리해서
 6) 그 지역의 분위기가 좋아서
 7) 기타(_____)

31-4. (가 본 경험이 있다면)그 지역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그렇다 2) 아니다

31-5. (가 본 경험이 있다면)그 지역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 1) 쇼핑하기 2) PC방(온라인게임, 인터넷)이용하기
 3) 친구와 이야기하기 4) 먹고 마시기
 5) 전자오락실 게임하기 6) 공연관람(연극, 뮤지컬 등)
 7) 종교 활동 8) 스포츠(체력 단련) 활동
 9) 영화보기 10) 기타(_____)

31-6. (가 본 경험이 있다면)그 지역에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 1) 주 1-2회 2) 주 3-4회
 3) 주 5-6회 4) 주 7회 이상

31-6-1. (가 본 경험이 있다면)한 주 중 언제 주로 그 지역에 가십니까?

- 1) 주 중에 2) 주말에

31-6-2. (가 본 경험이 있다면)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주로 그 지역에 가십니까?

- 1)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2)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
 3)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4) 오후 6시부터 밤 9시
 5) 밤 9시부터 밤 12시 6) 밤 12시부터 새벽 3시

31-7. (가 본 경험이 있다면)주로 함께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1) 혼자서 2) 이성친구와 함께
 3) 동성친구와 함께 4) 가족과 함께
 5) 선배 또는 후배와 함께 6) 기타(_____)

31-8. (가 본 경험이 있다면)그 지역에서 주로 하는 활동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31-8-1.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시설·환경이 열악(부족)해서
- 2) 학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 3)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 4) 참가할 만한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 5) 기타(_____)

31-9. (가 본 경험이 있다면)그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어떤 시설들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공연장 및 예능시설(야외음악당, 음악감상실, 미술전시장 등)
- 2) 휴게시설(분식점, 제과점, 스낵코너, 청소년카페 등)
- 3) 체육시설(볼링장, 농구장, 수영장, 탁구장, 롤러스케이팅장, 테니스장 등)
- 4) 청소년 댄스장
- 5) 야외공원
- 6) 공공도서관
- 7) 청소년 전용극장
-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1-10. (가 본 경험이 있다면)그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해 어떠한 문화활동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문화·예술 공연
- 2) 취미·교양 강좌
- 3) 스포츠(체력단련) 활동
- 4) 해외 문화 체험 활동
- 5) 민속 문화 체험 활동
- 6) 각종 전시회
-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다음은 청소년의 문화환경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32. 다음 시설들 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 문화시설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중복표기가능)

- | | | |
|-----------------------------------|--------------------------------------|--|
| <input type="checkbox"/> 1) 전자오락실 | <input type="checkbox"/> 2) PC방 | <input type="checkbox"/> 3) 미술관 |
| <input type="checkbox"/> 4) 노래방 | <input type="checkbox"/> 5) 백화점 | <input type="checkbox"/> 6) 당구장 |
| <input type="checkbox"/> 7) 공연시설 | <input type="checkbox"/> 8) 커피숍 | <input type="checkbox"/> 9) 옷가게 |
| <input type="checkbox"/> 10) 유흥주점 | <input type="checkbox"/> 11) 청소년 수련관 | <input type="checkbox"/> 12) 전화방 |
| <input type="checkbox"/> 13) 극장시설 | <input type="checkbox"/> 14) 비디오방 | <input type="checkbox"/> 15) 대형할인매장 |
| <input type="checkbox"/> 16) 콜라텍 | <input type="checkbox"/> 17) 박물관 | <input type="checkbox"/> 18) 인라인스케이트장 |
| <input type="checkbox"/> 19) 포장마차 | <input type="checkbox"/> 20) 공공도서관 | <input type="checkbox"/> 21) 청소년 문화의 집 |
| <input type="checkbox"/> 22) 만화방 | <input type="checkbox"/> 23) 나이트클럽 | <input type="checkbox"/> 24) 호프집 |
| <input type="checkbox"/> 25) 팬시점 | <input type="checkbox"/> 26) 길거리농구대 | <input type="checkbox"/> 27) 락카페 |

33. 본인이 생각하기에 청소년 문화환경이 가장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 <input type="checkbox"/> 1) 광주 | <input type="checkbox"/> 2) 대구 | <input type="checkbox"/> 3) 대전 | <input type="checkbox"/> 4) 부산 |
| <input type="checkbox"/> 5) 서울 | <input type="checkbox"/> 6) 인천 | <input type="checkbox"/> 7) 제주 | <input type="checkbox"/> 8) 춘천 |

* 다음은 주거지역·가족·학교의 문화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34.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자랑할 만한 문화재가 많이 있다.	5	4	3	2	1
35.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길거리가 청결하다.	5	4	3	2	1
36.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광고간판 정리가 잘 되어 있다.	5	4	3	2	1
37.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5	4	3	2	1
38.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공공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극장, 공연장, 도서관 등)이 많이 있다.	5	4	3	2	1
39.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있다.	5	4	3	2	1
40.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환경에 대해서 만족한다.	5	4	3	2	1
41.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한다.	5	4	3	2	1
42. 나는 현재 이 지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5	4	3	2	1
43.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만족한다.	5	4	3	2	1
44.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시설들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5	4	3	2	1
45.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5	4	3	2	1
46.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신다.	5	4	3	2	1
47. 우리 부모님은 가사활동을 분담하신다.	5	4	3	2	1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48. 우리 가족은 가훈을 중요시한다.	5	4	3	2	1
49. 나는 여가시간을 항상 가족과 함께 보낸다.	5	4	3	2	1
50. 나는 우리가족과 함께 영화나 공연을 자주 보러 다닌다.	5	4	3	2	1
51. 나는 평소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다.	5	4	3	2	1
52. 나는 현재 나의 가정생활에 만족한다.	5	4	3	2	1
53. 나는 우리가족이 자랑스럽다.	5	4	3	2	1
54. 나는 한달 용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55. 나는 평소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56. 나는 현재 나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만족한다.	5	4	3	2	1
57. 학교 선생님은 언제나 권위적으로 대하신다.	5	4	3	2	1
58. 학교 선생님은 나를 차별하는 것 같다.	5	4	3	2	1
59. 나는 평소 선생님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다.	5	4	3	2	1
60. 나는 우리학교가 자랑스럽다.	5	4	3	2	1
61. 나는 우리학교의 교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5	4	3	2	1
62. 나는 우리학교의 교칙제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5	4	3	2	1

【 연구 요약 】

문화란 인간 생활양식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 사회의 문화적 토대는 특히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적 토대는 곧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빈번히 접하게 되는 문화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러한 논의의 흐름에서 볼 때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환경의 현재적 모습 정도에 따라 청소년들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환경의 실태와 이러한 문화환경에 대해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의 의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울특별시와 전국 광역시(울산 제외) 및 주요 도시(제주, 춘천)들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정책에 있어 문화환경과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찰해보았다. 현지조사의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방문하는 지역(일명 청소년 밀집지역)들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의 문화환경에 대해 연구자들이 직접 조사하였다. 전체 업소를 조사하였고 그 유형과 종류, 분포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며, 조작적 정의를 통해 확인된 기타 문화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의견, 청소년 문화지역에 대한 의견, 가족 문화환경, 학교 문화환경, 주거지역 문화환경 등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분

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사회의 청소년 문화환경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특히 학교 문화환경과 청소년 밀집지역에서의 문화환경 등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전용시설과 청소년 출입가능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심지어 청소년들은 이들 지역의 주점 등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출입하기도 하였다. 학교에서 역시 학업 부담, 교사의 차별, 시설 낙후 등의 문제가 문화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반면, 가족과 거주지역에서의 문화환경은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간의 대화 신장, 주거지역에 대한 자부심 등 긍정적인 측면이 관찰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좋은 문화환경을 지닌 도시로 평가되었고 실제로도 그런 모습이 관찰되었다. 가장 부정적인 모습이 관찰된 지역은 인천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빈번히 찾고 있는 지역으로 응답된 주안역 부근은 실제로는 유흥주점 등 청소년 출입금지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여타 도시에서도 성인시설이 이들 지역에 공존해 있었지만 비교적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주안역 부근은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문화지역 설정 정책들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선정된 청소년 밀집지역과 정책적으로 선정된 청소년 문화지역간에는 거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은 시내 중심 지역을 방문하지만 정책은 이들에게 엉뚱한 곳에 가 있으라고 하는 격이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화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문화환경 및 청소년 문화환경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행하였는데, 이론적 고찰을 통해 청소년 문화환경의 중요 구성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 공공성
- 체계성
- 다양성
- 역사성
- 창의성

구체적 정책의 제시에 앞서 우선 이들 5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청소년 문화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으로부터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청소년 밀집지역에서의 청소년 문화환경은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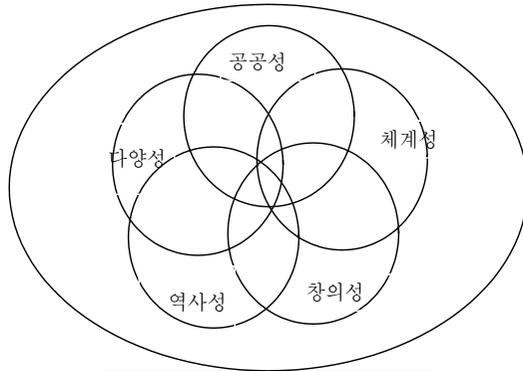
둘째, 다양성이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문화환경의 체계적 틀이 갖추어져야 한다.

넷째, 지역에 기반한 청소년 문화환경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성이 살아 있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 문화환경의 구성에 있어 창의성이 개입되어야 한다.

청소년 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이상의 5가지 비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올바른 청소년 문화환경

상기 비전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개선정책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성 개선을 위한 정책

첫째, 청소년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점, 비디오방, 성인 오락실, 전화방 등 일질의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성인 전용시설)들을 타 지역으로 이전, 배치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 전용시설과 청소년 출입가능시설을 증가시켜야 한다.

2) 다양성 개선을 위한 정책

첫째, 청소년 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3) 체계성 개선을 위한 정책

첫째, 동종업종간의 집중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 공간 또는 전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업소

또는 시설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 밀집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거리 이름을 붙여야 한다.

넷째, 혼란스러운 가시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는 광고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4) 역사성 개선을 위한 정책

첫째, 청소년 밀집지역의 역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역사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지역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반드시 역사적인 배경의 프로그램을 첨가하여야 할 것이다.

5) 창의성 개선을 위한 정책

첫째, 표지판, 간판, 가로등, 가로수, 화단, 쓰레기통 등 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설치물들의 형태를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색상, 형태 등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길거리 청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